

옹진섬 민요집

- 백령 · 대청 · 연평면 편 -

The Folksongs of Ongjin-gun, S.Korea
- Baeknyeong · Daecheong · Yeonpyeong Islands -

By Sora Yi



contents



● 발간사	4
● 머리말	5
● 일러두기	6
1. 개관	10
1.1 배경, 녹음지역	10
1.2 응진섬 민요의 분류	13
1.3 가창자	14
2. 응진군 민요의 특색	21
3. 어로요 <섬 1~21>	27
3.1 노젓는 소리 <섬 1~5>	27
3.2 그물 당기거나 뽑는 소리 <섬 6~9>	28
3.3 닻 감는 소리 <섬 10,11>	28
3.4 까나리 올릴 때의 술비소리 <섬 12>	28
3.5 고기 퍼싣는 소리 <섬 13,14>	29
3.6 배치기(에밀량) <섬 15~21>	29
4. 농요 <섬 22 ~ 60>	32
4.1 (논)김매는 소리	32
4.2 저리소 밭갈이<섬 41~46①>, 용두레<섬 46②>, 감내기<섬 47~51>	34
4.3 물레<섬 52~55>, 베틀<섬 56,57>, 망질소리<섬 58~60①>	36
5. 기타 일노래 <섬 61~65>	38



옹진섬 민요집

The Folksongs of Ongjin-gun, S.Korea



6. 동요, 유희요 <섬 66 ~ 80>	40
7. 흥민요	45
8. 의식요 <섬 144 ~165>	56
8.1 의식 풍속요 <섬 144~147>	56
8.2 산염불 <섬 148~ 153>	57
8.3 상부소리	58
* <사진> 게재	
<사진 1~23>	16
<사진 24~27>	30
<사진 28~31>	39
<사진 32~41>	62
* <그림> 게재	
<그림 1> 1899년~1945년의 옹진군 (옹지군지(상))	11
<그림 2> 1953년 7.27 휴전후의 옹진군 (옹진군지(상))	11
<그림 3> 백령도 녹음지역	12
<그림 4> 대청도 녹음지역	12
<그림 5> 연평도 녹음지역	12
<그림 6> 곱새치기 옹진목	54
<그림 7> 곱새치기 장연목	54
* 악보 게재	
* 악보 차례	66
* 악보 차례	276



발간사(發刊辭)

우리 옹진은 황해에 연꽃으로 피어 있는 섬들입니다.

섬에는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제반 생활 여건이 격리 소외 속에 거친 풍랑과 대적하면서 자연이 주는 숨소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이 숭고한 생존현장에 녹아있는 삶의 애환을 소리로, 노래로, 이야기로 엮어 구전되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의 수명이 유한하여 이들의 온전한 전수도 어렵고 이에 사람 따라 이 소리도 사라져 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차에, 나요당 선생님의 연구 자료 중에서 해 5도 음원재료들을 접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옹진 5도의 농요, 어업요, 동요, 상례의 식요 등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를 현대적 기법으로 음원의 재생, 음표작성, 가사정리, 노래한 사람의 실명 등 향토 문화를 복원하여 보전하고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값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소리에는 생명이 있고 생활 속의 애환이 녹아있고 그 추억 속에 미래를 그려 봅니다.

옹진문화원의 존재 이유인 향토문화의 발굴 보전 향유의 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은 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이 자료들이 달빛에 바래면 신화가 되고,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향토문화 발굴과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편달과 협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옹진문화원 원장 태동철 올림.



머 리 말

필자의 옹진 섬 지역 방문 녹음은 1987년과 1988년에 실시되었다. 이 지역의 토민(토박이)들을 가렸지만, 1950년 6.25 사변을 전후한 북한지역 출신의 노래도 흥민요 중심으로 일부 포함하였다. 그러나, 백령·대청·연평면의 고유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기에, 본격적인 북한 피난자의 가창부분은 따로 끓어낼 요량이다.

다함께 부를 오늘의 노래로는 살라라나 니나나타령, 배치기 노래도 가능하다. 헛상여소리인 너시랑 소리도 독특한 우리 장례문화의 일환으로 소개되었으면 한다.

살라라 살라라
나알 살라라
황○○ 네 누나야
정○○ 만 살라라

새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북어나 봉등이로 때리는 풍속은 과히 통민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살라라>와 같은 신랑다루기 노래를 수집한 것은 연평도에서 일 뿐이다. 연평도 사람들은 <살라라>를 자진난봉가곡에 얹어 불렀다.

한 번의 짧은 소개로, 오래 묵혀둔 테입을 풀어 지체없이 영구 보존용 책으로 묶을 수 있게 된 것은, 태동철 원장님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원 식구들의 추진력 및 지혜가 함께 한 덕으로 보인다.

옹진문화원의 알차고, 타에 모범이 되는 무궁한 발전을 빈다.

녹음에 응하신 수많은 가창자들과 협조자들 및 관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음원은 문화원에서 가까운 시기에 제작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19년 10월
나요당(羅謠堂) 이 소라



일 러 두 기

(예) 메김선율, 메김소리

(받) 받음선율, 받음소리

C.P (같은 음조직에서의 위치 변경) 또는 T.P 이조점(移調點)

C.O (음조직 변경) 또는 m.p 전조점(轉調點)

14. (토민)(土民)

15. 素96-11-4B
MD 99-8-30

16. <SR>

1, 2 내재박(内在拍) 또는 내재마디

3. 기준길이보다 짧은 음

4. 기준길이보다 긴 음

5. 기준길이보다 약간 긴 음

6. 약한 요성(搖聲)

7. 음의 끝을 끌어내리며 점점 사라짐(退聲)

8. 굴리면서 내려옴

9. 곧게 뻗다가 요성함

10. 제자리에서 굴려내는 음(轉聲)

11. 속소리

12.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13. 미묘하게 약간 높은 느낌의 음

14. 토박이(해당지역에 태어나서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

15. 필자 소장의 녹음테잎 번호

16. 나요당(羅謠堂)이소라의 해석 및 교정 악보

* 맥받형식 : 맥이고 받는 가창방법. 메김소리꾼이 매번 가사를 바꾸어 맥이는 대로 받음소리꾼들은 매번 같은 받음구로 받음.



선법의 명칭과 약문자 例

선 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선 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도 선 법	D1	도레미솔라	미 선 법	M1	미솔라도레	
	D2	도 미솔라		M2	미 라도레	
	D3	도 미솔		M3	미 라도	
	D4	도레미솔		M4	미솔라도	
	D5	도(례)미솔라시	모선법	P	증3도+단3도	
	D6	(기타)	모노래선법	PD	모선법과 도선법의 공존	
	* 약문자 6은 해당 선법의 기타 구성관계를 표시			PM	모선법과 미선법의 공존	
				PDM	모선법과 도선법, 미선법의 공존	
솔 선 법	S1	솔라도레미	레 선 법	R1	레미솔라도	
	S2	솔 도레미	육자배기선법	Y1	미솔라시도(례)	
	S3	솔 도레		Y2	미 라시도(례)	
	S4	솔 라도레	라 선 법	L1	라도레미솔	
	S5	솔(라)도레미파		L2	라 레미솔	
	S6	(기타)		L3	라 레미	

※ S3, L3, R3은 서로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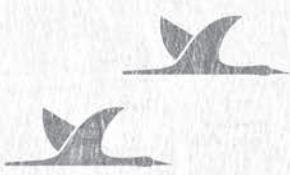
※ S4와 R4는 상통한다.

t1 : 기음종기 t4 : 4도윗음종기 t5 : 5도윗음종지 t5g : (5도윗음종지 단 퇴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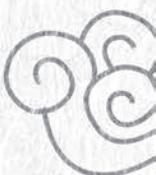
t중대4 : 중대음으로부터 4도윗음종지

v1 : 기음요성 v4 : 4도윗음요성 v5 : 5도윗음 요성





—
개 관



1. 개관

1.1 배경, 녹음지역

옹진군의 도서들은 6,000년 이전에 멸악산맥(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과 마식령산맥(덕적군도, 자월도, 장봉도, 영홍도 등)의 말단부에 속하여 육지부로 남아있다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육지로부터 격리되었다고 한다.¹⁾

[옹진 섬 민요집]은 황해도 서쪽 바다의 섬 중, 현 옹진군 소속 백령면, 대청면과 연평면 지역의 민요를 주 대상으로 한다.

백령면은 50.98Km² 으로 옹진군 중 가장 크고, 연평면은 7.28Km² 으로 옹진군 중 가장 작다. 대청면은 15.56Km² 이다. 백령면은 해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황해도 장연군 소속이었다. 백령도를 제외한 옛 옹진군 지역은 모두 북한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남한에는 해방 이전의 옹진군 영역은 없으며, 해방 이전까지 옹진반도의 원 옹진군의 역사는 지금의 옹진군과 직접 관련이 없다.²⁾

현 옹진군 지역은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노년기 지형이라 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산이라야 자월면 선갑도의 선갑산(351.6m)이며, 그 다음이 대청도의 삼각산(343m)이다. 백령도의 업죽산은 184m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큰 하천이 없다.

대청면의 유인도는 대청도와 소청도이며 본래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 소속이었다. 대청도는 백령도 남쪽으로 12Km거리에 있다. 백령면은 고구려시대에 곡도(鵠島)라 하였으며 고려 초기부터 백령도라 일컬었다. 연평면의 유인도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이며 ‘연평도’라는 지명은 문헌상으로 [고려사]에 처음 나타나는 바, 1938년엔 황해도 벽성군(전 해주군) 송림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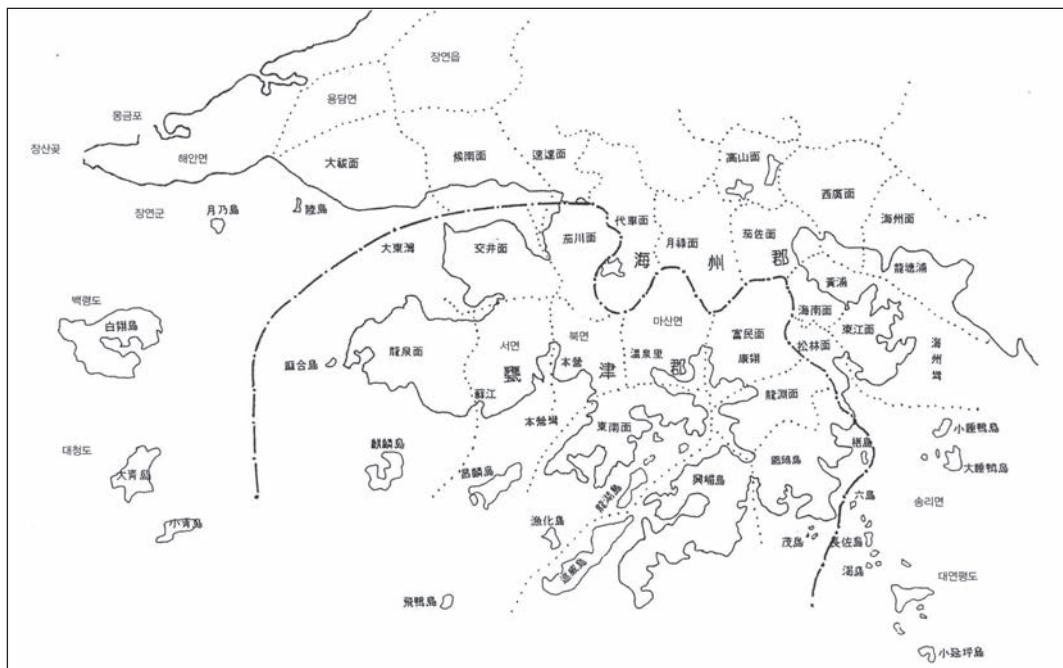
본서의 3개면은 1945년 광복후 경기도 옹진군으로 관할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자로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개편되면서 인천광역시 소속 옹진군이 되었다. 옹진군 송림면은 1999년 7월 20일자로 송림면의 명칭을 연평면으로 개칭하였다.

필자의 옹진섬 방문은 1987년과 1988년에 실시되었으며, 녹음지역은 <그림 3, 4, 5>가 참고된다. 백령면의 1987년도 일반현황을 보면, 면적의 26%가 농경지(밭은 17.1%, 논은 8.9%)이다. 진촌1~5리(현재는 1~7리)가 백령면 논면적의 34.4%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이 남포1,2리(28.0%)이다. 가을 1~3리는 15.7%, 북포1, 2리(현재는 1~3리)는 15.5%. 연화1~3리는 8.8%된다. 가구수는 1,559호이며, 농가가 54%, 어가가 11%된다.

대청면의 1987년도 토지종별 현황을 보면, 총 1,570ha중 밭은 170ha로 10.8%, 논은 19ha로 1.2%. 임야는 1,332ha로 84.8%를 차지한다. 그중 대청도는 1,278ha중 밭이 108ha, 논이 19ha, 임야는 1,107ha 된다. 따라서 대청도의 면적에 대한 밭면적은 8.5%, 대청도 논면적은 1.5%. 대청도 임야면적은 86.5%된다. 소청도의 면적은 292ha이며 논은 없고 밭이 62ha, 임야는 225ha 된다.

1) 2012년판 옹진군지편찬위원회 편 [옹진군지](이하 [옹진군지]) 상권 p.71.

2) [옹진군지] 상권 p.3,P.5.



〈그림 1〉 1899년~1945년의 옹진군 (옹지군지(상))



〈그림 2〉 1953년 7.27 휴전후의 용진군 (용진군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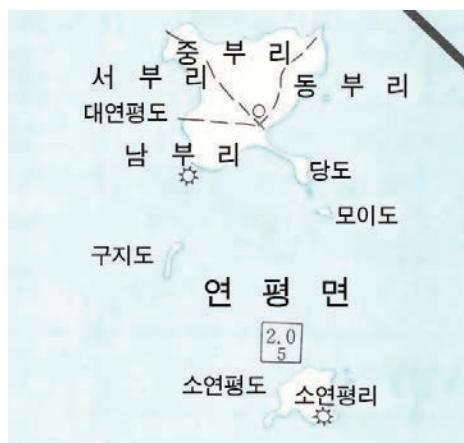
연평면은 북한과의 거리가 10Km에 불과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1987년도 일반현황을 보면, 총면적 734.9ha중 농경지는 17%인 125ha, 임야는 80%인 589ha이다. 농경지중 논은 45ha로 6.1% 된다. 따라서 논면적이 8.7%인 백령면보다는 적으나, 1.5%에 불과한 대청도보다는 훨씬 많다. 밭작물로는 채소와 고추를 주로 재배하나, 민통선지역이어서 묵은 밭이 많단다. 총가구 544호중 농가는 115가구, 어가는 143가구이다. 총가구중 원주민 가구는 200호가 조금 못된다고 하였다. 그 외의 200호는 파난민 가구이며 나머지는 외지인 들이다.



〈그림 3〉 백령도 행정구역



〈그림 4〉 대청도 행정구역



〈그림 5〉 연평도 행정구역

1.2 웅진섬 민요의 분류

노래의 역할, 쓰임새로 보아 단순히 친목을 도모한 여홍이나 자기 자신의 흥을 위한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는지(음악 내적內的 기능), 그 외에 다른 쓰임새(음악 외적外的 기능)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일차적으로 흥(興)민요와 외적 기능으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 다시 쓰임새의 종류에 따라 노동요·놀이요·의식요로 구분함은 본서에서와 같이, 기능(機能)에 의한 민요 분류에 속한다.

가장자가 노래부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무얼하면서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한 분류방법에는 기능에 의한 분류가 적격이다.

농업노동의 결실로 얻은 산출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인 길쌈노래나 제분(製粉)노래를 농요의 범주에 넣어 다룰지 또는 별개의 노동요로서 분류할지는 분류자의 필요에 따라서 달리 될 수 있다. 필자는 비교민요적 차원에서 여러민족의 농요를 특별히 연구해오고 있는 필요상, 때에 따라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광의의 농요로 다룬다.

웅진섬 민요를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우선 대상을 기준으로 향유 주체 또는 객체가 어린이인 민요를 전래동요로 묶어 일반 민요와 구별한 다음, 음악외적(外的) 기능 여부에 따라 흥민요와 외적 기능으로 대별되며, 외적 기능요는 노동요·놀이요·의식요로 나누인다.

노동요란 노동(勞動; 육체적 노력을 들여 일을 함)에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예; 감내기)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노동요는 그 일의 종류에 따라 어로요, 농요, 임업노동요 및 잡역요로 나누인다.

의식요는 의식 노동요(운상소리, 회다지소리, 원양소리, 줄맴소리)와 의식 풍속요(고사소리, 지신풀이, 독축, 액막이소리 등)로 나누인다.

놀이요는 놀이의 종류에 따라 곱새치기, 살라라 등 다양하다. 곱새치기는 놀음놀이에 속하지만, 웅진섬 사람들은 주로 장례 전날 모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는 경우가 많아 본서에서는 의식요의 시작부분에서 다루었다.

백령·대청·연평면 사람들의 민요로는 어업노동요(노젓는 소리〈섬 1~5〉·그물을 당기거나 끌어올리는 소리〈섬 6~9〉·닻감는소리〈섬 10,11〉·고기 폐신기〈섬 12~14〉·배치기〈섬 15~21〉), 김매기·저리소 빨갈이·감내기·용두레소리 등 농요〈섬 22~51〉), 광의의 농요로서 물레〈섬 52~55〉·베틀〈섬 56,57〉·망질〈섬 58~60①〉, 잡역요로서 터다짐소리〈섬 61~64〉), 임업노동요로서 나무꾼소리〈섬 65〉, 그밖에 동요 류〈섬 66~80〉, 흥민요〈섬 81~140〉 및 의식요〈섬 141~165〉를 실었다.

1.3 가창자

〈표 1〉 옹진섬(백령·대청·연평면) 민요 가창자 (나요당 이소라 조사)

음원 : 素	읍면(마을)	가창자(출생년도)	악보: 어로요<섬1~21>/ 농요<22~60>/ 기타 일노래<61~65>/동요·유희요<66~80>/ 흥민요<81~140>/의식요<141~165>
87-11-13②B	대청면(대청1)	손엄전(1916. 여. 토민)	〈섬 24, 91②〉
“	“	오상덕(1923. 여. 토민)	〈섬 24, 28, 57, 91①〉
“	“	이부자(1924. 여. 장연군 해인면출생)	〈섬 24〉
87-11-13②B 87-11-23A	대청면(대청5)	최봉오(1905. 남. 토민)	〈섬 1, 2, 13, 17, 18, 43, 90, 126, 136, 141, 154〉
87-11-23A	대청면	장순덕(1917. 여. 토민)	〈섬 91③, 113〉
87-11-23B	대청면(대청1)	김윤근(1922. 남. 토민)	〈섬 43, 154〉
“	대청면(대청4)	김영옥(1926. 남. 토민)	〈섬 1, 18, 154〉
87-11-24①A	용천면, 대청면	김세하(1909. 옹진군용천면출생. 남. 대청 피난나옴)	*용천면노래 : 모심기(해용)/ 김내기, 지정, 논김(해용), 상부(네호 넝청/남의세왕/달고)
87-11-24①B 87-11-27A	백령도(진촌2)	김형두(1913. 남. 토민)	〈섬 7, 12, 25, 44, 148, 161〉
87-11-24①B	백령도(진촌1)	김만옥(1911. 여. 연화리출생. 시집옴)	〈섬 60, 72〉
87-11-24①B	“	김경신(1925. 여. 토민)	〈섬 26〉
87-11-24①B	“	백순옥(1925. 여. 토민)	〈섬 26〉
87-11-24①B	“	박춘매(1928. 여. 토민)	〈섬 26, 48, 97, 134, 140〉
87-11-24①B	“	김정덕(1919. 여. 중화동출생-구포리-진촌)	〈섬 116〉
87-11-24②A	“	백순옥(1925. 여. 토민)	〈섬 97, 109〉
“	“	김경신(1925. 여. 토민)	〈섬 56, 119〉
“	백령도(남포1)	최진성(1912장연군 백석동출생. 남. 무파동에서 피난나옴)	〈섬 32, 34, 35, 163, 164〉
“	백령도(남포2)	김이선(1920. 평북 안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 입도)	〈섬 38, 42, 50, 55, 103, 131, 150, 160, 162〉

음원 : 素	읍면(마을)	가장자(출생년도)	악보: 어로요<섬1~21>/ 농요<22~60>/ 기타 일노래<61~65>/동요·유희요<66~80>/ 흥민요<81~140>/의식요<141~165>
87-11-24②A	백령도(장촌, 북포)	최순복(1919.여.장촌 출생. 시집도 장촌, 북포리 거주)	〈섬 53, 71, 78, 122〉
87-11-25A	백령도(남포2)	변정혁(1933. 남. 토민)	〈섬 8, 42, 103, 120, 150, 160, 162〉
87-11-25B	백령도(가을1)	정용현(1912. 남. 토민)	〈섬 4, 6, 10, 19, 61, 67, 95, 101, 130, 142, 149, 159〉
“	“	장면주(1919. 남. 토민)	〈섬 4, 41, 52, 61, 114, 118, 142〉
“	백령도(진촌3)	김병일(1918. 남. 진남포출생. 용강군 온천 거쳐 백령도 입도)	〈섬 39, 94, 112, 132〉
87-11-25B 87-11-26A	백령도(진촌3)	이순덕(1928. 여. 북한 옹진군 순이도출생. 3세에 백령도입도)	〈섬 27, 30, 59, 123, 132, 135, 137, 138, 153〉
87-11-26B	백령도(진촌1)	최성화(1916. 여. 토민)	〈섬 29, 76, 77, 96, 104〉
87-11-25A	송화군 초도, 백령도	안명삼(1922초도출생. 여. 진남포 거쳐 입도)	〈섬 40, 70, 85, 93, 123, 135, 137, 153〉
87-11-26B	백령도(연화1)	김태형(1920. 연화출생. 십여세에 장연군이주. 연화1로 피난)	〈섬 36, 49, 63, 68, 86, 92, 104, 158〉
“	“	김태옥(1922. 남. 토민)	〈섬 5, 21, 31, 46, 63, 86, 92, 104, 121, 158〉
“	“	김원걸(남. 연화1리 이정)	〈섬 158〉
87-11-27A	백령도(진촌2)	김형두(1913. 남. 토민)	〈섬 7, 12, 47, 54, 58, 64, 66, 84, 102, 110, 115, 126, 127, 128, 133〉
87-11-27B	백령도(관청)	이근수(1923.서면 장포출생. 남. 피난옴)	〈섬 11, 33, 45, 62, 79, 80, 144, 143, 165〉
87-11-27AB	“	김칠보(1928. 몽금포출생. 남. 피난옴)	〈섬 11, 20, 37, 51, 65, 87, 106, 143, 152〉
88-7-10AB	연평도(수암)	이화선(1918. 여. 해주부근출생. 9세에입도)	〈섬 73, 74①②, 82, 88, 98, 105, 111〉
“	연평도(남부)	김윤옥(1911. 여. 토민)	〈섬 88〉
“	연평도(중부)	박봉렬(1936. 여. 토민)	〈섬 88〉
“	“	서영애(1928. 여. 토민)	〈섬 82, 88, 139〉
“	“(동부,서부)	서용옥(1938. 동부출생. 여, 서부로 시집)	〈섬 74③, 88〉

음원 : 素	읍면(마을)	가창자(출생년도)	악보: 어로요<섬1~21>/ 농요<22~60>/ 기타 일노래<61~65>/동요·유희요<66~80>/ 흥민요<81~140>/의식요<141~165>
88-7-10②A	"(동부,남부)	이길자(1940. 여. 동부출생. 남로 시집)	<섬 82, 88>
"	"(중부,서부)	정관석(1926. 남. 중부출생. 서부 거주)	<섬 23, 81, 107, 124, 155> (일본노래 기미상)
88-7-10②B 88-7-12A	연평도(서부)	조희준(1928. 남. 토민)	<섬 3, 9, 14, 15, 16, 83, 129>
88-7-12A	"(서부)	권장성(1931. 동강면 금산출생. 남. 피난 옴)	<섬 3, 9, 14, 15, 16, 83, 151>
"	"(중부)	김진순(1915. 남. 토민)	<섬 22, 69, 75, 89, 100, 108, 156>
88-7-12B	연평도	백만옥(1924. 남.)	<섬 157>
88-7-12②A	"(서부)	안창길(1924. 남. 토민)	<섬 15, 83, 99>
"	옹진군 봉구면, 연평(서부)	황명익(1931. 남. 봉구출생. 연평 피난옴)	<섬 3, 9, 14, 15, 16, 83, 117, 125>
88-7-10②AB 88-7-12②A	해주, 연평도	고상옥(해주출생. 26세에 연평 시집옴)	<섬 145, 146, 147>



사진1. 연평도 조희준



사진2. 연평도 안창길



사진3. 연평도 황명익



사진4. 연평도 김진순



사진5. 연평도 배치기 녹음장면

징 : 권장성



사진6. 윗줄 좌측부터 : 송문식 군청계장

최선호 면장(중간), 최봉관 총무계장(안경)

아랫줄 좌측부터 : 조희준(마이크),

황명익, 권장성, 안창길



사진7. 연평도 서부리 거주 정관석



사진8. 연평도 여성 가창자

앞줄 왼쪽부터 : 김윤복(안경), 서영애(북),

서용옥, 박봉렬, 이화선, 이길자(꽹)



사진9. 연평도 녹음장면 (1988.7.10)



사진10. 연평도 녹음장면



사진11. 연평도 녹음협조자들 및 녹음자(1988.7)



사진12. 연평도 가창자 고상옥 (당시 81세)



사진13. 대청면 가창자들



사진14. 대청면 곱새치기 가창자들



사진15. 대청면 가창자들



사진16. 백령면 연화1리
김태형(68세때, 안경), 김태욱(66세때)



사진17. 백령면 가을1리에서
정응현(76세때, 시계), 장면주(69세때)



사진18. 백령면 가창자
김병일(70세때)



사진19. 백령면 가창자들
이근수(앞줄 오른쪽, 앓은키 낮은 분) 등



사진20. 백령도 곱새치기 장면
좌에서 두번째가 이근수.
그 옆 중간이 김칠보



사진21. 백령면 진촌리에서 최성화



사진22. 백령면 가창자
안명삼(66세때)



사진23. 백령면 가창자
이순덕(60세때)

2. 웅진섬 민요의 특색

(1) 어로요가 풍부하다. 노젓는소리, 그물 당기거나 뽑는 소리, 닻감는소리, 까나리 올릴 때의 술비소리, 고기 폐신는 소리 등과 그밖에 배치기소리(에밀량, 봉죽타령)를 실었다. 웅진 섬의 어로요에서는 까나리와 조기가 주된 어획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깃배를 노저을 때 노를 2초남짓의 간격(8분의6박)으로 팔을 앞으로 밀고, 또 다음 마디에서 뒤로 당기면서 노를 규칙적으로 젓고 있음을 <섬 3>을 통해 볼 수 있다.

반복구의 어휘로는 “어야 디여”를 애용한다.

고기 폐담는 가래 류 소리(“어 낭청 가래야” 등)는 동해안과 남해안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일부지역(당진, 서천군 앞바다, 부안군 위도 등)에도 분포하지만, 웅진섬의 고기 폐신는소리에서는 ‘가래’류의 받음구가 없었다.

배치기소리(에밀량, 봉죽타령)의 문화중심지에 속하는 연평도의 예를 들면, 12/8박의 의미구 2마디와 입말 3마디 뒤에 기악 4마디가 기본 패턴이다. 기악 4마디 때에 입말을 넣기도 한다. 기악 4마디 때에 꽁쇠 잽이는 정 1타의 8분의12박 1마디중 전반은 3분박으로 후반은 2분박으로 침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2) 백령도와 연평면의 논비율은 정선군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 피난자로부터 수집될 뿐, 웅진 섬 자체의 모심는소리는 불리우지않은 것 같다. 김이선(1920년 평북 안주출생. 여. 15세에 백령 입도)은 모심을 때 심심하면 도라지 타령<섬 131>을 불러주었다고 하는 정도였다.

육지의 논매는소리 가창자는 거의가 남성임에 비해, 본서의 웅진 섬에서는 진도나 덕적도에서처럼 여성들이 논김매기에도 참여하여 소리하였다.

(논)김매는 소리로는 애용소리와 자진 난봉가, 어화나 등등 및 청춘가 곡이 불렸다. 모두 유입된 소리들이다. (논)김멜 때, ‘논다나 매구 밟다나 매구 칠월이 되면 엄만네 집엘 가자’는 류의 가사가 애용된다.

밭갈이 때에 저리소를 부리는 바, 강원도에서처럼 오른쪽 소는 마라소, 왼쪽 소는 ‘애나’(‘아나’)로 부른다. 소부림말은 호리소 지대와 공통된다. 즉, 오른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마라로!, 왼쪽은 ‘애나(아나)로!’ 앞으로는 ‘이라!’, 모서리에서 돌릴 때는 ‘도자-’, 멈추게 하거나 조심하라고 할때는 ‘워 워!’ 한다. 저리소 밭갈이소리의 가사는 주로 작업지시적인 내용들이다.

소달구지를 타고 오며 불렀던 감내기 소리가 백령도에서 수집되었다. 감내기는 황해도가 본고장이다. 감내기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저녁밥상 차릴 준비를 하게된다.

(3) 백령도에서는 삼베를 많이 짜서 육지로 내보냈다하여 물레노래가 본서에서는 백령도에서만

녹음되었다. 평안도 물레타령은 3소박4박의 두 번째 마디 제4박을 “어, 어”하면서 우는 듯 흐느낌을 줌이 특색인 바, 백령도 토민인 김형두 창<섬 54>에도 보인다. 베틀노래는 일반형이나, “서울 뒷산 삼각산에, 구름이나 할머니 전화왔네”와 같은 새로운 구절도 보인다.

망질소리는 밀 등의 곡물을 맷돌로 갈아먹을 때 불렸던 소리로 “둘러라 둘러라 어기야 망손을 둘러라” 류의 가사가 장연군, 은율군 등 서부 황해도 지역에서도 많이 불리운다.

(3) 백령도에서는 집터다짐 소리가 수집된다. 지정 류와 지점류가 나왔다. 한반도의 집터다지기 소리는 받음구의 핵심어에 따라 ①차 류 ②상사 류 ③지경 류 ④지점 류 ⑤망깨 류 ⑥지정 류 ⑦ 달고 류 및 기타(지침, 지뎀 등등)로 나누인다. 지정 류는 황해도에서 선호한다. 지점 류는 충북지방이 문화중심이지만, 서산이나 홍성 등지에도 지점 류가 보인다.

(4) 棹네(자장가)는 ‘잡네 잡네(棹네)’로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 얘기는 잘 자는데, 남의 아기는 못 잔다는 가사나, ‘금을 준다해도 못 살 우리 아기’라고 추어주는 가사 등 이 즐겨 쓰인다. 클레멘타인 곡풍으로 가장한 자장가도 있었다. 클레멘타인 곡의 변안 가사는 ‘넓고넓은 바닷가에’로 시작하여 섬 지역에서 친밀감을 느끼는지, 동요 풍의 심청 가사를 엿어 부른 예가 백령도에 보인다(주 18참조). 육지의 애기어루소리로는 달강 류와 불무 류가 보편적인데, 연평도에서 달강 류의 혼적<섬 73①>과 방애 류<섬 73②>가 나왔다.

이거리 류의 다리에는 동요를 연평도의 부녀들로부터 녹음하였다. 한알대 두알대 류는 경기도에 많고 충청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지역에도 불렸지만 경상도나 전라도지 방엔 희귀한데 비해, 이거리 저거리 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분히 전국적이다.

“무슨 배/ 자라 배” 식으로 문답하는 말잇기 동요와 뒷말의 해당 단어를 찾아 이어 나가는 말잇기 동요를 실었다.

백령도에서 타박네와 신민요인 건너집 일념이 및 청동 쟁등과 끈대를 수집하였다. 후2자는 옛 용진군 서면에서 피난 나온 가창자로부터였다. 타박네는 희망가(이 풍진 세상)가락에 얹혔다.

(5) 새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북어나몽둥이로 때리는 풍속은 통민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살라라와 같은 신랑다루기 노래를 수집한 것은 연평도에서일 뿐이다. <살라라>는 자진난봉가의 본문 선율을 활용한다.

자진난봉가는 황해도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로서, 김멜 때도 활용하는 등, 애용된다.

니나나 타령은 본문 4마디에 후렴 4마디씩이지만 본문이 8마디로 길어지기도 한다. 북장단은 북편과 북위가 모두 길고 짧은 3분박(♩♪)으로 계속된다. 매 마디는 3소박8박(24/8박)씩이다. 매마디 8박중 제4박 이하의 선율이 장인(長引)되는 특징이 있다.

후렴구를 예로 들면, “니나나 나~, (에나) 나 나 - , 아니나 놀고 - 뭣할소냐”이다.

(6)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꽉히는 수심가는 민요에 흔히 잇대어지는 후렴구가 없다. 이른바 수심가토리는 래선법이며 기음인 레의 5도윗음(v5)인 라를 굵게 요성하고 래에서 종지(t1)하는 바, 〈섬 91③〉도 이에 속한다.

이창배는 글자가 많은 적든 끝으로 두자를 남기고 소리를 짓는데, 한번 응물어 콧소리를 내는 것이 수심가의 독특한 가락이라 말한다.

(7) 대청도 토민인 최봉오(1905년생)가 장구를 잘 쳤던 백령도 출신 노순길 할머니께 배웠다는 놀량은 서도놀량에 속한다. 경기놀량에선 (--)네로구나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바, 이를 ABCDEFGHK로 표시한다면 서도놀량은 경기놀량의 (산천초목)+ABCDE+(녹양변은 길)+F+(춘수는 낙락)+GH+(종일 가도 안성은 청룡)+K의 구조에서 녹양변은길 이하만 가지고 변개하였다. 경기놀량은 소고를 들고 부르는 반면, 서도놀량은 장고를 매고 한 사람이 맥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같이 제창하였다.

오봉산타령은 선율 6행중 마지막 2행의 가사는 후렴구 격이며, 제1,2행의 선율은 제3,4행, 제5,6행과 서로 거의 비슷하다. 후렴 해당 가사를 보면, “애해 애해 애해에 야,/ 영산 홍록에 봄바 람” 격이며, 선율 매행은 12/8박(3소박4박) 이다.

(8) 몽금포타령(장사꽃 마리)은 청춘가처럼 1음보 3자구성의 2음보가 선율 12/8박 1행을 이루되 “북소리 나더 니 - -”에서처럼 제2음보 끝자인 ‘니’를 굽곡지으며 장인하여 반마디(반행)를 이룬다. 음역이 1옥타브 이상이라 넓은 편이다. 보통은 내재4박 내지 12/8박(3소박4박) 4행의 선율이나, 백령도에서 녹음한 몽금포타령 중엔 “애해에 애, 애해 어/ 나흔자 살라 나,” “아이구 데구요/ 성화가 났구나,”등의 후렴구 류가 붙어 6행의 선율을 이루곤 한다.

백령도에서, 몽금포타령 곡풍으로 가창한 지개목발 나무꾼소리를 수집하였다. 이는 몽금포타령이 애창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9) 청춘가를 백령도에서는 김멜 때의 소리로, 연평도에서는 모심을 때 가창한 예가 있다. 박춘재 취입 〈이팔청춘가〉의 홀과수 가사가 1930년대 이영산홍의 음반에서는 “--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로 바뀐다. 북한에서는 2000년대에 와서, 〈맑은 아침의 나라〉로 곡목을 바꾸고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미한 새 가사로 부르고 있다. 정웅현은 〈이팔 청춘가〉라 이름하여 가창하였지만, 처음 시작부분이 ‘이팔은 청춘에’일 뿐이고 ‘소년몸 되고’로 이어졌다. 〈섬 106②〉의 가사엔 “이팔은 청춘에 혜애에,/ 홀과수가 되지마안,”이 나오지만 이어서 뒤에 나온 〈청춘가〉 곡의 특징인 제3행 끝박에 붙는 ‘좋다’류가 들어있다. 백순옥 창의 청춘가(섬 109)에는 개성적인 노랫말들이 풍부하다.

(10) 국문뒷풀이는 한글의 자음에다 ㅏ ㅑ ㅓ ㅕ ㅗ ㅕ ㅜ ㅕ ㅠ의 모음을 붙여 첫글자와 연결되는 말로 풀어가는 노래이다. 예를 들면, “나 ㅑ 너녀 하니/ 나귀 등에 솔질을 하야/ 조선 팔도를 유람 할까”와 같다.

담방구는 담배를 소재로 한 통민요이다. 담배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엔 광해군 때인 1618년 무렵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담방구타령의 대부분이 ‘동래나 울산의 담방구’로 되어있음은 담배농사의 시초가 동부 경남지역에서 이루워졌음을 알려준다.

偿금偿급 곡은 경상도가 문화중심인 서사민요로 전파범위가 넓은 편이다. 오빠한테 정절을 의심받은 누이동생이 죽고싶은 심정을 읊은 것으로, 〈섬 134〉는 클레멘타인 선율에 얹고 있으며 백령도에서 수집된 바, 극히 작은 편린만 보여준다.

방구타령은 일반적으로 며느리의 시각에서 보는 시집 구성원들의 특징을 방구의 종류로 표현하지만, 연평도 토민인 정관석 창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방구만 언급하고는 일본, 중공군, 미군, 한국군하면서 다분히 정치적 관심사로 엮어 민주주의가 제일 좋다고 하고는 열씨구나 – 하며 창부타령조로 매듭짓는다.

각설이(품바타령)는 일자부터 장자(십자)까지 차례로 들먹이며 풀어나간다 해서 불은 명칭이다. 사이사이에 품! 품!하고 입술을 떠는 추임새를 잘 넣기 때문에 품바타령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장 저 장 다니며 시골장의 특징을 재담으로 엮어나갈 때는 장타령으로도 불린다. 우리 민요엔 3분박 선율이 많지만, 각설이나 목도소리 같은 경우는 2분박으로 채보된다.

아리랑 류로는 일반 아리랑과 밀양아리랑 곡풍을 녹음하였다. 아리랑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강원도 어리리와 자진아라리가 가장 오랜 유형이고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전파권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19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 충주의 〈아라성〉류와 괴산의 〈이야 형 아리랑〉이다. 19세기 말에 궁중에서 아리랑 경창대회를 가짐을 기회로 섬진강 유역 민중의 바탕선율인 산아지 곡에서 메김소리는 그대로 따오고 후렴만 바꾼 것이 〈진도 아리랑〉이다. 〈밀양 아리랑〉도 진도아리랑이 나올 무렵의 산물로 본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아리랑은 1926년에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주제가인 〈나운규 아리랑〉 또는 〈영화 아리랑〉으로 새로 다듬어진 아리랑 유형이다.

도라지타령에 대해 이창배는 예전에 황해도 은율에서 성창하던 〈도라지 타령〉이 있으며 아주 느리게 부른다 하고 북한에서 2000년도에 벌간한 [조선민요 1000곡집]에는 황해남도 은율의 〈긴도라지〉 악보가 실려있다. 이 악보를 보면, 1930년대부터 소리꾼들의 유성기음반 취입과 함께 경기지역의 신민요로 부르고 있는 〈도라지 타령〉의 가사와 선율 선이 닮았다. 〈경기 산타령〉에서 앞산타령, 뒷산타령 뒤에 잣은 산타령으로 도라지타령을 부르고 있으나 황해도 〈긴도라지〉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민요 도라지타령과는 구별된다.

계재한 군밤타령은 유성기 음반의 보급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지방의 신민요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대청도 토민인 최봉오는 이를 연평이나 옹진 사람들이 대청도에 와서 그물질하면서 부르는 것을 16 세경에 듣고 배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기제 외에 전혀 다른 〈강원도 군밤타령〉이 있으나 전파력이 극히 약하다.

그밖에 벳노래, 봄배추 등 창부타령, 노랫가락, 신고산타령, 노들강변, 유행가 곡풍의 연자방아, 신민요 곡풍의 ‘물 깊어서’와 왕서방을 실었다. 신민요 곡풍이 이따금 수집됨은, 이 지역이 개항기 때부터 기독교 전파의 진원지 였음을 상기하게 한다.

(11) 곱새치기는 상주를 위로할 겸, 장례 전날에 친지들과 동네사람들이 상가에 모여 밤을 새우기 위해 놀았던 일종의 투전놀이 불립이다. 이는 김포시나 강화군, 괴산군, 정선군의 곰새치기(곰사치기) 및 봉화군 석포면의 싸시래기(싸시랭이)나 태백시의 사스랭이와도 상통한다. 진도의 다시래기와는 장례전날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이외엔 서로 별개이다. 다시래기는 연희놀이 임에 비해, 곰새치기는 일종의 투전놀이일 따름이다.

(12) 의식풍속요로는 임경업장군 사당으로 가서 연평바다에 들른 조기들, 양주만 남겨놓고 만여동 억만동을 잡아실어 도장원하게 해달라고 말하듯이 빌던 비순과 칠성굿에서 떡 나누어주면서 복받으라고 부르는 송구타령(“에 - 에 헤리 송 구후야”) 등을 실었다.

(13) 의식노동요로는 상여를 옮겨멜 때나 하직인사할 때의 어룸소리와, 운상소리, 봉분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및 헛상여소리인 너시랑〈섬 89〉을 실었다.

연평도에서는 장례 전날 밤에 모여 너시랑을 부르기도 하고, 시신을 묻고 마을로 돌아오면서도 이를 불렀다. 헛상여소리 예(경북 예천군과 의성군 일부지역, 경남 하동 군과 밀양시 일부지역, 전남의 광양읍이나 벌교읍 일부지역 및 제주도)도 드물지만, 〈너시랑〉처럼 별도의 노래가 불리우는 예는 더욱 드물다. 그 받음구 예는 “에-헤/야아앙/ 에-헤에/ 에헤야,// 너시라앙/거리구/왜 왔/ 댔나”이다.

(14) 산염불은 황해도 민중의 대표적인 민요 중의 하나로 흥민요로도 부르지만, 운상(運喪)하면서도 불렀고, 황해도 봉산 출신 김유경 처럼 추수하면서도 불렀다. 강화군이나 김포시에서도 산을 오르며 운상할 때의 소리로 수집이 된다. 후렴구는 “(나무)아 미 타, (염)불이로다” 유형이다.

〈산염불〉이라는 곡명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후렴에 나오는 ‘염불’이라는 어휘와 잘 나오는 가사 첫머리(“산에 올라 옥을 캐니 - - -”)에 나오는 첫 글자와의 결합일 수 있다.

(15) 백령도 가을1리에서는 “나메 타메”를 3회 가창하면서 상여를 옮겨맸다. 대청도에서는 긴 아애이소리(아 애-이, 으 어어 엉, 오으아애)를 복창하면서 하직을 고하였다.

남에세왕 뿐은 동구 안 운상소리이다. 동구 밖 운상소리는 두마디 넘차류에 속하는 ‘네거리 넝첨’ 형이며, 이 형은 백령도나 대청도의 특색으로 보인다.

흙가래질소리는 받음구에 ‘가래’류의 어휘가 들어감이 일반형인데, 본서 섬지역의 일반적인

받음구는 “에 일성 가래 요”이다. 백령도 토민의 경우를 보면, (메)와 (받)이 각각 3소박4박(12/8박) 1마디씩이다.

달구소리로는 “에헤 에헤이 달구 요호”처럼 달구 형이 다수이다. (메)와 (받)이 각각 3소박4박(12/8박) 1마디씩임 일반이다.

(16) 육지의 부인네들은 대개 다른 지역에서 시집을 와서 사는 이들이 많아 그 지역 토민의 음조직을 분석할 때는 제외하곤 하는데, 본서의 옹진섬에서는 그 섬의 토민들인 부녀들도 분석 대상이 되곤 함도 지역적 특색이다.

토민의 음조직을 보기위해 몇곡을 살펴본다.

연평도의 지역적 특색이 농후한 〈너시랑〉의 음조직은 솔선법(S2.v4.t1)이다.

〈니나나 타령〉은 미선법(M)이 절반(제1,6,7,8절)이고 라선법(L:제2,3절)과 솔선법(S:제4,5절)이 각각 2회씩이다. 모두 기음의 4도윗음을 요성(v4)하며 기음종지(t1)의 경향이다.

〈배치기〉에서 〈섬 17〉(대청도 토민 최봉오)의 출현음은 (도)미솔라도`레`미`이고 종지음은 아랫미이며 중대음 미의 4도윗음을 라에서 주로 요성한다. 〈섬 18〉(대청도 토민 최봉오와 김영옥)의 출현음은 (미)라도레미`솔`이며, 중대음인 라에서 종지한다. 라도미`에 약한 요성이 있다.

〈달구소리〉는 계재한 7곡중 미선법계열(M)이 그중 많아 4곡이며, 도선법(D)과 솔선법(S)은 각각 2곡이다. 기음 또는 중간음 종지(t1,4)의 경향이다.

채보한 〈청춘가〉는 솔선법(S1)이고 기음인 솔에서 종지(t1)한다.

육지 황해도가 문화중심인 〈감내기〉에서 백령도 진촌2리 토민 김형두(1913년생.남) 창〈섬 47〉은 레선법(R1.v4.t1)이다.

〈자진난봉가〉에서 〈섬 83,84,24,25,26〉는 레(R)가 기음이 되고 있다. 이들 가창자들은 모두 그 섬의 토민들이다. 〈섬 26〉을 제외하고는 그 5도윗음을 요성하는 이른바, 수십가토리에 속한다. 〈섬 83,84,24,25〉에서는 굵거나 연이어 끊는 듯한 요성이다. 〈섬 83〉은 기음종지(t1)를 함에 비해, 〈섬 84,24,25,26〉은 5도윗음 종지(t5)를 한다.

〈산염불〉은 백령도 토민인 김형두 창〈섬 148〉과 연평도로 피난 나온 권장성 창〈섬 151〉에 이른바 수십가토리가 보인다. 〈148〉은 R선법{레(미)라도레`미`}에 5도윗음에서 굵은요성(v5)을 하고 5도윗음에서 종지(t5)한다. 〈151〉은 R(레라도레미`),v1,5(끊는기 법).t5 이다.

〈수십가〉에서 이른바 수십가토리는 대청도 토민인 장순덕(1917년생.여) 창〈섬 91③〉에 보인다 (R. v5,t1).

(17) 니나나타령, 희귀요인 너시랑소리같은 헛상여소리 및 살라라가 연평도에서 나왔다. 지역성이 강하고 희귀한 풍속요인 만큼, 배치기소리 등 어료요, 상부소리와 함께 후대에까지 잘 전승되기 바란다.

3. 어로요 <섬 1~21>

어로요로는 노젓는 소리<섬 1~5>·그물 당기거나 뽑는 소리<섬 6~9>·닻감는소리<섬 10,11>·까나리 올릴 때의 술비소리 <섬 12>·고기 퍼신는 소리<섬 13,14> 및 배치기소리<섬 15~21>를 실었다.

3.1 노젓는 소리 <섬 1~5>

<섬 1,2>는 대청도의 토민이, <섬 3>은 연평도의 토민과 그밖에 북한지역 옹진군의 봉구면과 동강면 피난자, <섬 4,5>는 백령도 토민이 불러준 노젓는소리이다.

바람이 강하고 조수가 많이 드는 벤댓채 날(2월 13일)³⁾이나 소 명에가 굽어진 모양처럼 파도가 높게 인다는 ‘명에 놀 날’(7월 20일)⁴⁾ 등을 피하여 출어를 하는데, 발동기 부착이 없는 예전의 배들은 모두 노를 젓도록 되어 있어 노젓는 소리는 어로요 가운데서도 가장 풍부한 곡목에 속한다.

<섬 2>는 대청5리의 최봉오 독창이다. <섬 1>은 최봉오와 김영옥 창인 바, “우리 동서 사귀던 짹이다” 등의 의미구를 넣는 점으로 보아, 최봉오가 리더 격이다. 김영옥은 “에 디여(차)” “에 어” “에 에야” “아차 디여라 하아 디야” “에 여라” “엥 해” 등을 최봉오의 소리 사이에 내기도 하고, 맞물리며 겹쳐 소리내기도 한다.

최봉오는 닻올리는소리도 노젓는소리처럼 부른다고하였는데, 백령도 연화1리 김태욱 창<섬 5>을 보면, ‘닻감아라’와 ‘노를 젓자’가 공존한다. <섬 5>에서는 반복어로서 “어야 디야”를 많이 쓰며 “어야 차차”도 보인다.

<섬 4>는 백령도 가을1리에서 까나리를 잡기위한 배를 노저을 때의 소리이다. 장면주는 “물 때 넘어간다” 등의 의미구를 넣고 있어 메김소리 격이다. 정응현의 어휘엔 “야하”등도 있지만 <섬 5>처럼 “어야 디여”를 애용한다.

까나리는 몸길이가 15~20cm되며, 몸이 가늘고 길다. 영동지역의 양미리에 해당한다. 연안의 물깊이 30m가량되는 곳에 그물을 쳐놓고 그곳까지 배를 노저아가거나 오며 소리한다. 먼 바다가 아니고 연안이라 그런지 정응현은 장면주의 소리가 끝나는 대로 짧게 한마디씩 넣고 있다.

연평도 서부리에서 녹음한 <섬 3>의 메김구에 “조기가 눈앞에 걸렸구나”가 나오는 점으로 보아, 조깃배를 노저을 때로 상정되어 있다. 메김소리꾼은 “어와자”계통을, 받음소리꾼들은 “어와디야”

3) 문광영, 『서해5도서 민속과 그 교육적 활용방안』 [기전문화연구] 제25, 26집,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8. 485쪽.

4) 『옹진군지(상)』 옹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527쪽

를 반복구로 애용한다. 3인의 가창자들이 겹쳐 소리내기도하지만, 노를 2초남짓의 간격(8분의6박)으로 팔을 앞으로 밀고, 또 다음 마디에서 뒤로 당기면서 노를 규칙적으로 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 그물 당기거나 뽑는 소리 〈섬 6~9〉

연평도의 그물끌어올리는 소리〈섬 9〉를 제외하면, 〈섬 6,7,8〉 모두 백령도 어부들이 그물을 당기거나 뽑는 소리들이다.⁵⁾ 〈섬 8〉의 ‘그물 뽑는 소리’라는 작업이 북제주군 추자도의 〈돈대질소리〉⁶⁾에서처럼 가래질 않고 그물 채로 잡은 고기를 들어올리는 작업인지는 명확하지않다.

〈섬 9〉를 보면, 별다른 의미구가 없이 메김소리(메)와 받음소리(받)가 교차하되, (받)은 8분의6박 1마디는 쉬고 두 번째 마디에서 소리하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반면에, (메)는 1마디만 부르기도 하지만, 유장히 길게 소리하곤 한다. 받음구는 “어야 디여차” “이야라디” “어기야 차차” 등이다.

〈섬 6,8〉엔 의미구가 있다. 〈섬 8〉에선 ‘마루 배’를 타고 그물 쳐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뽑는 작업을 상정하여 소리하고 있다. 마루 배는 목선(木船)을 가리키는 듯 하다. 철선과 FRP선박의 등장으로 1980년대 중반에⁷⁾ 목선이 사라졌다고 한다.

〈섬 6〉의 ‘배다리’는 물 아래 사공을, ‘무다리’는 물 위 사공을 가리킨다.

3.3 닻 감는 소리 〈섬 10,11〉

〈섬 10,11〉은 백령도에서 정박하기 위해 내렸던 닻을 항해할려고 닻줄을 다려 감아올리며 불렀던 소리이다. 작업지시적인 내용들이다. 반복구로는 ‘어야 디야’가 애용된다.

3.4 까나리 올릴 때의 술비소리 〈섬 12〉

〈섬 12〉는 백령도 진촌2리 토민인 김형두(1913년생) 창이다. 까나리 올릴 때의 소리라 하였다. 혼자 가창하였는데, 여럿이 부를 때는 “어 넝청 술비로다”가 받음구로 쓰일 것 같다. 김형두는 그물을 당기는 소리〈섬 7〉도 가창하였다. 까나리의 서식처가 연안의 모래바닥임을 감안하면, 그물코에 걸려있거나 그물 안에 잡혀있는 까나리를 배 안으로 퍼 신거나 그물 입을 들어올려 끊겨놓을 것이 예상된다.

거문도에서는 칡넝쿨로 어로작업에 쓸 뱃줄을 꾸면서 술비소리를, 고기를 펴실을 때는 가래 류를

5) 〈옹진 6〉은 대후리 할 때에 긴 그물망을 꼬는 작업을 상정하여 부른 소리로 해석 해 본다.

6) 이소라, 『한국의 농요』제4집, 현암사, 1990. 552쪽

7) 『옹진군지(상)』 앞의책. 541쪽.

부른다. 소흑산도에서처럼 술배 류(“에 야하 술배야”)로 고기 퍼싣는 예는 드물으나, 서천군에서의 예⁸⁾도 있다. 대청도 토민인 최봉오(1905년생)는 대후리할 때 “어야 술비야”를 부른다고 하였다. <섬 14>의 받음소리꾼 중에서는 “어야 술비야”를 섞기도 하였다.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술배 류를 농요로 응용하는 예들이 있다. 울산 북구 농소3동의 술매 형, 정자동의 술이형⁹⁾, 부산 수영농청놀이의 술기형, 홍성이나 보령의 술미소리¹⁰⁾, 태안군의 술비소리가 논낼 때에 불리운다.

부안군의 위도띄벳놀이에서는 무가(巫歌)로 술배 류(어와 술배야, 에이야 술배야 술배로다)를 부른다.

3.5 고기 퍼싣는 소리 <섬 13,14>

<섬 13>은 대청면의 최봉오 창인 바, 까니리를 퍼싣는 소리라고 가창하였다. “어이여 예 - 이야, 어야라” 같은 입말이 계속 된다.

<섬 14>는 연평도에서 양력 5,6월에 조기를 잡아 그물에 조기가 가득 차 있을 때, 가래로 배에 끌어올리면서 부른다고 하였다. 가래질소리인데도 ‘가래’라는 어휘가 받음구에 보이지 않는다.

고기 퍼담는 가래류 소리(“어 낭청 가래야” 등)는 동해안과 남해안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일부지역(당진, 서천군 앞바다, 부안군 위도 등)에도 분포한다.

3.6 배치기(에밀량) <섬 15~21>

<섬 15,16>은 연평도에서, <섬 17,18,21>은 대청도에서, <섬 19,20>은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배치기(에밀량, 에밀령, 봉죽타령)¹¹⁾소리는 만선(滿船) 풍어노래이다. 귀향길의 고깃배가 만선의 표시로 봉기(奉旗)를 꽂고, 만선의 기쁨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나가는 상고선(商賈船)으로 하여금 거래할 물량이 있음을 알게 할 겸, 배 위에서 사물을 올리며 홍겹게 노래한다. 동네 어귀에 오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가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

배치기 노래는 서해안 중에서도 옹진군 연안과 경기만 방면이 문화 중심지다. 신나는 노래인 고로 목포나 진도군의 조도, 소흑산도 같은 전남지역에서도 아형(亞型)을 수집한 바 있다.

8) 김순제, 『한국의 뱃노래』 호악사, 1982. 160쪽.

9) 이소라, 『울산 민요집』 도미화국악예술원, 2018. 19쪽.

10) 이소라, 『홍성의 민요』 홍성군, 결성농요보존회 2013.

이소라, 『보령의 민요』 대천문화원, 2005

11) 김순제, 『한국의 뱃노래』 앞의책 197, 198쪽에선 배치기란 비석치기 화토치기에서의 놀이·내기의 뜻으로 ‘뱃놀이’라 풀이하고, 잡은 고기를 이물에만 살기에 이물에 담긴 고기 양(量) 즉, 이물의 양에서 이물양·에물양이 유래하며, 눈금을 새긴 대(봉죽奉竹)나 막대기를 이물 복판에 찔러 어획고를 가늠하는데서 ‘봉죽타령’이라 이름하는 것으로 본다.

〈섬 15,16〉은 연평도 서부리 거주민들이 가창하였다. 처음엔 악기를 동원하여 〈사진 5〉 〈섬 16〉을 가창하였고 이어서 무반주로 〈섬 15〉를 가창하였다.

〈섬 16〉은 12/8박의 의미구 2마디와 입말 3마디 뒤에 기악 4마디가 기본 패턴이다. 기악 4마디 때에 입말을 넣기도 한다. 기악 4마디 때에 꽹과리 쟁이는 8분의 12박 1마디중 전반은 3분박으로 후반은 2분박으로 침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섬 16〉의 제6행 참조)

1980년도 경기도 민속경연에 출품했던 〈연평도 풍어제〉에서의 의미구엔 다음의 가사도 있다.

- 연평바다에 널린 조기 / 한쌍만 남기고 다 잡아 실어라
- 배집에 아줌마 인심이 좋와 / 막내딸 키워서 화장 아이 주누나
- 배집에 아줌마 거동 보소 / 술동이 이구서 춤만 춘다네

〈섬 15〉에서 토민인 조희준 창의 의미구 선율을 보면, 구성음은 레미솔라레` 이고 요성음은 기음의 4도윗음인 솔 이다.

〈섬 17〉의 출현음은 (도)미솔라도`레`미` 이고 종지음은 아랫 미이며 중대음 미의 4도윗음인 라에서 주로 요성한다.

〈섬 18〉의 출현음은 (미)라도레미`솔`이며, 중대음인 라에서 종지한다. 라도미`에 약한 요성이 있다.

〈섬 19〉의 의미구 선율을 보면, 출현음이 (솔라)도래(미)이며 빈다음은 도레 이다.



사진24. 대연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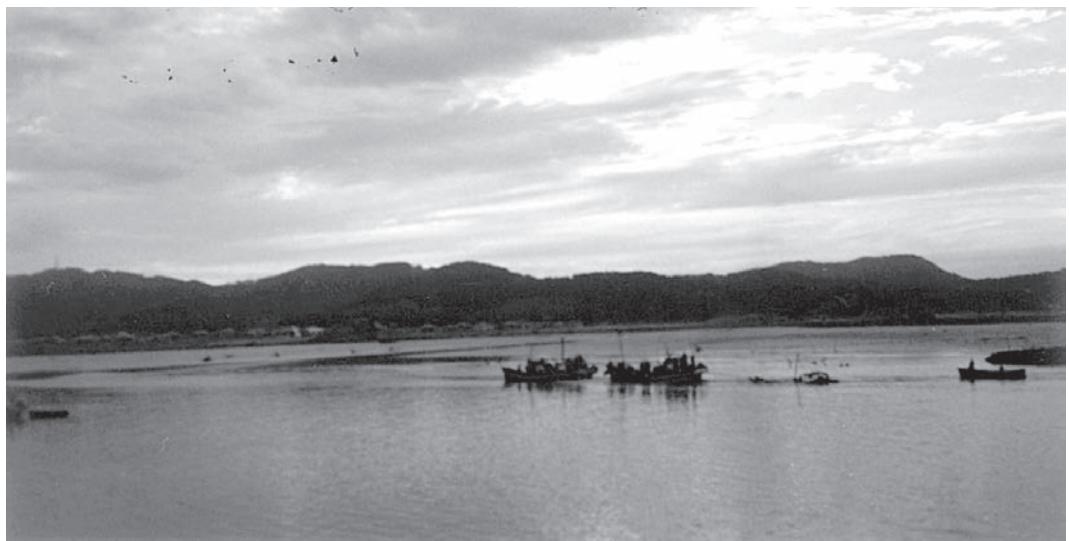


사진25. 배를 끌어 오는 장면(연평도)



사진26. 소연평도



사진27. 소연평도

4. 농요 <섬 22~60>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98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백령도는 26%가 농경지이고 그중에서 논이 8.9%를 차지한다. 대청도는 임야가 86.5%되고 논비율이 1.5%된다. 연평면은 소연평도를 포함한 전체 임야가 80%이고 논은 6.1% 된다. 강원도 정선군의 1988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북면은 임야 92.3%에 논비율이 0.6%이고 논비율이 가장 많은 북평면의 논이 1.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백령도와 연평면의 논비율은 정선군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백령도의 진촌2리 토민인 김형두(1913년생.남)는 1모작했으며 조를 많이 심었는데, 조밭('재밭'이라 함)을 애벌부터 네벌까지 모두 호미로 맸다. 조는 물에 녹는 습성이 있어 골을 파서 흙을 덮어주었다. 진밭에 찰벼를 심었는데 논김은 여자들이 맸으며 나무는 남자들이 했는데, 난봉가를 잘 불렀다고 하였다.

본서의 옹진 섬 지역에서 모심는소리를 녹음한 것은 <섬 32, 33>이다. 가창자는 모두 인근 육지로부터의 피난자들이다. <섬 32>의 1912년생 최진성은 장연군 출신이며, 받음구 예는 “아하 아하, 에 헤이 에요”인데, 20~30명이 함께 하는 호무질소리와 같다고 하였다. <섬 33>의 1923년생 이근수는 북한지역 옹진군 서면 출신인데 그 애용소리의 받음구 예는 “애용 애용 애혜용, 에 어리 애혜용”이다.

그밖에, 대청도로 6.25때 피난 나온 김세하(1909년 출생.남. 옹진군 용천면에서 7대째 거주)는 논보다 밭이 많은 용천면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모심을 때 받음구 예는 “혜용 혜용 혜요로다”이다. 폐김구로는 “우리 논에 이 벼를 심어서 한 가지에 삼천가지가 - - ”라고 말로만 일렀다. 논김매는 소리도 이와 비슷하며, 모찔때는 소리가 없다고 하였다. (素87-11-24①A끝)

산악지대인 정선군에서도 모찌거나 심는소리를 녹음<정선 3~10①>하였는데¹²⁾, 본서의 옹진 섬 토민에게서는 수집되지 않은 것은 섬 지역인 연고로 해석된다. 육지에서도 가족 단위로 모심는 정도에서는 모심는소리가 없곤 한다.

김이선(1920년 평북 안주출생.여.15세에 백령 입도)은 모심을 때 심심하면 도라지 타령<섬 131>을 불러주었다고 하였다.

4.1 (논)김매는 소리

(1) <섬 22,23>은 연평도, <섬 24>는 대청도, <섬 25,26,27,95>는 백령도에서의 논김매는 소리이다. 받음구 예를 보면, 애용소리<섬 22, 23>와 자진 난봉가<섬 24~26, 95②>이다. 즉,

12) 이소라, 『정선 민요론』 정선문화원, 2005. 93쪽 이하.

〈섬 22〉 예용 예용 예해 요홍/ 예 에이에 예용
〈섬 23〉 예용 예용 예- 요,호/ 예 헤에이 예해 용

〈섬 24〉 에헤 에에에, 어허허 야아아아옹/
 으야아앙 으야아아로 으으으으으 다,/

〈섬 25〉 에헤 에-이 에에 / 어 야로-다,/ 어야 디야 디야 로 / 내 사랑아

〈섬 26〉 에헹 에헤영 / 어 어 허야 로 다,/ 어야하 디야, 디여허 로, / 니가 내사랑아
 (나는 못 살갔네)

어 야 디 야, 어허 형 영,/영 어허야 디야,
얼었다 슬쩍 녹아지면, / 봄철이 돌아 옵니다

〈섬 95②〉 에헤 에--- 에어 야하로-다,
어럼마 디야라 내 사랑아

예용(아용)소리는 북한의 평산군과 남부 황해도(연백·벽성·옹진·장연·해주) 방면이 문화중심인 논김매기소리로, 강화군의 교동면이나 내가면에도 전해져 있다. 받음선율은 12/8박 2마디이다.

자진 난봉가는 긴 난봉가를 숙아서 잣게 부른 소리이다. 난봉가는 황해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논다나 매구 밭다나 매구 칠월이 되면 엄만네 집엘 가자’는 가사가 애용된다(섬 24,26). 자진난봉가(섬 60②)의 김만옥(1911년생.여.백령도 토민) 창도 “김이나 다 매구 칠팔월이 되건량, 우리 엄만네 집이 밀범벽 해가지구 가갔네”라는 메김구에 근거하여 김매는소리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서 김맬 때 활용하는 섬마타령 계통¹³⁾과는 구별된다. 구성음에 관하여는 후술 제7장, 흥민요 편 참조.

(2) 어화나 등등〈섬 27, 28〉, 청춘가 곡풍〈섬 29, 30, 31, 95③〉, 수심가〈섬 95①〉, 노랫가락〈섬 128〉

13) 진안군 마령면의 섬마타령(“에헤이 여루와, 여루와,, 섬마 궁굴려라 내 사, 헤헤”)“에헤이 여루와, 여루와, 섬마 섬마가 내 사, 헤헤”)은 멕발형의 논매는 소리로 발견되며 고흥군 논珉소리중의 하나인 ‘설마 두리둥가동가’ 나 장흥군 부산면의 제고타령, 남해군의 동가타령, 홍성군의 ‘삼마야라 두리둥개 내사랑’ 등이 참고된다. 전승 양상으로 보아 사당패와 같은 연희 전단에 의해 보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섬 28〉은 대청도에서 녹음한 김매기 소리이며, 그 밖의 곡들은 백령도에서 수집하였다. 〈섬 27〉은 “논 다나 매구요, 밭 다나 매구, 육칠월 되며는 어마네 집에나 가잔다”라는 메김구에 의해 김매는 소리에 배정해 보았다. 〈섬 28〉에도 동류의 메김구가 보인다.

〈어화나 둉둥〉곡은 멜이고 받는 가창방법(멜반형)에 적합하다. 그 받음구 예는 “에헤에, 어화나 둉둥 내사랑아”이다. 백령도 진촌1리 토민인 최성화(1916년생. 여)는 진촌1리에서는 김멜 때 주로 청춘가 곡풍(섬 29)을 불렀고, 〈어화나 둉둥〉은 진남포 쪽 소리라고 하였다.

〈어화나 둉둥〉곡은 송화군이나 장연군 등지에서 밭맬 때 즐겨 부르던 소리이다.¹⁴⁾

청춘가 곡풍(섬 29, 30, 31, 95③)과 수심가(섬 95①), 노랫가락(섬 128)에 대하여는 후술 흥민요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 피난자들로부터 장연군 김매기소리 등 〈섬 34~40②〉을 녹음하였다.

장연군 김매기소리(섬 36, 37)는 어화나 둉둥 곡이다. 〈섬 36〉에서는 “김두나 다 매구 밭두나 다매구, 육칠월되며는, 동고리 타당해가지고 엄마네 집에나 갔다가 오자”를 메김구로 쓰고 있다. 초도와 진남포 출신인 안명삼(1922년생. 여)의 김매기소리(섬 40①)도 어화나 둉둥 곡에 속한다.

진남포와 용강군 온천 출신으로 백령도로 피난온 김병일(1918년생. 남)은 온천은 밭벼가 많은 지역이며, 조밭매기소리로 긴아리(섬 40②)를 가창하였다.¹⁵⁾

김칠보 (1928몽금포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 옴)는 김멜 때 “어화나 둉둥 내사랑아”뿐만 아니라 난봉가, 청춘가, 사발가, 한강수타령 등도 부른다고 하였다 (素87-11-27A).

4.2 저리소 밭갈이 〈섬 41~46①〉, 용두레 〈섬 46②〉, 감내기 〈섬 47~51〉

(1) 저리소 밭갈이 〈섬 41~46①〉

〈섬 43,46①〉은 대청도에서, 그 밖의 곡들은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가창자들은 〈섬 42②〉가 1934년경부터 백령도에 거주하는 김이선(1920년 평북 안주 출생. 남) 창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그 지역 토민들이다.

가사를 통해 두 마리 소를 부르는 명칭은 ‘애나’(‘아나’)와 ‘마라’임을 알겠다. 따라서 강원도에서와 궤를 같이 하여, 오른 쪽 소는 마라소, 왼쪽 소는 ‘애나’(‘아나’)이며, 오른 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14) 이소라, [한국의 농요]제3집, 현암사, 1989. 671쪽.

15) 김병일은 아리는 긴아리 뿐이고, ‘자진’은 자진난봉가이다. 서천엔 조개가 많은데, 조개 가사도 긴아리와 같은 곡이라고 말한다.(素87-11-25B)

마라도!, 왼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에나(아나)로!’ 한다.

앞으로 가자고 할 때는 이라!, 모서리에서 돌릴 때는 도자-, 멈추게 하거나 조심하라고 할 때의 위워!는 호리소 지대와도 공통이다.

저리소 밭갈이소리의 가사는 주로 작업지시적인 내용들이다.

(2) 용두레〈섬 46②〉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작업은 주로 맞두레와 용두레가 담당했다. 무자위도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농기구이지만, 요즈음은 서해안의 염전에서나 이따금 볼 수 있다.

맞두레는 함지박 따위의 네 귀퉁이에 달은 끈을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마주서서 잡고 물을 푸는 농기구이며, 용두레는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쭉하게 판 것을 세 개의 기둥에다 묶어 세우고 한 사람이 한 끈을 밀어 올리며 물을 편다. 용두레질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므로 대개는 독창을 하게 되지만, 강화군 내가면에서처럼 도량에 여러 개의 용두레를 설치하여 함께 작업할 경우엔 맥반형으로도 부른다. 이들 소리는 몇 회까지 푸고는 교대하는 경우가 많아 수를 세어나감이 일반형이다.

〈섬 46②〉는 “한나 넘어간다 한 나” “둘이 넘어간다 둘”하고 하나부터 세어나가는 형태이다.

김이선(1920년 평북 안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도 오심. 백령면 남포2리 거주)은 물 풀 때의 냇두리로 다음과 같이 제보하였다.(素87-11-25A).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맞두레질소리로 파악된다.

“야 그 좀 제〈대〉로 푸자꾸나,
한 바가지 가며는 논바닥에 한평두 못가구 발자국 자리만 밋지누나
어야둬야 푸잔다. 철썩 철썩 물깃는 소리가 귀가 뚫려
한 바가지 더 푸며 우리 살른다
어서 퍼자 어서 퍼자, 담배 퍼자구? 어서 퍼자
어서 퍼자 어서 퍼자 철썩 철썩 넨기자 ”

(3) 감내기〈섬 47~51〉

〈섬 47~51〉은 백령도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오며 불렀던 소리이다. 감내기는 황해도가 본고장이다. 황해도에서는 감내기를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오면서나, 할머니들이 밭김멜 때도 잘 불렀다. 감내기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저녁밥상 차릴 준비를 하였다¹⁶⁾.

진촌2리 토민인 김형두(1913년생. 남) 창〈섬 47〉의 음조직을 보면 레선법(R1.v4.t1)이다. 시작부분 가사의 영바귀 신짝은 영바귀란 짚으로 삼은 신짝을 가리킨다.(素87-11-24①B)

16) 이소라, [한국의 농요]제3집, 현암사, 1989. 661쪽.

〈섬 49〉의 장연군 출신인 김태형은 장연 감내기는 길게 내고, 안악 감내기는 짧게 잘뚝 잘뚝 낸다고 하였다. 〈섬 49〉의 제1,2행 선율을 보면, 〈섬 50〉의 채보선율에 비해 숨이 긴데, 이를 두고 이름인 것 같다.

장연군 출신으로 백령도로 피난나온 최진성(1912년생.남) 창 감내기는 다음과 같다.
(素 87-11-24②).

똑 부러진 년의 다리를 쳐절철 끌면서, 애해 - - ,
그래도 정든 님 따라서 떠들어가누나
저기 저산 밑에 범내려 온다 범내려오며는 어떻게 하느냐
어허 어허 허어허 -

4.3 물레〈섬 52~55〉, 베틀〈섬 56,57〉, 망질소리〈섬 58~60①〉

(1) 물레 〈섬 52~55〉

〈섬 52~55〉는 모두 백령도에서 녹음한 내용들이다. 백령도에서는 삼베를 많이 짜서 육지로 내보냈다한다(〈섬 55〉의 김이선).

평안도 물레타령¹⁷⁾은 3소박4박의 두 번째 마디 제4박을 “어,어”하면서 호느낌을 줌이 특색인 바, 백령도 토민인 김형두 창〈섬 54〉에도 보인다.

〈섬 52,53〉은 〈섬 54〉의 부류이나, 〈섬 55〉는 장산곶(몽금포타령) 본문선율과 동류이다.

(2) 베틀노래〈섬 56,57〉

〈섬 56〉은 김경신(1925년생. 여. 진촌1리 토민)이 밭일하면서 듣고 익힌 노래이다. 오늘날도 심심한데 베틀노래나 불러보세하며 장절형식으로 문을 열고, 잉애대 삼형제 횡경나무 북 바디집 등 베틀의 구조물을 짚는 부분은 일반 경기민요 베틀가를 닮았으나, “서울 뒷산 삼각산에, 구름이나 할머니 전화왔네” 등은 새롭다. 채보한 선율을 보면 출현음이 미술(라)도레미‘(솔)’이다. 음역이 1 옥타브를 넘고, 종지음은 아랫 미, 요성음은 도(레)이다.

〈섬 57〉은 유성기 음반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일반형이다.

(3) 망질소리〈섬 58~60①〉

17) 필자의 [한국의 농요] 제2집 개정증보판(근간)의 평남농요(素 85-3-29①B) 참조

“망”이란 맷돌을 말한다. 밀 등을 갈아먹는데, 작은 망은 혼자 갈지만, 큰 망은 보통 둘이서 간다. 둘이서 작업할 때는 멱발형에 적합한 바, “둘러라 둘러라 어기야 망손을 둘러라” 등을 받음구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장연군, 은율군 등 서부 황해도 지역에서도 많이 불리운다.

〈섬 58〉은 S1.v1.t1. 〈섬 59〉는 창부타령 곡풍으로 가창하였으며, S1.v4.t1.의 음조직으로 모두 솔선법이다.

5. 기타 일노래 <섬 61~65>

(집)터다짐소리<섬 61~64>와 지게목발소리<섬 65>를 실었다. <섬 64>의 김형두는 연자방아에 소1마리를 맸으며, 물방아는 없었다고 하였다.

(1) 집터다짐소리<섬 61~64>

무거운 돌(또는 통나무 토막)에다 동아줄을 여러 가닥 달아 여럿이 줄을 잡고는, 집을 짓기 위해 주춧돌 놓을 터를 다질 때의 노래임이 <섬 61~63>의 노랫말 속에 보인다. 일제히 힘을 모아 무거운 돌을 가지런히 들었다 쾅! 내려칠 수 있도록 부르는 소리인 고로, 일과 노래의 관계는 불가분성, 질서성 및 능률성이다.

한반도의 집터다지기 소리에는 받음구의 핵심어에 따라 ①차 류 ②상사 류 ③지경 류 ④지점 류 ⑤망개 류 ⑥지정 류 ⑦달고 류 및 기타(지짐, 지뎀 등등)가 있다.

지경 류(“에어여라 지경이요”)는 경기도 소리이며, 경기도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남부 경기도의 충북 접경지역은 충북소리인 지점 류(“에어여라 지점이요”)가 분포한다. 상사 류(“얼렬렬 상사도야”)는 전라도가 본고장인 터다짐소리이다. 지정 류는 황해도에서 선호한다. 차류와 망개류는 경상도가 본바탕이다. 충남지방인 홍성, 논산 등지엔 ①②④가 공존한다. 달고 류는 본래 회다지는 소리이나, 땅을 다진다는 공통성에 기하여 일반 터다짐에서도 지역에 따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섬 61~64>는 모두 백령도 거주민의 가창이다. 받음구는 <섬 62,64>가 지정 류(“에헤이 혜헤이 지정이 하하” “어허 넝청 지정이야”), <섬 63>은 지점 류(“어어 허허 지점이 야하” “에헤 어허 지점이요”), <섬 61>은 지정 류와 지점 류가 공존한다(“에헤 어허 지점이하” “어허 허허 지점이하”).

(2) 지게목발 노래 <섬 65>

몽금포 출신으로 백령도에 피난 온 김칠보(1928년생.남)는 지게목발노래라 하며 <섬 65>를 장산곶 곡풍으로 가창하였다.



사진28. 모판고루는 장면(연평도 1988.7.)



사진29. 모심는 장면(연평도 1988.7.12.)



사진30. 모심는 장면(연평도)



사진31. 달구지(백령도)

6. 동요, 유희요 <섬 66~80>

동요 내지 유희요로는 잡네<섬 66~72>, 애기어룸소리<섬 73>, 다리 헤기<섬 74>, 말 잇기<섬 75, 76>, 타박네<섬 77>, 건너집 일남이<섬 78>, 칭동 쟁동<섬 79>, 끔대<섬 80> 및 방구타령 등을 녹음하였다.

(1) 잡네<섬 66~72>, 애기어룸소리<섬 73>

잡네소리는 자장가이다. <섬 71>의 최순복은 클레멘타인 곡풍¹⁸⁾으로 가창하였다. ‘잡네 잡네’로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 얘기는 잘 자는데, 넘의 아기는 못 잔다는 가사나, ‘금을 준다해도 못 살 우리 아기’라고 추어주는 가사 등이 즐겨 쓰인다.

애기어룸소리로는 달강 류와 불무 류가 보편적이나, 연평도에서 달강 류의 흔적<섬 73①>과 방애 류<섬 73②>가 나왔다.

달강 류의 보편적 줄거리는 길가다가 밤을 한되 사두거나 주워 살강 밑에 두었더니 생쥐가 들락날락 다 깨먹어버리고 다만 한 틀 남은 것을 껍질은 다른 식구들 주고 알맹이는 너랑 나랑 둘이서 먹자이다. 시작말에 따라 달강달강, 달깡달깡, 들깡달깡, 들꿍들꿍, 달꿍달꿍, 달꽁달꽁, 알강달강, 세상세상, 세상달강, 시장시장 등 여러가지로 분류되나, <섬 73①>에서는 여느 시작말 대신에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잘두 잔다”의 자장가와 결합되었다.

방애 류<섬 73②>는 김서방네 방애를 혼자서도 찡구, 둘이서도 찡는 시늉을 하면서 등등등 여자 아이와 노는 장면을 연출시킨다.

(2) 다리 헤기<섬 74>

연평도의 여자 가창자들로부터 이거리 류의 다리헤는 동요를 녹음하였다. 서용옥<섬 74③>은 거울에 엄마들이 물 길러러 가고나면, 얘기를 돌보다가 부르며 놀았다한다. 아기들 다리를 주욱 꿰게해서는 나란히 앉하고, ‘이거리’에 한 다리 ‘저거리’에 한 다리 짚어나가다가 마지막 ‘끈’에 해당하는 다리는 오므리는 놀이이다. 웅진군의 승봉도와 북도면 시도에서도 수집하였다.

다리헤기 동요의 지역 분포 예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한알대 두알대 류는 경기도에 많고 충청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지역에도 불렸지만 경상도나 전라도지방엔 희귀한데 비해, 이거리 저거리 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분히 전국적이다.

18) 2012년도 발간 [옹진군지(상)]507쪽을 보면 클레멘타인 곡풍으로 가창한 심청노래 2편이 실려있다. 1995년 신언호 채록으로 보인다. 김정연(당시 72세. 남) 구연은 “옛 도화동 한 가정에 그의 식구 <두>사람/그의 <따님> 심청이와 그의 부친 심학규/젖종 주소 젖종 주소 우리 아기 젖종 주소”이고 김봉식(당시 55세. 남) 구연은 “젖종 주소 젖종 주소/나이 차고 절하라/이 어린 것 남겨놓고/영영 어디 갔느냐”이다.

옹진군의 영홍도와 자월도에선 한알대 두알대 류가 나왔다.

〈표 2〉 다리혜기 동요의 지역 분포 예 (악보 예)는 필자의 저서 참조)

시작말	지 역
이거리 저거리	대전, 금산, 부여, 공주, 논산, 고창〈악보 1418〉, 경산, 의성, 양산, 고양(송포면), 김포(통진면), 이천(신둔·설성·모가·율면), 평택(진위면), 양평(양동면), 〈정선 96②, 102~109, 111②〉, 〈보성 132, 134〉, 〈영암 118①〉, 〈장성 156①〉, 〈함평 154①, 154④, 159②〉, 〈광양 108②, 112②, 114~118〉, 괴산(다수), (봉화군의 봉화읍〈봉화 72〉, 명호면), 울산〈울뫼 128, 129〉 〈옹진〉섬 74〉 (옹진군 승봉도, 북도면 시도)
오거리 저거리	청원(북이면)
요거리 저거리	〈정선 101②〉
콩하나 팔하나	대전시 일부, 흥성군(장곡면), 〈의성 207〉, 〈정선 99②〉, 〈괴산 169, 170, 176〉 〈봉화 75②〉
한알대 두알대	파주(적성·법원·문산), 고양(송포), 양주(회천읍), 포천(이동·영북면), 남양주(평내·화도면), 평택(현덕면), 김포(통진·검단면), 용인(남사면), 이천(모가·설성면), 화성(송산면 〈악보 1089〉), 연천군(전곡·연천읍), 강원도 고성군 〈악보 1730〉, 충주(노은면), 대전 〈상 137〉, 〈괴산 184-1, 184-3〉, 옹진군(자월도, 영홍도)
한울대 두알대	연백군(청용면)
한발대 두발대	용인(수지면), 평택(고덕면)
한알깨 두알깨	원산시
한알깽이 두알깽이	〈괴산 164-3〉
하나께이 두나께이	울산〈울뫼 130①〉
한알깡 두알깡	청원군(남의면 〈상 136〉)
한알이 두알이	〈정선 111①〉, 〈함평 156〉, 〈괴산 179-1〉
한알깡 두알깡	〈정선 112〉
한다리 두다리	대전 〈상 140①〉, 제주(추자도), 〈보성 130③, 130④〉, 〈장성 143①, 151②〉, 〈함평 153②〉, 〈순창 131②〉, 정선(신월선 창)
한다리 만다리	부안(위도면), 제주(추자도), 〈순창 131①〉, 〈장성 154①, 154②, 155〉, 〈함평 159①〉
한다리 은다리	〈장성 145②, 153, 170③〉
한다리 인다리	제주도 표선면 성읍2리 흥복순 창.
한다리 건다리	〈장성 170③〉
이다리 저다리	〈장성 156②〉, 〈보성 133〉

인다리 전다리	〈함평 154②〉
한거리 두거리	청원군(강내면), 진천(이월면)
한거리 두거리	대전 <상 134②, 135>, <괴산179-2>
한거리 진거리	〈정선 99①〉, 천안(성거읍)
하내나 두내나	〈의성 218①, 219①, 220, 221①〉
한나 만나	곡성(곡성을읍), <장성 157①>, <함평 157①, 157②>, <광양 113②>
한나 빤나	〈의성 206②, 208, 209, 211②〉
한내 만내	〈함평 155②〉
한나 한나	〈보성 131〉
한나 있나	〈영암 116②, 117〉
한나 은나	〈함평 154③〉
한나마리 두이뚱	〈광양 113①〉
아재비 까재비	〈의성 205〉
엠비 땀비	김포시
엥기 땡기	〈정선 110②〉, 금산군, <봉화 63②의2>
엥기 동기	대전 <상 134① ; 고향 기억못함>
오꼼 조꼼	금산군
안네 인네	대전 <상 134①>
울목 줄목	〈함평 158〉
이땅 저땅	〈함평 155①〉
아랫방 젯방	〈의성 210①〉
잇단지 놋단지	대전 <상 134① ; 논산출생>
한콩 두콩	금산 마전출신 <민초 112③>
까치달래 은달래	부여군
까막 까막	〈의성 206①〉
종아 종아	〈의성 219②〉
찌부도찌부도	〈영암 116①〉
거청 대청	〈장성 157②〉
고모네집	〈정선 100, 101①〉, 강원도 고성군, 횡성군 등, <괴산171>
일득이 이득이	서울, <고양 109①, 110>
(꿩 잡으려)	〈봉화 63②의1〉
목지 날지	울산 <울뫼 130②>

(3) 말 잊기〈섬 75,76〉

〈섬 75〉는 연평도에서 “무슨 배야” “자라 배” 식으로 ‘무슨’을 넣어 묻고 답하던 내용이다. 〈섬 76〉은 백령도에서 “까마구는 너풀거리지” “너풀거리는 건 무당이지”하고 2음보의 가사 중에서 제2음보의 의미구(너풀거림)를 되풀이하며 해당 단어(무당)로 이어나가는 형태이다.

(4) 타박네〈섬 77〉, 건너집 일남이〈섬 78〉

〈섬 77〉은 불행한 고아 ‘타박네’가 무덤으로 엄마 찾아가는 내용을 노래하였다. 경상도, 전라도 뿐만 아니라 북제주도 추자도에 이르기까지 드물게나마 수집되는데, 정선·삼척·동해시 방면을 중심한 강원도지역에서는 찾기가 어렵지않다. 북한에서 2000년도에 발간한 [조선민요 1000곡집](연구자료) 267~270쪽을 보면, 강원도 안변과 함경도, 평남 온천, 황해북도 연탄과 수안, 평양에서 수집되었다는 타복네 류가 6곡 실려있다.

그 이념형(理念型)은 가사 2음보가 1행이 되어 선율 1행을 이루며 가사 2행이 〈섬 77〉처럼 1련(聯)을 이룬다. 〈섬 77〉을 보면, 선율 제3,4행은 선율 제1,2행의 반복이다.

정선지방의 다북네 곡은 도선법(D)과 미선법(M)이 많은데¹⁹⁾ 〈섬 77〉의 출현음은 솔(라)도레미(솔)로 솔선법(S1.v1.t1)에 속한다. 〈섬 77〉은 1923년 무렵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는 희망가(이 풍진 세상)²⁰⁾의 곡풍이다.

〈섬 78〉의 건너집 일남이는 건너집 복남이로도 불리우는 바, 신민요시대에 나온 동요이다. 일남이 집이 가난하여 끼니도 제대로 못먹지만,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내용이다. 8분의 12박으로 정리해 두었지만, 1마디가 3소박4박이 아니라, 2분박 넷으로 쪼개어진다. 출현음은 솔도레미솔`이며, 솔선법(S2.v5,8.t1.)에 속한다.

(5) 칭동 쟁동〈섬 79〉, 끔대〈섬 80〉

칭동 쟁동〈섬 79〉과 끔대〈섬 80〉는 옛 용진군 서면에서 백령도로 피난 나온 이근수(1923년생.남) 창이다.

〈섬 79〉를 보면, 3소박4박(12/8박) 10마디로 가창되었다. 첫3마디와 끝3마디의 가사는 각각 “칭동 쟁동 쟁동아/ 칭챙동 소리가 웬 소리냐/ 요내 간장 녹는 소리다”로 같으며, 선율에는 서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사이 4마디는 “①이랴 마랴 밭가는 건/ ②농부 님의 할 일 이요/ ③붓대 잡고 글씌 는건/ ④선비 님의 할 일 이지”로 ③의 선율은 ②의 선율형이다. ①②④의 선율은 첫3마디 또는

19) 이소라, [정선민요론]정선문화원, 2005. 73쪽.

20) 곡은 1850년에 미국인 가든이 작곡한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를 경쾌한 템포로 바꾼 것으로, 1910년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던 〈새하얀 후지산 기슭〉을 빌려온 것이며, 작사자는 모른다.(인터넷 자료)

끝3마디와 닮았다. 출현음을 보면 솔(라)도레미솔`이며 솔선법이다.

끔대〈섬 80〉는 “끔대 끔대 끔대야/ 끔드래 청청 멧들었다”를 A로 표한다면 ABACA로된 가사이다. B는 “송아지 대가리 설삶아 놓고,/ 너하구 나하구 먹을 적에/(썩좋더라)”이며 C는 “멱삶은 물에다 속곳을 빼니/ 이 죽구 풀 죄구 썩 맞겼다”이다. B끝부분에 선율 반마디에 걸쳐 (썩좋더라)가 들어감으로 인해 A부분이 다음 마디에 걸쳐 기보되기도 하였지만 A와 C의 선율은 각각 3소박4박 (12/8박) 2마디씩이다.

B와 C의 가사 붙임은 촘촘하여 염음조이다. 출현음은 솔(라)도레미솔`-(라)`이며 솔선법(S1.t1)이다.

[옹진군지(상)] 502쪽에 황해도 장연군 출신 이동필(1923년생.남) 창의 꿈베타령 가사가 실렸는데 반복구가 “꿈베야 꿈베야 꿈베나 칭칭 캁쿰댕”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곰배말’은 등이 굽은 말을, ‘곰배활’은 꼬부라져 퍼지못하는 활을 일컫는다. 1940년에 콜럼비아 음반(C2016)으로 서도잡가 군베타령이 발매된 바 있다.

7. 흥민요

본장에서는 살라라〈섬 81~83〉, 자진난봉가〈섬 84~86①, 87, 95②〉, 니나나타령〈섬 88〉, 너시랑〈섬 89〉, 놀량〈섬 90〉, 수심가〈섬 91~95①, 96①〉, 오봉산타령〈섬 96②~99①〉, 뱃노래〈섬 99②, 137〉, 장산곶마리(몽금포타령)〈섬 100~106①〉, 청춘가〈섬 106②~112〉, 국문뒷풀이〈섬 113~116〉, 담바구〈섬 117~121, 122②〉, 봄배추 등 창부타령〈섬 122①, 123, 125, 126〉, 방구타령〈섬 124〉, 노랫가락〈섬 127~129①〉, 아리랑 류〈섬 129②, 130〉, 도라지〈섬 131, 132〉, 각설이〈섬 133①〉, 신고산타령〈섬 133②〉, 노들강변〈섬 133③〉, 쌍금쌍금〈섬 134〉, 군밤타령〈섬 135, 136〉, 창가 곡풍〈섬 138〉, 왕서방〈섬 139〉, 유행가 곡풍의 연자방아〈섬 140〉 및 꼽새치기〈섬 141~143〉를 실었다. 산염불〈섬 86②〉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살라라〈섬 81~83〉, 자진난봉가〈섬 84~86①, 87, 95②〉

살라라하 살라라
나할 살라라
이재건네 길자야
박종운만 살라라

이 가사는 이길자의 남편인 박종운이 장가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이다. 이길자의 오래비 이재건과 박종운은 잘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연평도 사람들은 자진난봉가를 즐겨 부른다. 〈살라라〉도 자진난봉가 곡에 않는다.
신부 집으로 길갈 때도 연습 겹 부르지만, 새신랑의 〈살라라〉노래가 받아들여져 신부집에서 음식을 내오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살라라〉노래가 이어진다.

에 혜 - o 어허야
어허 어어어 어 - 야아아
어야 어야, 디야 라아
내 사랑아

모닥불 옆구리,
통치마 자리는
언제나 자라서,
내 품안에 드나

에 혜 - o 어허야

어허 어어어 어 - 야아아
어야 어야, 디야 라아
내 사랑아

잘 놀다 갑시다,
잘 놀다 가요
이 밤이 새도록
노흘 다나가 세

노래를 통해, 하객들과 어울려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며 떠들썩했던 새신랑다루기 풍속을 엿볼 수 있다.

1913년생으로 백령면 토민인 김형두는 17세에 장가를 갔다. 당시엔 보통 11세 정도에 장가를 갔으며, 15세면 대장부라고 하였다.

새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빨바닥을 북어나 몽둥이로 때리는 풍속은 과히 통민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살라라〉와 같은 신랑다루기 노래를 수집한 것은 연평도에서일 뿐이다.

〈섬 81~86①, 87〉와 〈섬 24~26, 95②〉에서 받음구 내지 후렴구 해당어를 보면 아래와 같다. 4마디중 첫마디는 ‘에헤’계통이고 두 번째마디는 ‘어 어허’ 또는 ‘어야로다’ 세 번째 마디는 ‘어야 어야 디야라’, 넷째마디는 ‘네가 내 사랑아’ 류이다.

세 번째 마디는 “어야디야 두둥등” “얼쌈마 두리둥등” “얼었다 슬쩍 녹아지면”으로도 대체된다. 넷째마디는 “나는 못살 갔네”나 “봄철이 돌아옵니다”로도 대체된다.

〈82〉 : 에 헤 에헤 에어/ 어 어 어허 어/ 어야 어야 디야 라/ 네가 내사 랑 아 /
〈83〉 : 에 헤-o 어허 야/ 어허 어어어 어 야아아/ 어야 어야, 디야 라/ 내 사 랑 아/
〈84〉 : 에헤에, 어허영어/ 어이야 로 다,/ 어야디야 두둥등/ 내 사으 랑 아/
〈85〉 : 에헤 헤에헤/어 -, 어 어/ 어야 어야 디야 라/ 네가하 내사 랑 하/
 에헤에 에헤에/ 어 어야/ 어야 어야, 디야 라/ 네가 내 사 랑 아/
〈86①〉: 에 헤엉 어 허엉/어 - 야 로 다,/얼싸 함마나 두리둥 등/네가 사랑 이 라/
〈87〉 : 헤 허헝,/ 어엉, 어헝 어어야/ 어러 러, 디야 로오,/ 니가 내사랑 이라 /

〈24〉 : 에헤 에에에, 어허허야 아이아옹/ 으야아-앙 으야아아로 오으으다,/
 으아라흐야, 디야- 라-라/ 내 - 사 - 라 아앙 야,/
〈25〉 : 에헤 에이 에에/ 어-야 로 다,/ 어야 디야 디야 로/ 내 사랑 이 라/
〈26〉 : 에헹 에헤 헤/ 허엉 어허 야/ 어럼마 두둥등,/ 니가 내 사랑아
 에 - 엉,/에 헤 엉 어허야 로다,/ 어야하 디야, 디여허 로,/나는 못살 갔네/

어야디야, 어허형엉,/엉어허야 디야,/얼었다 슬쩍 녹아지면,/봄철이 돌아옵니다/
 〈95②〉: 에헤 에 - 에/ 어 야하로다,/ 어럼마 디여라 / 내 - 사랑 아/

살라라 및 자진난봉가 곡의 구성음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살라라(섬 81~83) 및 자진난봉가 곡(〈섬 84~86①, 87〉, 〈섬 24~26, 95②〉)의 구성음 관계

〈섬〉	가창자	구성음 관계	기음, 요성, 종지	o(본문, 후렴)
81	정관석(1926. 남. 연평토민)	솔도레미솔`	S,v4,t1.	본.
82	서영애(1928. 여. 연평토민)	도레솔라(시*)		본.(“덜 오른음)
82	이화선(1918. 여. 9세입토민) 이길자(1940. 여. 연평토민)	도레솔라	D,v5,t1.	후.
83	조희준(1928. 남. 연평토민)	레라(도*)	R,v5,t1.	후.(“약간낮춤)
83	“	레(미)라(도*)레`		본.(“약간낮춤)
84	김형두(1913. 남. 백령토민)	레라도레` (라미솔라)	R,v5,t5.	o
25	“	“	“	o
85	안명삼(1922. 여. 34세에백령)	도레솔(라도)	D,v5,t1.	o.북한출신.
85	김병일(1918. 남. 32세에백령)	(라도레미)+ 도(레)라도`	D,v5,t1.	o.북한출신.
85	이순덕(1928. 여. 3세에백령)	도레솔(라)	D,v5,t1.	o.
86①	김태형(1920. 남. 32세에백령)	라미솔라`		본.북한출신.
86①	김태옥(1922. 남. 백령토민)	라(도)미솔라`	L,v5,t1.	후.
24	오상덕(1923. 여. 대청토민)	레(미)라도레`	R,v5,t5.	후.
24	손엄전(1916. 여. 대청토민)	라미솔라`도`	L,	본.
24	이부자(1924. 여. 12세에대청)	라(도)미솔라`도`(레`)	L,	본.
26	백순옥(1925. 여. 백령토민)	레라도레`	R,t5.	o.
95②	정관석(1926. 남. 연평토민)	라(도)레미솔 라(도)	L,v5,t1.	o.

〈표 3〉에서 보면, 〈섬 83, 84, 24, 25, 26〉에서 레(R)가 기음이 되고 있다. 이를 가창자들은 모두 그 섬의 토민들이다. 〈섬 26〉을 제외하고는 그 5도윗음을 요성하는 이른바, 수십가토리에 속한다. 〈섬 83, 84, 24, 25〉에서는 굵거나 연이어 끊는 듯한 요성이 있다. 〈섬 83〉은 기음종지(t1)를 함에 비해, 〈섬 84, 24, 25, 26〉은 5도윗음 종지(t5)를 한다.

(2) 니나나 타령 <섬 88>

<섬 88> 유형을 필자는 본서의 세 지역 중 연평도에서만 녹음할 수 있었다.²¹⁾ 곡명은 반복구 중에서 따왔다. 북을 치며 부르기도 하고, 함지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띄우고 뚜드리며 부르기도 한다. 북장단은 북편과 북위가 모두 길고 짧은 3분박(♩♩)으로 계속된다.

보통은 본문 4마디에 후렴 4마디씩이지만 <섬 88>의 2에서처럼 본문이 8마디로 길어지기도 한다. 매 마디는 3소박8박(24/8박)씩이다. <섬 88>의 8에서처럼 셋잇단음표를 쓰면 4분의8박으로도 기보된다. 매마디 8박중 제4박 이하의 선율이 장인되는 특징이 있다. 이들 선율은 미선법(M)이 절반(제1,6,7,8절)이고 라선법(2,3)과 솔선법(4,5)이 각각 2회씩이다. 모두 기음의 4도윗음을 요성(v4) 한다. 종지부분이 채보되지 않은 제1,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음종지(t1)한다.

후렴구를 보면, 아래와 같이 대동소이하다.

“니나나 나~, (애나) 나 나 - , 아니나 놀고 - 뛰할소냐”
“나나나 나~이, 나나 나 - , 아니나 놀고 - 뛰할소냐”
“나나나 나-하, 애나나 나 - , 아니나 놀고서 - 뛰할소냐”
“나나나 나~, 나나나 나 - , 아니나 놀고 - 뛰할소냐”
“나나나 나~, 이나나 나 - , 아니나 놀고 - 뛰할소냐”
“에레레리 - , 니니니랴, 아니나 놀고서 - 뛰할소냐”
“나나나- 아, 에가나 라 - , 아니나 놀고-호 뛰할소냐”
“나나나 나~, 나나나 나 - , 아니나 놀고 - 뛰할소냐”

(3) 수심가 <섬 91~95①, 96①>

수심가는 민요에 흔히 잇대어지는 후렴구가 없다.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꼽힌다. <섬 91③>의 구성음은 래(미)라도 이고 래선법이며 기음인 래의 5도윗음(v5)인 라를 굵게 요성하고 래에서 종지(t1)함이 이른바 수심가토리에 속한다.

이창배는 글자가 많은 적든 끝으로 두자를 남기고 소리를 짓는데, 한번 응물어 콧소리를 내는 것이 수심가의 독특한 가락이라 말한다.²²⁾ <섬 91③>에서 예를 들면, 돌아를 간다의 간다를 남기고 ‘를’을 응물어 콧소리를 낸다는 설명이다.

21) [옹진군지(상)]485,486쪽을 보면, 나나나타령은 .. 백령도, 연평도에 이르는 지역의 어촌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새 연 평소리, 나이나소리라고한다. 라고 한바, 필자는 1987년도에 2주간을 백령도에 머물었는데, 이 노래를 듣지못하였는지 의문이다.

22) 이창배, [한국가창대계]홍인문화사, 1976. 844쪽.

채보한 선율들은 모두 기음 종지(t1)를 취한다.²³⁾

(4) 놀량 <섬 90>

대청도 토민인 최봉오(1905년생)는 이를 백령도 출신 노순길 할머니(장구도 잘 치셨음)께 배웠다. 가사로 보아서, <섬 90>은 서도 놀량에 속한다.

<섬 90>엔 “에라디여 어얼 네로구나”가 2회 나온다. 경기놀량에선 (- - 네로구나)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바, 이를 ABCDEFGHK로 표시한다면 서도놀량은 경기놀량의 (산천초목)+ABCDE+(녹양변은 길)+F+(춘수는 낙락)+GH+(종일 가도 안성은 청룡)+K의 구조에서 녹양변은길 이하만 가지고 변개하였다.²⁴⁾

경기놀량은 소고를 들고 부르는 반면, 서도놀량은 장고를 매고 한 사람이 메기면 다른 사람들이 다같이 제창한다.²⁵⁾

(5) 오봉산타령 <섬 96②~99①>

선율이 채보된 <섬 98,99①>을 보면, 선율 6행중 마지막 2행의 가사는 후렴구 격이며, 제1, 2행의 선율은 제3, 4행, 제5, 6행과 서로 거의 비슷하다.

후렴 해당 가사를 보면, “에헤 에헤 에헤에 야,/ 영산 홍록에 봄바 랍” 격이며, 선율 매행은 12/8박(3소박4박)이다. 출현음은 미라도레미`솔`라`이다. 음역이 넓어 11도에 이른다. <섬 99①>의 가창자는 요성음이 라레미` 임에 비해, <섬 98>에서는 라음에만 약한 요성이 보인다.

오봉산은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충남, 경상도 등지에 있다.

(6) 장산곶마리(몽금포타령) <섬 100~106①>

장산곶(長山串)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처럼, 백령도 북쪽에 위치한 장연군의 반도 서쪽 끝에 있으며, 그 가까이에 항구인 몽금포가 있다. 연평도에서 녹음한 <섬 100, 105>를 제외하고는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몽금포타령은 청춘가처럼 1음보 3자구성의 2음보가 선율 12/8박 1행을 이루되 “복소리 나더 니 - -”에서처럼 제2음보 끝자인 ‘니’를 굴곡지으며 장인하여 반마디(반행)를 이룬다. 음역이 1옥타브 이상이라 넓은 편이다(<섬 100>은 9도, <섬 101,104②>는 10도).

23) <섬 91①> : (R.v1,5.)+(S.또는 R. v1,4.t1) <섬 91③> : 레(미)라도. R.v5.t1.

<섬 92> : (D)솔(라)도(레)미'(솔)'라'. 솔줏대.v1,4.t1. <섬 93> : S1.v1,4.t1.

<섬 94> : {(솔)도레미솔'}+[솔(라)레미솔' S.v5.t1}

<섬 95①> : {솔(라)도레미(솔')}+[레(미)라도레'} (S1.v4, 5)+(R.v1.t1)

24) 이소라, <봉산탈춤의 놀량 고>[니요당 민요집]프로방스, 2013. 24~65쪽.

25)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앞의책. 349쪽.

보통은 내재4박 내지 12/8박(3소박4박) 4행의 선율이나, 백령도에서 녹음한 〈섬 101②, 103, 104, 106①〉엔 “에헤에 에, 에헤 어/ 나흔자 살라 나,” “아이구 데구요/ 성화가 낮구나,” 등의 후렴구 류가 붙어 6행의 선율을 이룬다 〈섬 104①, 104②〉.

출현음은 다양하지만, 기음종지(t1)의 경향이다.²⁶⁾

(7) 청춘가 곡풍 〈섬 106②~112〉 〈섬 29~31, 95③〉

연평도에서 녹음한 〈섬 107, 108, 111〉을 제외하고는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백령도의 〈섬 29~31, 95③〉은 상술한 바처럼 김멜 때의 소리 예로 가창되었다. 연평도 토민인 정관석(1926년생. 남)은 모심는 소리가 따로 없고 청춘가 등을 불러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청춘가 곡도 몽금포타령처럼 대개는 1음보 3자구성의 2음보가 선율 12/8박 1행을 이루되 “상투는 잘라 서 - -”에서처럼 제2음보 끝자인 ‘서’를 굽곡지으며 장인하여 반마디(반행)를 이룬다. 음역이 1 옥타브 이상이라 넓은 편이다(〈섬 107, 110, 29, 30〉은 9도 〈섬 108, 109, 111, 31, 95③〉은 11도).

〈섬 95③〉의 정응현은 〈이팔 청춘가〉라 이름하여 가창하였는데, 처음 시작부분이 “이팔은 청춘에 ~, / 소년몸 되고요 ~,/ 사람의, 늙기는 ~,/ 설음에 사노라”이다. 1912년 박춘재 취임의 〈이팔청춘가〉(홀과수타령) 가사는 “이팔은 청춘에 ~/ 홀과수 되어서 ~/ 서름의 사정을 ~/ 뉘라서 알리요~”이다. 〈섬 106②〉의 가사엔 “이팔은 청춘에 혜에에,/ 홀과수가 되지마안,”이 나오지만 이어서 “누구를 나들도호, 좋시다,/ 이렇게 알아주나 하아”라고 하여 뒤에 나온 〈청춘가〉곡의 특징인 제3행 끝박에 붙는 ‘좋다’류가 들어있다. ‘좋다’의 추임새는 〈섬 107, 110, 111〉과 〈섬 31〉에도 보인다.

백순옥 창의 청춘가 〈섬 109〉에는 개성적인 노랫말들이 풍부하다.

박춘재 취임 〈이팔청춘가〉의 홀과수 가사가 1930년대 이영산홍의 음반에서는 “--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로 바뀐다. 북한에서는 2000년대에 와서, 〈맑은 아침의 나라〉로 곡목을 바꾸고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미한 새 가사로 부르고 있다.

채보한 악보들은 솔선법(S1)이고 기음인 솔에서 종지(t1)한다. 요성음은 각각이다.²⁷⁾

(8) 국문뒷풀이 〈섬 113~116〉, 담방구 〈섬 117~121, 122②〉 쌍금쌍금 〈섬 134〉

국문뒷풀이는 한글의 자음에다 ㅏ ㅑ ㅓ ㅕ ㅗ ㅕ ㅜ ㅕ ㅠ ㅕ의 모음을 붙여 첫글자와 연결되는 말로

26) 〈섬 100〉 : S1.v4,8.t1.

〈섬 101〉 : (라도솔라‘도’ v7) + (라도미솔 L.v5.t1.)

〈섬 102〉 백령, 김형두 창 : R.v1,5.t1. {레미라도(례)}

〈섬 103〉 : 도레솔라도‘D.v1,5,6.t1.

〈섬 104①〉 : 라도(례)미솔(라‘) L.v1,5,7.t1.

〈섬 104②〉 김태형 : 라도미솔라‘(L.v1,5.t1)/ 김태욱 : 라도미솔라‘도’(L.v5.t1.)

〈섬 105〉 : A{(례)솔(라)도레‘미’} + B{(도)미솔라도‘례’}. A의 요성음은 도/ B의 요성음은 라. 미종지.

27) 〈섬 107〉 v4. 〈섬 108〉 v1,6,9. 〈섬 109〉 v2,4,8. 〈섬 110,111〉 v1.

〈섬 29〉 v1,4,8,9. 〈섬 30〉 v1,4,8. 〈섬 31〉 v1,4. 〈섬 95③〉 정응현: v1,8,11. 장면주: v1,4.

풀어가는 노래이다. 예를 들면, “나 냐 너너 하니/ 나귀 등에 솔질을 하야/ 조선 팔도를 유람 할까” 〈섬 115〉와 같다.

시작할 때는 “얼씨고 넘어갑니다 -- ”하고 국문뒷풀이로 들어감을 알리기도 한다.

담방구 〈섬 117~121, 122②〉는 담배를 소재로 한 통민요이다. 담배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이며 멕시코지방에 살았던 마야족이 피웠던 것인데, 콜럼버스가 1492년에 그 대륙을 발견하였을 당시 큐바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 연기마시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수입했다고 전한다. 일본과 제일 먼저 교역한 유럽인은 16세기 중엽에 규슈에 상륙한 폴류갈인인 바, 1605년에 나가사끼(長崎)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엔 광해군 때인 1618년 무렵에 일본으로부터이며, 1622년엔 남영초(南靈草)라 하여 크게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담방구타령의 대부분이 ‘동래나 울산의 담방구’로 되어있음은 담배농사의 시초가 동부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²⁸⁾

쌍금쌍금 곡은 경상도가 문화중심인 서사민요로 전파범위가 넓은 편이다. 오빠한테 정절을 의심받은 누이동생이 죽고싶은 심정을 읊은 것으로, 〈섬 134〉는 백령도에서 수집된 바, 극히 작은 편린만 보여준다.²⁹⁾ 〈섬 134〉는 선율을 클레멘타인(넓고넓은 바닷가에) 곡에 얹었다.

(9) 방구타령 〈섬 124〉 각설이 〈섬 133①〉

〈섬 124〉는 연평도 토민인 정관석(1926년생.남) 창이다. 일반적으로 방구타령은 며느리의 시각에서 보는 시집 구성원들의 특징을 방구의 종류로 표현하지만, 〈섬 124〉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방구만 언급하고는 일본, 중공군, 미군, 한국군 하면서 다분히 정치적 관심사로 엮어 민주주의가 제일 좋다고 하고는 얼씨구나 – 하며 창부타령조로 매듭짓는다.

12/8박 2마디를 단위로, 그 첫마디는 높여내고 그 둘째마디는 보다 낮추어낸다(단.후렴구에 해당하는 마지막 2행만 같은 높이로 소리내었다). 그 둘째마디의 끝음은 기음이 솔이다. 첫째마디는 솔 다음에 라가 나오기는 하지만 솔에 보다 무게가 있어보인다. 음역이 1oct.가 넘는다. 기음과 그 4 도윗음에 요성이 있다. 기음중지한다.

각설이 〈섬 133①〉는 일자부터 장자(십자)까지 차례로 들먹이며 풀어나간다 해서 붙은 명칭이다. 사이 사이에 품! 품!하고 입술을 떠는 추임새를 잘 넣기 때문에 품바타령이라고도 일컬으며, 이 장 저 장 다니며 시골장의 특징을 재담으로 엮어나갈 때는 장타령으로도 불린다. 우리 민요엔 3분박 선율이 많지만, 각설이나 목도소리 같은 경우는 2분박으로 채보된다.

28) 이소라, 〈담방구타령〉 [연연초 제70호] 연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1992.16~18쪽.

29) 이소라, [의성의 민요]의성문화원, 2000년, 155쪽.

- (10) 뱃노래〈섬 99②, 137〉, 봄배추 등 창부타령〈섬 121①, 123, 125, 126〉,
노랫가락〈섬 127~129①〉 아리랑 류 〈섬 129②, 130〉, 도라지〈섬 131, 132〉,
신고산타령〈섬 133②〉, 노들강변〈섬 133③〉, 군밤타령〈섬 135, 136〉,
유행가 곡풍의 연자방아〈섬 140〉, 창가 곡풍〈섬 138〉, 왕서방〈섬 139〉

뱃노래〈섬 99②, 137〉는 요즈음의 무대에서도 많이 성창되고 있다. 이창배는 '에야노 야누' 같은 후렴구가 다분히 일본말에 가까운 구호인 고로 "어기야 디여차"로 바꾸었다³⁰⁾고 하는데, 〈섬 99②, 137〉에서는 바꾸지 않고 부르고 있다. 〈옹진 137〉의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졸래라"와 같은 노랫말은 재치 있어 재미있다.

봄배추 등 창부타령〈섬 122①, 123, 125, 126〉은 경기도의 굿판에서 유래되는 곡으로, 그 가락의 흥겨움과 유성기판의 보급으로 인해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애창된다. 〈섬 125〉는 솔선법 (S1.v1, 4.t1)이며 음역이 9도에 이른다.

노랫가락〈섬 127~129①〉은 본래 경기도 만신(무당)들이 부르던 노래였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져 성창되어온 노래이다. 조선조 고종때 대궐출입이 잣은 무당들이 고상한 시조시(時調詩)를 엊어 부른 뒤로부터³¹⁾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된 노랫말로 부른다. 시조창에서처럼 종장 끝의 '하리라' 등을 생략하여 불렀던 것을 요즈음은 대개 생략하지 않고 다 부른다.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흔히 나무꾼소리로도 활용된다. 백령도 토민인 김형득(1913년생)은 〈섬 128〉을 논김멜 때도 부른다고 하였다. 〈섬 127〉로 보면, 솔선법(S1.v4, 9.t1)이며 음역이 9도에 이른다.

연평도 토민인 조희준 창〈섬 129①〉의 음조직도 솔선법(S1.v1, 4, 8.t1)이며 음역이 9도에 이르고 계단식 하행종지를 한다.

아리랑 류로는 일반 아리랑〈섬 129②〉과 밀양아리랑 곡풍〈섬 130〉을 녹음하였다. 아리랑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강원도 어러리와 자진아라리가 가장 오랜 유형이고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전파권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19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형은 충주의 〈아라성〉류와 괴산의 〈이야 형 아리랑〉이다. 19세기 말에 궁중에서 아리랑 경창대회를 가짐을 기회로 섬진강 유역 민중의 바탕선율인 산아지 곡에서 메김소리는 그대로 따오고 후렴만 바꾼 것이 〈진도아리랑〉이다. 〈밀양아리랑도 진도아리랑이 나올 무렵의 산물로 본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아리랑은 1926년에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주제가인 〈나운규 아리랑〉 또는 〈영화 아리랑〉으로 새로 다듬어진 아리랑 유형이다.

도라지〈섬 131, 132〉 타령에 대해 이창배는 예전에 황해도 은율에서 성창하던 〈도라지 타령〉이 있으며 아주 느리게 부른다³²⁾ 하고 북한에서 2000년도에 발간한 [조선민요 1000곡집]에는 황해남도

30) [한국가창대계]앞의책, 870쪽.

31)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앞의책, 757쪽.

32) [한국가창대계]앞의책, 783쪽.

은율의 〈긴도라지〉 악보가 실려있다. 이 악보를 보면, 1930년대부터 소리꾼들의 유성기음반 취입과 함께 경기지역의 신민요로 부르고 있는 〈도라지 타령〉의 가사와 선율 선이 닮았다.

〈섬 131〉의 김이선(1920년 평북 안주출생. 여. 15세에 백령 입도)이 모심을 때 심심하면 이를 불러주었다고 함은 전술하였다. 〈섬 131〉의 선율은 진경토리라 일컫는 솔선법(S1)이며, 세마치장단이다.

〈경기 산타령〉에서 앞산타령, 뒷산타령 뒤에 잣은 산타령으로 도라지타령을 부르고 있으나 황해도 〈긴도라지〉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민요 도라지타령과는 구별된다.

신고산타령 〈섬 133②〉은 후렴구를 따라 〈어랑타령〉이라고도 불리운다.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어랑’이란 함북 경성에서 동해로 흐르는 103.3Km의 어랑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경원선 철로가 1914년에 개통되면서 옛 함경남도 안변군 고산(高山) 지역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기차역이 생기자 이곳을 신(新)고산이라 부르게 되었다.³³⁾

노들강변 〈섬 133③〉은 전래민요의 기법으로 창작된 신민요이다. 작사자는 만담가로 유명했던 신모(申某)이고 작곡자는 문호월이다.³⁴⁾

군밤타령 〈섬 135, 136〉은 경기지방의 신민요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유성기 음반의 보급으로 널리 알려졌다. 〈섬 136〉의 최봉오(1905년생. 남. 대청도 토민)는 이를 연평이나 옹진 사람들이 대청도에 와서 그물질하면서 부르는 것을 16세경에 듣고 배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기제 외에 전혀 다른 〈강원도 군밤타령〉³⁵⁾이 있다.

물깊어서 〈섬 138〉는 창가 곡풍의 신민요이다. 솔선법(S1.t4)이며 퇴성을 즐겨 써, 옛 민요를 부르는 품격이다.

왕서방 〈섬 139〉은 ‘丁, 好’의 중국어 발음인 ‘띵 하오’를 반복하면서 “왕서방이 죽어도 좋아”를 익살스럽게 노래한다. 솔선법(S1.v6, 8, t1)이며 음역이 11도에 이른다.

유행가 곡풍의 연자방아 〈섬 140〉는 기본 구성음이 솔도레미솔`라`이나 미를 낮추어 내어 미라시도미` 가 됨으로써 복합선법을 이룬다. 음역은 9도이다.

(11) 곱새치기 〈섬 141, 142, 143〉

상주를 위로할 겸, 장례 전날에 친지들과 동네사람들이 상가에 모여 밤을 새우기 위해 놀았던 일종의 투전놀이 노래(일종의 돈따먹기 놀이노래)인 곱새치기를 대청도와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33) [한국민속예술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6. 218쪽.

34)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앞의책. 784쪽.

35) 필자가 1985년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서 우영진(1916년 원주출생. 남. 17세에 정금 입촌)으로부터 녹음한 것으로, 필자가 엮은 [거레노래 선]이화문화사, 1991. 7쪽에 채보한 악보가 있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나 강화군, 충북 괴산군, 강원도 정선군의 곱새치기(곱사치기) 및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싸시래기(싸시랭이)나 강원도 태백시의 사스랭이와도 상통한다.³⁶⁾

곱새치기는 기름을 몇 번 먹여 뺏뺏해진 한지를 가로 1.4 cm, 세로 14cm(또는 10cm)크기로 자르고 거기에 1부터 10까지 통용(通用)의 그림을 <그림 6, 7>처럼 그려 4별을 마련한 다음, 돈따먹기 투전을 하면서 내던 불림소리이다. 화투 수입 이전에 들어와 영조 무렵에 널리 행해졌다.

실제 놀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봉화군 민요집]을 보기 바란다.

첫 불림을 내는 선이 예를 들어 칠자를 보이며 “칠월 쇳뿔은 곱장 뿔이요, 칠칠 끄는 건 몽칫군이요” 하면서 칠자 그림을 보이면, 다음 사람이 ‘칠’을 가졌다면 “잡았다”고 소리내며 앞사람의 칠자를 잡는다. 다시 다른 숫자를 내어놓으면서 다른 숫자의 불림을 한다. 만약 7자가 없는 경우는 그 다음 사람이 잡으면 된다. 나머지 사람들도 7자가 없으면 맨 처음으로 내어놓은 선의 7자는 살게되어 1 점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은 1개씩 죽게되어 엎어놓는다.

첫 불림을 내었던 선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둘째 수를 불림하여 보여주고, 첫 불림 내었던 선이 죽었으면 그를 잡았던 사람이 둘째 수를 보여주며 불림을 시작한다. 불림 선율은 각설이 곡에 유사한 2분박의 또박또박한 리듬에 촘촘한 사설붙임이 특징이다. 가사 2음보(예; “오관천장 관운장이라”)가 선율 4분의 4박으로 채보된다.

<섬 142> 이외의 정웅현, 장면주 제공 여분 가사는 아래와 같다.



〈그림 6〉 곱새치기 응진목

36)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0. 3~7쪽.

이소라, [정선민요론]정선문화원, 2005.

이소라, [괴산 민요집]괴산군, 2013.

이소라, [봉화군 민요집]봉화문화원, 2017.

이소라, <강화군 민요>[강화군사]강화군사편찬위원회, 1991.

이소라, <김포군의 민요, 민속놀이>[김포군지]김포군지 편찬위원회, 1992.



〈그림 7〉 곱새치기 장연복

- 장면주(장) 일봉 서간에 백편지로다 둉등 디야차 넘어가누나
 정응현(정) 어화 둉등 내 사랑아 갈 때 청산에는, 어구지구 영
 (정) 뮐다 보아라 영천에는, 호걸이 모였다 -
 (정) 이촌 간에는 십육세로다 십육센데는 도, 오가 서면 바루 오지 그려
 할 때에
 (장) 오 하고 물러가지 요령 전소, 맑은 물 위에 하 -,
 · 삼지강산 <재>령 땅이라 (*재령 땅이 넓다 - 가창자 왈)
 · 삼월 한식은 불한식이다
 (정) 남아 하천에 불상봉이라 (*남자는 어디가 만날지모르니까 하는 말이라고 함)
 사자 ; · 네춘 간에 십육세로다
 · 네 덕이 만만하구나

진도의 다시래기는 장례전날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이외엔 서로 별개이다. 다시래기는 연희놀이 임에 비해, 곱새치기는 일종의 투전놀이일 따름이다. 그러나 진도군의 설재천으로부터 들은 살랩이는 동지설달에 노인들이 모여앉아 방에서 4사람이 하되 한 사람이 돈을 3인에게 갈라주는 놀이로 유관성이 있어보인다.

(素 84-8-23A) ³⁷⁾

37) 그밖에 필자 민요편 집필이 있는 [무주군지] 참조 : (꼬챙이) (수는 9) 돈은 두돈칠푼(장자, 귀자, 팔자는 2장씩. 7자부터는 3장씩임. 옛날에 토시가 있잖소. 토시를 벌려서 목춤<목침> 옆에다 탁 세워놓고 목춤에 때리면서 하는 소리이다. (*비망을 위해 게재함)

8. 의식요 <섬 144~165>

의식풍속요로는 안택고사, 비손, 감옹굿이나 장군굿 할 때의 첫노래 및 칠성굿에서 떡 나누어주면서 복받으라고 부르는 숭구타령을 실었다.

의식노동요로는 상여 나갈 때의 어룸소리와, 운상소리, 봉분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및 헛상여소리 <섬 89>너시랑)를 실었다.

8.1 의식 풍속요 <섬 144~147>

안택고사는 시월상달에 새로 수학한 곡식으로 가신께 빌 때 읊어진다. <섬 144>에서는 “불<설>명당 신<주>경, 명당, 일월성신, 서방-백제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이 하강하사 소원성취 발원이요, 이 맥 가중 금년 얘기, 나라에는 충신동이요, 신씨 가문에 만복래라, 삼재팔난, 천리만리로 퇴성하고, (만복을 랑) 이 맥 가중으로 모두 실어들려라 급급 <여울>령 - ”하고 읊으며 복을 빈다.

불<설>명당 신<주>경(佛說明堂神呪經)은 불설명당경의 서두이고, 서방-백제지신 등 각 방위의 지신풀이는 성주고사에 흔하다. 신씨 가문에 태어날 아기를 축복하며 삼재팔난은 멀리 물러가고 만복이 이 맥 가중으로 들어오기를, 촘촘한 말붙임 속에서도 보통의 속도와 빠른 속도를 교차해가면서 읊고 있다.

<섬 145>는 대연평도에서 고기잡이 선주들의 요청에 따라 임경업장군 사당으로 가서 비손하던 내용이다. 연평바다에 들른 조기들, 양주만 남겨놓고 만여동 억만동을 잡아실어 도장원하게 해달라고 말하듯이 빌었다.³⁸⁾

<섬 146①>은 황해도 무속의 무녀가 주관하는 뱃굿을 할 때 부정거리에 이어 감옹굿(감옹 굿) 제차의 첫소리이다. 장군을 청하면서 그때 모든 신령들을 모시고 오시라고 하는 무가이다.

<섬 147>은 칠성굿에서 복 받으라고 떡을 나누어주면서 부른다. 만신이 “복을 사요, 복을 사요”하고 맥이면 “에-에 헤리 승 구후야”하고 굿판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받으면서 불러나갔다.

38) 김형두(1913년생.남.백령면 진촌2리 토민)는 백령도의 당께(당개)에 갈나무가 많다며. 당께에 있는 서 낭당의 유래에 대해, 마을사람의 꿈에 할아버지 신이 나타나, 얘기씨 서낭이 대통을 타고 들어왔으니 잘 모시라고 하였는데, 과연 왕대가 떠들어와 서낭당을 짓고 왕대를 모셨다. 가을 추수후에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기우제는 소를 잡아 지냈다. 배타러 나가기 전에도 당에 가서 빌었다. 당께 서낭당은 담뱃대 하나두 못물구지나는 자리라고 하였다.(素 87-11-24-1B)

8.2 산염불 <섬 148~153>

산염불은 황해도 민중의 대표적인 민요 중의 하나로 흥민요로도 부르지만, 운상(運喪)하면서도 불렀고, 황해도 봉산 출신 김유경 처럼 추수하면서도 불렀다. 강화군이나 김포시에서도 산을 오르며 운상할 때의 소리³⁹⁾로 수집이 된다.

<산염불>이라는 곡명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후렴에 나오는 ‘염불’이라는 어휘와 <섬 148>의 첫 행에서 보듯, 잘 나오는 가사 첫머리(“산에 올라 옥을 캐니 ---”)에 나오는 첫 글자와의 결합일 수 있다.

상기 북한 발행의 [조선민요 1000곡집] 384쪽을 보면, 원래 황해도지방의 <산타령>이었으나 무당들이 이 곡조에 맞추어 십대왕을 불러 지옥을 면해달라는 의식 과정에서 <산염불>이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게재하고 있는 황해남도 안악 출처의 황해 산타령 후렴구는 “에 혜 에 혜/ 산이로구나”이다.

진도아리랑의 출처인 <산아지곡>은 섬진강에 연결되는 옛 승주군과 보성, 광양 방면이 문화중심인 바, 중심지역 후렴구의 ‘산아지로구나’가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면 받음구의 끝귀가 ‘산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등으로 다양해진다. 산아지곡은 흥겨운 곡풍이라 전파권이 넓어 전남 일대 및 전북의 남원, 순창, 진안, 군산, 김제, 충남의 홍성이나 공주, 아산 및 경남의 하동, 진주시에도 분포한다. 산아지곡과 황해 산타령은 서로 별개이다.

<섬 148~153, 86②>의 후렴구 해당어는 <표 4>와 같다.

<표 4> 산염불<섬 148~153, 86②>의 후렴구 해당어

<섬>	가장자(출생년도, 성별, 녹음지역)	후렴구 해당어
148	김형두(1913. 남. 백령도 토민)	나무-, 혜-혜-, 어-미, 타-브흐야 불이로우다
149	정응현(1912. 남. 백령도 토민)	혜-혜 에-혜에엥 어어야, 타향 어하야 불이로구 나
150	변정혁(1933. 남. 백령도 토민) 변정혁(1933. 남. 백령도 토민)	아하에 에에엥 에에, 에엥허 영어엉 아-미, 타하리로 다 -
150		에헤 에에엥, 에허어엉 애미, 염불이라
150	김이선(1920. 여. 평북에서 15세에 백령 옴)	에 혜하하, 애미타, 애해야, 염불이라
151	권장성(1931. 남. 연평도로 피난)	혜- 혜-에, 에 산완-어, 타하아부야, 염부흘-이라
152	김칠보(1928. 남. 백령도로 피난)	애혜-어 뚫완-형, 완-형, 아하으아미, 타하, 어허어야, 염불이라하

39)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0. 18쪽.

이소라, [한국의 농요 1집 증보판]황해도 편<악보 133>(근간)

153	안명삼(1922. 여. 1955부터 백령)	에헤-,에허,허미 타불,불이로다
86②	김태욱(1922. 남. 백령도 토민)	헤 - 에헤 - 어허미, 타 불야 불이로다

〈표 4〉에서 보면, 후렴구는 “(나무)아미 타, (염)불이로다” 유형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보되어 보이는 곡들⁴⁰⁾의 출현음에서 보면 백령도 토민인 김형두 창〈섬 148〉과 연평도로 피난 나온 권장성 창〈섬 151〉에 이른바 수심가토리가 보인다. 〈148〉은 R선법{레(미)라도레'미'}에 5도윗음에서 굵은요성(v5)을 하고 5도윗음에서 종지(t5)한다. 〈151〉은 R(레라도레미').v1,5(끊는기법).t5 이다.

게재한 곡들은 내재박은 있으나 비고정장단으로 채보되어 있다. 〈섬 148〉을 보면 “산에/올라/옥을/캐니,/산이름이/좋와서/산옥일/까//나무,/혜혜,/어/-/미,/타/브흐야/불이/로우다//”로 내재박이 그어져 본문과 후렴이 각각 내재4박 2마디씩이다.

8.3 상부소리

너시랑소리는 경북의 혀상여소리에 해당하며, 긴 아애이 류와 나메 타메 류는 상여를 올려메거나 제자리에서 어를 때의 소리로 보인다. 동구밖 운상 관련소리로는 남에 세왕 류와 네거리 넝청, 그 밖에 산염불도 애용된다. 봉분 흙을 마련할 때의 흙 가래질소리와 무덤 만들 때의 달구소리를 실었다. 장례를 위해 모인 역군들이 전날 밤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놀곤했던 꼽새치기 불림에 관하여는 전술하였다.

(1) 너시랑 〈섬 89〉

〈섬 89〉를 연평도에서는 장례 전날 밤에 모여 부르기도 하고, 시신을 묻고 마을로 돌아오면서도 불렀다. 장례 전날 예행연습 겸 대돋움소리를 하는 지역은 상당수 되지만, 장례를 마치고 귀가길에 소리하는 예는 경북 예천군과 의성군 일부지역, 경남 하동군과 밀양시 일부지역, 전남의 광양읍이나 벌교읍 일부지역 및 제주도에서 보인다.⁴¹⁾

〈섬 89〉는 메발형이며 받음구 예는 “에-헤/야-아양/ 애-헤에/ 애헤야,// 너시라양/거리구/왜 왔/댔-나”이다. 빈 상여를 매고 귀가길에 부른다면 내재 2마디로 가창될 것 같다. 메김소리 예도 “왜

40) 〈섬 148〉은 R선법{레(미)라도레'미'}에 5도윗음에서 굵은요성(v5)을 하고 5도윗음에서 종지(t5)한다.

〈149〉는 (미도레미'v6.t7)+(미솔라도레미'v3,4).

〈150〉은 (라)도미솔라'도'레'로서 도줏대.(v:미라'도' t:미). 또는 (레미)라도레'미' v:라도미' t:라 이다.

〈151〉은 R(레라도레미').v1,5(끊는기법).t5 이다.

41) 이소라, [경남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6. 27쪽.

이소라,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자료집]제주학연구센터, 2018. 49쪽.

왔다/가시나요,/ 왜 왔다으/가으흐나,,// 올리구나으/갈길으을/ 왜 왔댔나,”로 내재 2마디(1마디는 내재4박)로 가창될 것 같다. 음조직은 S2,v4,t1.이다.

(2) 긴 아에이 류<섬 154①, 155①, 163①>, 나메 타메 류<섬 159①>

백령도 토민인 정응현(1912년생)은 “나메 타메” <섬 159①>를 3회 가창하면서 상여를 올려맨다고 하였다.

장연군 출신이며 백령도로 피난나온 최진성(1912년생)은 상여 어를 때 받는소리가 없다면서 <섬 163①>을 가창하였다. “에 - , 어 - , 어-, 어-야”의 선율 진행을 보면 (α)류와 닮았다.

<섬 154①>은 대청도의 장례 실황이다. 긴 아에이소리(아 애-이, 으 어어 엉, 오으아에)를 복창하였고 이를 되풀이 하면서 하직을 고하였다.

<섬 155①>은 연평도 토민인 정관석(1926년생.남)의 제보이다. 처음에 서두소리는 “어 - - 어 - 어요”이다. 끝의 2마디는 “에헤 에 에 에/ 에헤에 에 요 호,”이다. 연평도 토민인 김진순(1915년생.남)창의 운상소리<섬 156 ①> 받음구는 “너 너허 너후 노호”였고, <155①>의 어휘는 입말 위주라 어둠소리에 분류해 보았다.

(3) 남에 세왕 류<섬 154②,158①,159②,160①,161①,165①>

대청도에서의 실황 녹음인 <154②>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령도 가창자들의 동구 안 운상소리이다. 본격적으로 길떠나기 전에 동구 안에서 부르게 된다. 선소리꾼에 따라서는 상여를 들어올려메거나 집마당에서 하직인사 겸 상여를 어를 때 부르기도 한다. 받음구 예는 <표 5>와 같다.

<표 5> 남에 세왕 류 운상소리의 받음구 예

<섬>	가창자(출생년도, 성별, 지역)	받음구 예	음조직
154②	최봉오(1905. 남. 대청토민) 김영옥(1926. 남. 대청토민)등	나-암 에 에이 세 - 왕	(밤)M2,v4,7,t4. (메)D1,v3,8.
158①	김태옥(1922. 남. 백령토민)등	해-에, 해에에-해 애-이이, 아하미 -, 히 -, 세왕-, 아하하미 -, 에이 세이히 세왕	(미)라도레미'(솔') L중대.v1,4,t1.
159②	정응현(1912. 남. 백령토민)	나메- - 세 - - 왕	도미솔라(도') D2,v1,3,5,t3.
160①	김이선(1920. 남. 15세에백령)	나메- -, 세 왕 -	(메):미라도레(v4,6)
160①	변정혁(1933. 남. 백령토민)	나메- -, 세 왕 -	(밤):S2+M2,v4,6,t4
161①	김형두(1913. 남. 백령토민)	남 에 세 왕	S1,v1,t1.
165①	이근수(1923. 남. 백령거주)	남 의 세 왕	

〈154②〉에서 선소리꾼(메)은 북을 치면서 가창하였다. 메김소리 때는 “(*황)천 (*길)이, (*먼) 줄으으을 (*알)았더니”처럼 수사(隨辭)장단으로 북점(*)을 넣었다. 받음소리에서는 내재4박장단에서 매박에 북점을 넣되 메김소리 뒤에 받음소리가 일제히 같이 나오기 쉽도록 첫박엔 겹북을 쳤다. 실황녹음시엔 집마당을 돌며 남의세왕 가창 끝에 선소리꾼이 길게 한마디 넣었는데, 이는 마무리 짓고 길을 떠나며 〈네거리 넝청〉으로 돌린다는 신호가 되었다. 길가다 잠깐 쉰 다음 다시 갈 때도 〈남의 세왕〉으로 시작하였다.

(4) 네거리 넝청 〈섬 154③, 156①, 158②, 160②, 165②〉

대청도에서의 실황녹음인 〈154③〉과 연평도의 〈156①〉을 제외하고는 백령도에서 수집하였다. 그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 “네 호 네 호,/ 네거리 넝청 네 호”가 보다 일반형이다.⁴²⁾ 전국의 두마디 넘차류 운상소리 중에서도 ‘네거리 넝청’형은 백령도나 대청도의 특색으로 보인다. 〈156①〉은 일반형의 후반부가 없는 격이다. 〈160②〉는 일반형의 ‘네호’대신에 ‘에이 용’을 넣고 있다.

〈154③〉 네 호 네 호,/ 네거리 넝청 네 호
〈156①〉 너 너허허 너후 너호
〈158②〉 혜 혜호 네 호호/ 네거리 넝청 네 호호
〈160②〉 에이 용 에이 용/ 네거리 넝청 에이 용
〈165②〉 네호호 네호호 네 호,/ 너허리 넝청 네 호

(메)와 (받)이 각각 3소박4박(12/8박) 2마디씩이다(〈156①〉의 받음소리만 1마디). 음조직은 다양하며⁴³⁾, 기음중지가 중간음중지보다 약간 많다(t1>t3, 4). 기음과 중간음을 요성하는 경향이지만, 〈156①, 158②〉는 중간음요성(v4)이다.

(5) 흙 가래질 〈섬 154⑤, 157①, 158④, 159③, 161②, 162, 164, 165③〉

대청도 〈섬 154⑤〉와 연평도 〈157①〉를 제외하고는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그 받음구 예는 〈표 6〉과 같다. 〈섬 154⑤〉는 장례 전날 예행연습 때의 녹음이다.

광안에 넣을 흙이나 봉분을 쌓을 흙을 삽질하려고, 긴 손잡이 막대가 달린 가래삽으로 흙을

42) 강원도 정선군의 평길운상소리는 “너 호 너 호, 너화 넘차 너 호”계통의 두마디 넘차류가 대표적이다(이소라,[정선민요론]정선문화원, 2005년. 40쪽/[강원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4. 9~27쪽). 충남지방은 非넘차류가 더 우세하다(이소라, [충남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3. 10쪽). 경북은 상주를 비롯한 보다 서쪽지역에서 非넘차류가 더 우세하다(이소라, [경북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1. 17쪽). 경남지방에 관하여는 필자의 [경남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6. 25쪽.

43) 〈154③〉은 (D3.v1,3.t1)+(M1.v1,4.t1), 〈156①, 158②〉는 L1.v4.t1. 〈160②〉는 D2.v1,3.t3. 〈165②〉는 S1.t4.

펴면서는 가랫대를 잡은 사람이 소리를 멜이고, 가래줄을 당겨올려 삽의 흙을 비울 때는 양쪽의 줄꾼이 받는소리를 한다. 흙을 퍼올릴 때 손이 맞지않으면 삽이 뒤통거려 제대로 흙을 퍼 쏟을 수가 없게되므로, 흙가래질소리는 동작을 가지런히 하여 일을 능률있게 하고 피곤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흙가래질소리는 받음구에 ‘가래’류의 어휘가 들어감이 일반형인데, 〈표 6〉에서 보면 “에 일성 가래 요”가 본서 섬지역의 일반적인 받음구이다. 백령도 토민의 경우를 보면, (메)와 (반)이 각각 3소박4박(12/8박) 1마디씩이다. 음조직은 다양하다.

〈표 6〉 봉분 가래질소리의 받음구 예

〈섬〉	가창자(출생년도.성별,지역)	받음구 예	비 고
154⑤	최봉오(1905. 남. 대청도민)등	에 일성-, 가 래요	M4+(D4.v1.t1)
157①	백만옥(1924. 남. 연평도)등	에 - 헤헤애애에, 응헤--가래요	*참고용
158④	김태옥(1922. 남. 백령토민)등	에 일성 가래 요	12/8메밭1마디씩. (L4.v1,4.t1)+(S1.v4)
159③	정응현(1912. 남. 백령토민)	에엥 서엉 가래 요	12/8메밭1마디씩. M1.t1(3).
161②	김형두(1913. 남. 백령토민)	애해 엉청 가래 요	12/8메밭1마디씩. S.v4.t1.
162	변정혁(1933. 남. 백령토민)	에 일성, 가래 요	(받):내재4박1마디. R2.v1,4.t1,4.
164	최진성(1912. 남. 백령피난옴)	에 일서-, 허엉 가래 야	M1.v4.t4.
165③	이근수(1923. 남. 백령거주)	엘 서엉,가래 헤요	R2.t4.

(6) 달구 〈섬 154④, 155②, 156②, 157②, 158③, 159④, 160③, 161③, 163②〉

〈섬 154④〉는 대청도에서 장례 전날 예행연습 때의 녹음이다. 〈섬 155②, 156②, 157②〉는 연평도에서, 〈섬 158③, 159④, 160③, 161③, 163②〉은 백령도에서 녹음하였다.

받음구 예를 보면, 〈섬 154④〉의 “에헤 에헤이 달구 요호”처럼 달구 형이 다수 〈155②, 156②, 157②, 158③, 161③〉이다. ‘달고’형 〈160③〉과 ‘덜구’형 〈159④, 163②〉도 있다. 〈157②〉의 연평도 주민들은 이따금 ‘달구요’ 대신에 ‘좋다’를 섞기도 하였다.

(메)와 (반)이 각각 3소박4박(12/8박) 1마디 씩이지만 메김소리를 2마디로 가창한 예 〈156②〉도 있다. 계재한 7곡중 미선법계열(M)이 그중 많아 4곡이며,⁴⁴⁾ 도선법(D)과 솔선법(S)은 각각 2곡이다. 기음 또는 중간음 종지(t1,4)의 경향이다.

44) 〈섬 154④〉M1.v1,4.t4g. 〈155②〉S1.t1-2. 〈156②〉L4.v4.t1. 〈157②〉D1.v3.t1. 〈158③〉M.t1g.
〈159④〉M.t3. 〈160③〉M1.t4. 〈161③〉S4.v1.t1. 〈163②〉D1.v3,6.t1.



사진32. 곱새치기 실황 1987.11.23. 대청도)



사진33. 운구(대청도)



사진34. 상여에 싣기(대청도)



사진35. 상여에 싣기(대청도)



사진36. 발인제 준비(대청도)



사진37. 발인제(대청도)



사진38. 운상시작(대청도)



사진39. 선소리꾼 최봉오(1905년생)
(대청도. 1987.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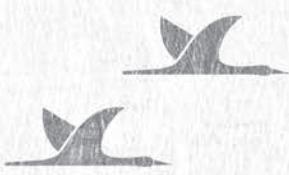


사진40. 운상(대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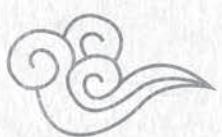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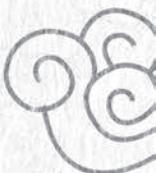


사진41. 운상(대청도)





악보



〈섬 1〉

옹진군 대청면
대청 5리

노 젓는 소리

창: 최봉오 (1905년생.남.토민)

김영옥 (1906년생.남.
대청 4리 토민)

素 87-11-23 B

$\text{j} = 78$

(최) ○ 좌우 변적 걸린 괴기는,
우리 동서 — 사귀던 찍일세

○ 양산 백이 춘향이는, 술 받으러 갔지만,
아니 온다 어디여차

〈첨 2〉

옹진군 대청면
대청5리

노젓는 소리

최봉오 (1905년생.남.토민) 창
素 87-11-13-2 B

* 닫 올리는 소리도 같음 .

$\text{♩} = 150$

에 — , 여차 아 이 — 여차 ,



이이이 이 — 이이이 이이여 — 어야, 어이여, 어야 잉여아, 에이여,
에이여 — 에이여차, 좌우이 변정 — 걸련괴기는, 우리동서 — 잔치감일세,
에잉허어 —, 어어혜야, 어허리여 어야 예여차

〈섬 3〉

옹진군 연평도
서부리

노젓는 소리

* 참고용.

$J = 55$

(매) 조희준 (1928년 생.남.토민)
(발) 황명의 (1931년 응진군 불구면
도화리 출생.남.연평도로
피난.서부리 거주)
권장성 (1931년 응진군 동강면
금산리 출생.연평도로
피난.서부리 거주)

素 88-7-10-2 A

(매)

영 어 — 져 에 엥 어 — 어

(발)

어 — — 애

(매)

어 어 어 와 자 —

(발 1)

어 와 어 와 디 야

(발 2)

어

(매)

어 와 — 어 거 어 어 어 —

(발)

어 와 디 야 어 와 디 야

(매) 어 에 애 어 이 기 여 —

(발) 어 와 디 야

(매) 거 워 어 와 자 앵 어 차 —

(발) 1 어 와 디 야 어 와 디 야

(발) 2 어 거 — — — — 어 — — 에

(매) 에 어 거 아 디 여 차 / 어 거 아 차 어 아 자 아

어 거 아 어 — 어 / 어 거 아 지 여 차 / 어 기 여 디 여 차

조 기 가 눈 앞에 걸 렸 구 나 / 어 아 자

〈첨 4〉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까나리 배 노젓는 소리

창 : 정 응현 (1912년 생.남.토민)
장면주 (1919년 생.남.토민)
素 87-11-25 B

$\text{♪} = 150$

(정) 어 야 — 디 여 (장) 어 야 디 여 차 — 아 —

(정) 어 와 도 야 (장) 어 야 — 디 여 라 아 — — 어 — 야 아

(정) 야 하 (장) 단 말 리 저 라

(정) 어 야 디 야 (장) 물 때 넘 어 간 다 (정) 어 야 디 야

(장) 어 야 — 디 여 차
(정) 어 야 디 야

(장) 어 야 — 디 여 차
(정) 어 야 디 야

(장) 어 기 야 디 여 어 어 야 앙 어 야 하 '
(정) 어 야

〈섬 5〉

옹진군
백령도 연화리

노 젓는 소리

김태옥 (1922년생.남.토민) 창
素 87-11-26 B

$\text{♪} = 150$

어 야 디 야

닻 감 아 라 - 아 하 닻 슬 감 아 하

어 야 디 야

우리 동네 다 물려 와서 어 야 디 야
닻을 감아라 어 야 디 야 노를 젓자 어 야 디 야

어야 차차 치여 차차 어 야 디 야
돈을 벌려 -, 우리 간다하 어 야 디 야

어야 차 차하야 노를 저라 어 야 디 야
어야 디 야 어 야 디 야

〈설 6〉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대후리) 진망끄는 소리

정웅현 (1912년생.남.토민) 창
주 87-11-25 B

* 배다리 : 물 아래 사공 . 무다리 : 물 위 사공

- 어야아 디여차 — 디야 ~아 , 어야 , 디야 ~어 ,
— 말로 이음 — "야 저 무다리 , 딘다 , 무다리 뽑아라 "
- 에야 디야 ~ 어기야 차 어 ~ , 어 야 어 임 어야

$\text{♪} = 150$

어 하 아 — — 아 — 어 이 디 야

어 기 야 차 디 야 아 아 — 에 임 어 야 하

무 다 리 뽑 아 라 — — 어 — 어 — 이 — 에 야 —

어 야 하 (어 야 디 야)

: * 다른 사공

- 배다리가 지누나 ~ 아 , 어야 — 이 디야 , 어야디야차 ,
어기야 디야 ~ 어 야 , 배다리 뽑아라

〈설 7〉

옹진군 백령면
진촌 2리

그 물당기는 소리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창

1. 素 87-11-24-1 B
2. 素 87-11-27 A

1.

$\text{♪} = 150$

어 야 디 여 차 에 — 이 여 — 어 — 야

어 야 어 야 디 야 아 어 허 야

2.

$\text{♪} = 150$

어 야 디 여 차 어 허 허 이 예 어 허 이 야

〈섬8〉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그 물 뽑는 소리

변정혁 (1933년생. 남. 토민) 창
녹음 & 채보 : 이소라
(87-11-25 A)

$\text{♪} = 150$

어 그 야 디 야 어 이 야 디 야 영 오 오 오 오 -
달 은 밝 고 - - 을 면 당 안 데
고 항 산 천 초 목 생 각 이 - -
간 절 하 구 나 - - 어 야 뒤 야
어 그 야 뒤 야 아 -- 어 오 - 오 야 뒤 야

배격에 살찌는, 죽으라고 어야디야,
우리네 마루 배에~ 어야디야, 사람의 정이란 어야디야

사랑의 사랑, 어야디야, 어그야 디야 어어~, 어야디야,
어기야디야차 디여, 노를 젓자

〈섬 9〉

옹진군 연평도
서부리

그 물 끌어 올리는 소리

(메) 조희준 (1928년생. 남. 토민)
(받) 황명익 (1931년 옹진군 봉구면
도화리 출생. 남. 연평도로
피난. 서부2리거주)
권창성 (1931년 옹진군 동강면
금산리 출생. 연평도로
피난. 서부리거주)
素 88-7-10-2 B

- * 전체 리듬은 6/8박을 단위로 (메)와 (받)이 바뀜이 원칙.
(메)는 (받)동안에 소리하기도 하고 받음소리꾼 중에서
따로 별개로 메김소리꾼처럼 불러나가기도 함.
- * 가래질소리는 (메)가 의미구 인데 비해
그물끌어 올리는 소리에 선뜻 없는 입말이 기본임.

(메)	에 야 디 야 차	(받)	어 야 라 디 야
(메)	에 야 저 어 —	(받)	어 야 라 디 야 차 차
(메)	에 — 이 저 어	(받 1)	어 야 라 디 야 차
		(받 2)	어 어 — 에 —

♩ = 50 ~ 60

Musical score for two Korean phrases. The top section, labeled '(매)', consists of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lyrics '어 에' with a fermata over the second note. The second measure has lyrics '에 -'. The bottom section, labeled '(발)', also consists of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lyrics '에 야 디 여 차'. The second measure has lyrics '에 야 라 디'. Both sections are in G clef, 2/4 time, and F major (4 sharps). Measure endings are indicated by small numbers above the notes.

(매) 자 아 이 에 (발) 아 기 야 차 차

〈섬 10〉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닻을 리는 소리

정율현 (1912년 생.남.토민) 창
奏 87-11-25 B

(외침) "자 — , 닻을 뽑자 "

$\text{♩} = 150$

어 야 뒤 야 어 야 뒤야 차 어 야 뒤 야 차
어 기 야 디 야 어 — — 어 — 야 양 어 야
참 바 리 뽑 아 라 물 다 들 어 간다 어 야 뒤 야
어 야 디 양 어 야 디 야 차 어 — 어 야

〈첨 11〉

옹진군 백령면
관청동

닻감는 소리

창 : 김칠보 (1928년 장연군 봉금포
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 나옴)
이근수 (1923년 용진군 서면
장포리 출생. 관청동 거주)
생 87-11-27 A끝



〈섬 12〉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술비소리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창
녹음 & 채보 : 이소라(87-11-27A)

— 까나리 올릴 때 —

$\text{♩} = 100$

어 야 넝 청 술비로 —다

어 넝 청 술비로 —다

술비 소 리 날 때 마 —다

까나리 만 기 여 올 라 오 네

〈섬 13〉

옹진군 대청면

까나리 펴실는 소리

최봉오 (1905년생. 남. 토민) 창
素 87-11-13-2 B

* 가창자의 사위인 백정의가 녹음 협조를 하면서,

"대후리 하실 때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하자

그때는 "어야 술비지"라고 대답함.

백정의는 "조 경국 아저씨가 잘하였다"고 함.

$\text{♪} = 150$



어야 라 — 이여 — 아이 — ,

에 — 여 — 아이, 에 았 라

〈섬 14〉

옹진군 연평도
서부리

가래질소리 (어로요)

(메) 조희준 (1928년 생.남.토민)
(발) 활명익 (1931년 옹진군 통구면
도화리 출생.서부리로 피난옴)
권장성 (1931 옹진군 동강면
금산리 출생.연평도로 피난)

素 88-7-10-2 B

* 양력 5,6월에 연평 조기 잡는다.

* 조기가 그물에 가득차 있을 때, 가래로 배에 끌어올리면서 부른다.

(메) 달은 밝고 ~, 명랑도 한데

:

(발) 어 이 저 어 야 라 자 차 자

(메) 조 기 나 멋 있게 , (잘도)나 간다

:

(발) 어 야 라 자 차

(메) 어 야 디 여 ~ 예 이 야

:

(발) 어 기 여 디 여 어 야 라 자 차 자

J. = 75

이 바 다 느 — — 은
여 야 라 드 쳐 —

누 구 네 바 다 냐
예 야 — 디

(메) 조 기 퍼 실 기 가 — — — 에 이
 (발) 어 야 라 자 차 자 하

(메) 재 미 가 난 다
 (발) 어 야 라 저 쳐 — 하

(메) 어 여 — — — 3 —
 (발) 어 기 야 — 자 차 아

(매) 고사리 밖에서 ~ 청재미 만났다 어해야, 어 앞판 우구려 ~ 잘디며 간다 어해야
빨리 빨리 퍼실고 ~ 인천으로 건너가자
어야 디여 ~ 어해야

우리 배가 ~ 만셨 했네 ~ 어야 ~ 어야 디야 차 ~

* 밭을 소리꾼 중에서 "어야 술비야"를 섞기도 함.

〈섬 15〉

옹진군 연평도 서부리

에밀량 (배치기)

창 : 조희준 (1928년 생. 남. 토민)
황명익 (1931년 응진군 봉구면
도화리 출생. 남. 연평도로
피난. 서부리 거주)
권장성 (1931년 응진군 동강면
금산리 출생. 연평도로
피난. 서부리 거주)
안창길 (1924년 생. 남. 토민)

* 단순 악기로 가창한 것.

素 88-7-12 A

J. = 46 - 55

(조희준)

연 평 장 군 님 고 이 고 속

연 평 장 원 으 을 우 리 를 춥 시 다

(임말)

어 — 어 예 에 에

에 에 어 — — 어 — 어 예

에 — 어 어 — — 하 요 — ㅇ

2. 임애 수애를 닻 주는 이
어드려 밖에서 달 등실 떴다
어허 어 헤 — 애 헤
어허 어 헤 어 어어 어 어
어에 어 어 어 하 요

3. 뱃 집 이 아주 마 이 정 성 덕 에

연 평 장 월 을 우 리 가 했 네 -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어 - - 어 - 에 에
에 - 어 어 - 하 요

4. 저 정을 벗은 지난 복을
오월 파주까지 내 눌러 췄다 / (입말)

5. 본 당 장 군 님 모셔 실 고

칠 산 바 다로 돈 실 러 가 자 -

어 어 어 에
어 어 어 어 - 아 - 아 아 - 하 요 호

〈섬 16〉

옹진군 연평도
서부리

에 밀 량 (배 치 기)

* 앞쪽 가사 미채..

* 의미구 2마디, 입말 3마디 뒤에
기약 4마디가 기본 패턴이다.

(메) 조희준 (1928년생. 남. 토민)
(받) 황명익 (1931년 옹진군 봉구면
도화리 출생. 남. 연평도로
피난. 서부2리 거주)
권장성 (1931년 옹진군 동강면
금산리 출생. 연평도로
피난. 서부리 거주)
素 88-7-10-2 B

$\text{♩} = 80$

(메)

12 8

아 랫 동 웃 동 다 저 차 놓 고

<정>

<팽例>

가운데 동에 서북 치고 났다

허 어 에 에 해

어 어 어 어 어 어 허 어 어 어 화요

(* 정, 팽例는 앞의 입말 부분과 같음)

〈섬 17〉

옹진군 대청도
대청 5리

에밀령
— 봉죽타령, 배치기 —

최봉오 (1905년생,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 (87-11-13-2B)

- 삼십이 십일 중동에 발라라 애 — .
요 오 아 어 아 — 에 에 에요

$\text{♩} = 50 \sim 60$

어 야 차 디 야 창 닷 감 는 소 리

월 산 지 큰 애 기 봇 짐 을 차 렸 지

예 에 에 요 —

으 아 으 으 — 으 아 으 예

으 으 에 으 으 예 요

- 열기 설기 얹은 독에,
어느나 독에서 첫 맛을 볼까
어 어 애, 요 —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에 으에요
- 양 사태 모시고 양자를 싸고,
원복천 물명지 장원을 좋지
어 어 애, 에요 —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에 으에요

〈첨 18〉

옹진군 대청면
대청5리

배치기

(본문) 최봉오 (1905년생.남.토민)

(후렴) 김영옥 (1906년생.남.)

대청4리 토민)

최봉오 (1905년생.남.토민)

素 87-11-23 B

$\text{♩} = 50 \sim 60$

* 기약

〈섬 19〉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봉죽타령

정 응현 (1912년 생.남.토민) 창
주 87-11-25 B

= 46 ~ 49

봉 죽 을 질 렸 다 봉 죽 을 질 렸 다

이 물 때 고 잔 해 봉 죽 을 질 렸 다

에 해 — 해 어 — 어 에 해 요 ,
어 어 — 허 요

〈섬 20〉

장연군 응금포
웅진군 백령도 관청동

봉죽타령

김철보 (1928 응금포출생.남.
백령도로 피난옴) 창
주 87-11-27 B

○ 아 질렸다, 봉죽을, 질렀네
고군포 포구에, 봉죽을, 질렀구나 —
처에 — 어 허 아 야

$\downarrow = 40 \sim 45$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three sharps) and 12/8 time. It features four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underneath each staff. The lyrics are as follows:

- 장 산 곶 마 르 에 오 르 는 희 학
- 내 지 는 흥 안 을 고 봉 포 선 창 으로
- 다 되 여 끌 었 다 에 — 야
- 에 어 허 에 혜 요

〈섬 21〉

옹진군 대청면
연화1리

봉죽타령

창 : 김태욱 (1922년생. 남. 토민)
素87-11-26B

- o 해야 디야 해야디야
동산에를 다 모여 들었다,
지화자 좋다 해해 -,
어 허 허어 허요

- o 봄이나 동산은 담뱃술 먹어두
우리나 동산은 고리술 먹자
자헤이 해 -, 해이에
헤아 어허요

〈섬 22〉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에 용 (논암)

김진순 (1915년생.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 (88-7-12 A)

$\text{♩} = 37 \sim 43$

(발) ↑

$\text{♩} = 37 \sim 43$

$\text{♩} = 67 \sim 60$

(매)

에 용 에 용 에 해 요 홍
에 - 애 이 애 에 용
오늘 해 두 - 요 -
어느 때나 - 됐 - 는 지
다시 쌀 쌀 하 구 - 나
에 용 에 용 에 요 홍
에 - 이 애 - 용

〈섬 23〉

옹진군 연평면
중부리, 서부리

논매기 (호미)

정관석 (1926년 중부리 출생.
님. 서부리 거주) 창
曲 88-7-10 - 2 A

- * 손으로 훔칠 때도 소리는 같다.
- * 10~15명이 함께 논했다.
- * 조부께서 해주에서 입도함.

$\text{♩.} = 40 \sim 50$

에 용에 - 용에 - 요 호

에 헤에 이에 헤요

에 용에 - 용에 - 요 오

에 에 - - 이에 - 요 -

청천 하늘에 - 별도 많다

〈섬 24〉

옹진군 대청도
대청1리

자진난봉가 (논암)

창 : 오상덕 (1923년생. 여. 토민)
손엄전 (1916년생. 여. 토민)
이부자 (1924년 장연군 해인면
출생. 여. 12세에 대청 이주)
주 87-11 13-2 B

(이) ○ 에해—못살갔네, 못살갔네
시집에는 살에는 '나 못살래라

: (소리마중 나옴.tutti.)

$J = 60$

에해—못살갔네, 못살갔네
시집에는 살에는 '나 못살래라'
: (소리마중 나옴.tutti.)

$J = 60$

에해—
시집에는
'나
못살래라'

으야
아—
양
으야
아—
아로
오—
으으으으
다

으야
야
라
호
야
디야—
—
라—
—
—
라

내—
—
—
—
사—
—
—
—
라아—
—
왕
아

논다나—
—
—
—
매구요—
—

발다
나—
—
—
매—
—
고

칠월
—
이
나
오
며
—
허느
으
은

tutti.

- (이) ○ 밭으로 나며는 바랭이 아강 원수,
집으로나 들며는 시어머니가 원수, / (후렴)
- (오) ○ 이내 소식 못들어서 안달이 날줄 알았더면,
뚱딴지 밖에다 임의 소식을 전할 걸 / (후렴)
- (오) ○ 청춘이 가구서요 백발이 올줄 알면,
십리나 밖에다 가시성을 쌓걸 / (후렴)
- (오) ○ 해나려, 가누나—○ 해나려 간다,
열락은 서산으로 해 넘어 간다 / (후렴)
- (이) ○ 천리가, 되여서 천리라 하고 보았나,
석정봐두 넘어도 못보는 천리로다 / (후렴)

〈섬 25〉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논김매기 (자진난봉가)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창
이소라 채보 (87-1-24-1 B)

* 김형두는 3대전에 해주에서 입도함.

$\text{♩.} = 75 \sim 6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G clef, 12/8 tim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 Staff 1: 세사 - 앙만 - 사으복 만식 - 한 - 데
- Staff 2: 다 - 시 정자지 는 꿈 밖이 - 로 - 다 -
- Staff 3: 에 헤 에 - 이에 에 어 야 - 로 - 다
- Staff 4: 어 야 디 야 - 디 - 야로 - 내 사 랑 이 라

○ 사랑은 가구요 / 임들조차 다가면
요 세상 백년을 / 누굴 믿고 사나

애 헤 애 이에 애 / 어 야로 다
어 야 디 야 두둥둥 / 내 사랑 이 라

〈섬 26〉

웅진군 백령면
진촌1리

난봉가 (는김)

1. 김경신 (1925년 생.여.토민)
2. 백순옥 (1925년 생.여.토민)
3. 박춘매 (1928년 생.여.토민)

素 87-11-24-1B

1.

○ 우리가 ~ 살았으이끼이, 소리두 드만 하지,
죽고나 병들면 요령 만동 하간

에행 애해 혜 허영 어허야
어럼마 두동동, 니가 내 사랑아

2.

$\text{♪} = 150$

김다 - 아하매고 - 호서 - - - -
육칠 - 팔월 - 되 - - - 면
우리 엄만네 집이 가하서 - - -
떡으 흘 해가 주구후 가 - 했네 - - -
에 - - - 엉 에 - - 해 - - - 엉

어 - - 어 -- 허 야 - - 로 - - 다
 어 야 하 디 야 - 디 여 허 로 - - -
 나 는 -- 못 살 - 갔 -- - 네 - - -

3.

- 복 타리 갈적에는,
 어드메 가서 들렸다,
 요런 복 타구 나서야,
 밭 이랑을 타는 지 ,
 어야 디야, 어허 형 영 ,
 영 어허야 디 야 ,
 일었다 슬쩍 놀아지면 ,
 봄 철이 , 돌아옵니다 (좋다)

〈섬 27〉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어하나 등등

이순덕 (1928년 이복옹진군
순이도 출생. 여, 3세 애
백령(일도)창
素 87-11-26 A

$\text{♪} = 150$

헤 해 애 에 헤 애
어 하나 등 등 내 사 랑 아
논 다 나 매 구 요 발 다 나 매 구
육 칠 월 되 며 는 어 마 네 집 애 나 가 잔 다

(밤) 해 — 해 애 · 에 해 애,
어하나 등등 내 사랑아

(매) ○ 저 게 마 저 총각, 꽂 비는 총각 아,
눈치가 있거든, 을 받아 먹어라

〈섬 28〉

옹진군 대청면

김매기

오상덕 (1923년생, 여. 토민) 창
奏 87-11-13-2 B

1. $\text{♩} = 43 \sim 50$

2. $\text{♩} = 43 \sim 46$

- (매)
- 가득으나 심란한데 / 친정의 오라바이 왔다 갔나
 - 차풀이는 채떡을 치고 / 맷돌이는 맷떡 치고
 - 양카이는 잡아서 아랫침 치고 / 웃카이는 잡아서 웃침을 치고
 - 칠월이 오며는 친정엘 가(지) / 석달에 장마나 또 오질 하네
- (발)
- 석달에 장마를 겪구나 나면 / 엄정 다리 뿐 또 돌라쳐라
 - 엄정 다리를 않구나 나면 / 이질 배루나 또 돌라쳐요
 - 꼬주나 당초가 맵다고 한들 / 시집살이 있어 더 매울 소냐
 - 못 살래더라 못 살래더라 / 시집의살이는 나 못 살 갔네

〈섬 29〉

옹진군 백령면
진촌 1리

김매기 (청춘가 곡풍)

최성화 (1916년 생.여.토민) 창
奏 87-11-26 B

$\text{♩} = 40 \sim 60$

김다 매구 서 허 어 -
칠팔월 되며 느 으 은
머리곱게 빚고 서 - - 허
용포란 두세 노 - -

"꼴두잽이들 갑시다 하 - "

- 아이구 답답 형포란아 하 아아아아
나 죽는거 모르고 호 - ,
자래 보십 옆에 끼고 오호 ,
도망 가는 것도 몰랐더냐

* 진촌 1리에서는 김맬 때 주로 위의 곡으로 불렀고 <어하 등등>은
흔하지 않았다. <어하 등등>은 진남포쪽 소리이다. (최성화) 素 87-11-26 B

- 어하나 등등 내 사랑아 ,
일지나 없으면 진토장 먹지 ,
갈기나 점이를 이나두 갔나
어하나 등등 내 사랑아

〈섬 30〉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김매기(청춘가 곡풍)

이순덕 (1928년 이북 옹진군
순이도 출생. 여, 3세에
백령(白嶺) 입도) 창
素 87-11-25 b

$\text{♪} = 150$

한이랑 길따구 - - - -
군소리를 말 - - 구서 - - - -
호매나 - 뒤손 - 으 - 을
곤놀려 주 - 려마

〈섬 31〉

옹진군 백령면
연화1리

김매기 (청춘가 곡풍)

김태옥 (1922년생. 남. 토민) 창
素 87-11-26 B

$\text{♪} = 150$

치매로 오을 벗어 - 서 - - 허어 -

방창으 을치구 - 요 호호이

아기잠 자다 - 가 좋 - 다

바람이 문그었네 헤에

- 하나 누구이 고호,
하는 줄을 누구인데,
갓 마주 셨다가 좋다
뒤 돌아 시느나

〈섬 32〉

장연군 백석동, 무파동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모심기 소리

최진성 (1912년 백석동 출생. 남.
낳자마자 무파동 이주.
남포2리로 피난나옴) 창
素 87-11-24-2 A

$\text{♩} = 150$

A musical score for the Korean folk song '애여 허하'.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treble cle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The first staff has lyrics: '애 여 허 하 혜 혜 애 이에 요'. The second staff has lyrics: '온느 흐 흘은 우리 모 하는 날 인 데'. The third staff has lyrics: '동 시 천 한 량 들 다 모 여 드 시 요'. The fourth staff has lyrics: '애 혜 이 에 혜 야'. Measure numbers 1, 2, and 3 are indicated above the second staff.

* 1절만 부른다며 그쳤으나, 여럿이 받는 소리를 해 달라는 요청에 다음을 가창함.

A musical score for the Korean folk song '우리 일동 이다 십어 보세'. The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written below them. The lyrics are: 아하아하에 헤이에요 우리일동이다십어보세. The music features various note values and rests, with some notes having stems pointing up and others down. There are also several grace notes and a fermata over the eighth note of the first measure.

〈섬 33〉

옹진군 서면 장포리
옹진군 백령도 관청동

모심기

이근수 (1923장포리출생.남.
백령도로 피난옴)창
素 87-11-27A

$\text{♩} = 50$

$\text{♪} = 150$

(예)
오 늘 해 두 야 어 브 때나 되 었 는 지

산 봉 마 다 -- 그 늘 이 — 졌 구 나

(받) 애 용 애 용 애 헤 용

〈섬 34〉

장연군 무파동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옛 논김매는 소리

창 : 최진성 (1912년생.남.무파동에서
1살부터 살다가 남포2리로
피난 나옴)
주 87-11-24-2 A

$\text{♪} = 150$

* 음정이 내려와 어색하게 들림.
C.P

청천 하 날 은 별 두 나 마 하 느 은 데

우리 나 농 사 느 은 일 꾼 이 없 느 허 냐

어 야 디 야 혜 혜 야 에 에 야 디 야 라

모 두 다 내 사 랑 이

내 일 두 모 레 는 우리 집 을 매 오 니 -

동색전한량들
다모여만두들어라
C.O

— 말로 다음을 이었음 —

- 빨리 김들 매야, 이거 얘기 장단에 수박 타령만 도야 ?
 - 우리가 김매기 위해서 하는 얘긴데, 왜 왜 자꾸 얘기만 해야 !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starts with a dynamic π , followed by a dotted half note, a whole note with a dot, a eighth note, a sixteenth note, a eighth note, a sixteenth note, a eighth note, a sixteenth note, and a eighth note. The lyrics "음 흡 이-해 여 뒤 여-라"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bottom staff starts with a eighth note, followed by a eighth note, and a eighth note. The lyrics "모 두 다 우 리-한 량 이 라" are written below the notes.

〈섬 35〉

장연군 무파동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논김매기

창 : 최진성 (1912년 생. 남. 무파동에서
1살부터 살다가 남포 2리로
피난 나옴)
주 87-11-24-2 A

$$\text{♩} = 150$$

〈섬 36〉

장연군 해안면
옹진군 백령도 연화1리

장연군 김매기

김태형 (1920연화리출생.남.
여나무살에 해안면 살다
32세에 연화1리 입도) 창
주 87-11-26 B

애 하나 등등 내 사랑아 ,

김 두나 다 매구 밭 두나

$\text{♩} = 150$

다 매 구 육 칠 월 되 며 는

동 고 리 타 당 해 가 지 고

엄 망 해 집 에 나 갔 다 나 앙 오 오 자
<마 네>

혜 에 에 오 음 어 야

어 화 나 등 등 내 사 랑 아

〈섬 37〉

장연군 응금포
옹진군 백령도

어하나 등등

— 황해도 남녀 김매기 —

김칠보 (1928년 응금포 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 나옴) 창
素 87-11-27 A (11.23 녹음)

$\text{♪} = 150$

어화나- 등등내 사으아랑- 하-
어---여아황어아하아야
업만네 집은야한겨집- 헤간만
가구불댁 못- 가니 수천만리로
구와아은당에 해야에- 에흥아야-
어화나- 두- 등등내 사랑- 아

〈섬 38〉

평북 안주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논김매기

김이선 (1920년 안주출생.남.

15세에 백령 입도)창

녹음&체보 : 素 87-11-24-2A

$\text{J.} = 48 \sim 55$

에 헤 야 데 헤 야 예 헤 이 야 하
어 야 라 난 다 지 화 자 자 좋 — 지
아 니 끈 — 지 끈 — 매 잔 — 다

○ 노자 노자 젊어서 노지,
늙어나 지며는 못 한 단다

에 헤 어 형, 어지야로 다 — ○
어 함마 동기 디야로 몽땅 내 사랑 떴지,

월 수 다 — 에 월 수 다이 호 미 자 자 루 가 월 수 다
족 잃는 거 보 단 내가 이 머 리 도 아 프 고 월 수 다
에 헤 에 어 헤 어 헤 영 어 양 헤 로 — 다

어 학 라 으 두 부 차 몽 땅 내 사 랑 이 지 라

〈섬 39〉

평남 진남포, 용강 온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 3리

기아리 (조발 매기)

김병일 (1918년 남포출생. 남.
21세까지 살다 온천 이주.
32세 때 백령도 피난) 창
曲 87-11-25 B

* 용강군 온천은 발벼가 많다.

$\text{♩} = 150$

이랑도길고서에 허-허어
다왕산도호와비-하아하
조방이사립으이앵에노-으언
왜이렇게 날-나-요-
어하이공어하이고으홍성화-로고나

*(김병일): 서천엔 조개가 많다. 조개 가사도 긴아리와 같은 곡이다.

조개는 <잡아> 서---



가는 님 잡아 어 — — 선 ,
품이 다가 옆 자 ,

어 하이공 , 어 하이공 성화로구나

〈섬 40〉

황해도 풍해면 초도
옹진군 백령면 진촌 3리

김매기

* 초도, 진남포.

$\text{♩} = 43 \sim 48$

안명삼 (1922 초도 출생. 여.)

동네 혼인. 1930~40년대에
진남포 거주. 9.28탈환 시에
초도에서 3년 거주 후
백령 입도)창

이소라 차보 (87-11-26A)

Musical score for '김매기' in G major, 12/8 time. The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with lyrics written below each staff. The lyrics are:

- 얼령에 덜령에 김다나매 고호
- 육칠월 되며는 엄만네집이나가자
- 야하에 헤어하라디야라
- 정말좋네

〈첨 41〉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저리소밭갈이

장면주 (1919년생.남.토민) 창
녹음&채보 : 素 87-11-25A

〈섬 42〉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저 리 소 밭 갈 이

1. 변정혁 (1933년생. 남. 토민) 제보
2. 김이선 (1920년 평북 안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 입도) 창
素 87-11-25 A

* 예전에도 밭은 소 2마리로, 논은 1마리로 갈았다.
왼쪽 소는 <에나>, 오른쪽 소는 <마라>

1.

○ 이랴 ! 쫓쫓쫓쫓쫓쫓 , 마라로 ! 에나로 !
마루바지야 , 찍 찍 .

* 돌 때는 "도자 —" 한다.

2.

.. 앞의 음들은 반음정씩 높음 .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in G clef, 2/4 time,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first staff contains lyrics: '이랴 마 라 가 자 가 자 졸 졸 졸 걸 어 라 이 이 —'. The second staff contains: '너 도 심 들 지 나 도 심 들 지 만 이 래'. The third staff contains: '마 라 로 가 지 어 디 로 에 라 로 가 노'. Measure numbers 3, 3, and 5 are indicated above the first, second, and third staves respectively. A dynamic symbol 'π' is placed above the fourth measure of the first staff. Articulation marks and slurs are also present.

" 바로 가야 되야 "

" 해 지기 전에 너 먹을 건 짜반뜩 줄테니께
나도 심들지만, 어서 빨리 갈자 이랴 — "

〈섬 43〉

옹진군 대청면
대청5리

발갈이 (저리소)

창 : 1. 김윤근 (1922년생.남.토민)
2. 최봉오 (1905년생.남.토민)

주 87-11-23 B

1.

와 와, 와 와, 던제 민다 — ,
에나 에나 —

에나 마라 에나 마라 에나로 가지 왜 데구로 가냐 — ,
와 와, 슬슬 땡겨 — , 왜 이렇게 빨리 땡기면서
에나 에나 에나, 에나 에나,

$\text{♪} = 150$

마라 마라 마라로 가지 왜 이라로 가고 그려느냐

에라 도자 — , (돌아갔다),

에라 마라 — , 도자

2.

— — 도치 돌아 — —

〈섬 44〉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발갈이
*저리소

창 :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
素87-11-24①B

*오른쪽 소는 마라소 왼쪽소는 애나

오른쪽 갈 때는 “마라로” 왼쪽 갈때는 “애나로” 멈출 때는 “와”

* 3대전에 해주에서 입도하였다.

김형두는 60년전에 모심었다. 모내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이며, 1,20년밖에 안된다.

* 안내인 曰 ; <노루베기>란 씨뿌려가지고 그냥 키워서 먹는 것인데, 이거를 보구
살았다. 보리타작해서 보리를 삶아 먹으면서 농사지었다.

“이라” “애나로”

“마라 가자 마라”

“에헤 도자”

“와”

〈섬 45〉

옹진군 서면
옹진군 백령면

밭갈이

창 : 이근수
素87-11-27B

오른쪽으로 가라 ; “마라 마라”
왼쪽으로 가라 ; “에나 에나”
멈춰라 ; “와, 와”
돌아갈 때 ; “어이 도치” (돌아간 다음엔 “이라”)

〈섬 46〉

옹진군 대청면
연화1리

1. 밭갈이
2. 용두레

창 : 김태욱 (1922년생.남.토민)
素87-11-26B

1.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마라 – 마라로 가자 마라 마라
에나 – 에나로 가자 에나 에나,
마라소 – 마라 마라,
에나 – ”

* 돌릴 때 ; “도자 – 에나로 도자, 도자 – 에나로 도자”

2. “한나 넘어간다 한 나”
“돌이 넘어간다 둘 ”

〈섬 47〉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감내기

김형두 (1913년생. 남. 토민)창
素 87-11-27A

"이랴 이랴 —"

♩ = 150

은 박 이 신 짹 으 을 떠 들 떠 으 어 열 -

끄 호 열 며 있 는 곳 을 도

찾 어 나 가 - 하 - 볼 까 나

〈섬 48〉

옹진군백령면
진촌1리

감내기

창 : 박춘매 (1928년생.여.토민) ?
素 87-11-24-2A

$\text{♪} = 150$

헌 베 기 신 짹 을 털 - 털 --- 끌 고
건 네 짹 강 청 네 집으 로 가 - 세

〈섬 49〉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웅진군 백령도 연화1리

감내기

* 황해도 노래라고 함.

김태형 (1920연화리출생.남.
여나무살에 해안면 살다
32세에 연화1리 입도)창
素 87-11-26 B

$\text{♪} = 150$

몸 살려 몸 살려 - 몸 살려 - 가자한다
그렇다고 재산 많은 연열린 집 - - - 으로
몸 - 사으 으아 알로 가 - 보우오
C.P. C.O.
오 - 자

(달구지 끌며 소나 끌고가면서 막 실려가보자)

"이랴 - " "이랴"

○ 어서 어서 가자, 내 신생아 내 신생아 내 신생아 - 족 같은 - ,
칠십리 백리라도, 자탄말고 뛰어나 보자,

"이랴 - " "이랴" "어서 가자, 찌찌"
"여보 아주머니, 물 한모금 주시오, 속 타서 못 하겠습니다"

- 물을 깔꾹 한잔 마시고 -

"어서 가자, 너 먹을 거 내가 못 주었으니 미안하구나 이야 - 어서 가자"

○ 가자 가자 갈곳을 당도해야지,
너허강 차진나 차진님을 -, 다 하야 지내게,
눈실은 마음을 너도나 먹겠구나

"아주마니 짚 좀 주시오 신통내가 다 떨어졌으니,
짚 말라고 했지 십 달라고 했오,
아주마니 실례 했수다 내 말 발음이 틀렸죠"

○ 에 - 행 어허야, 미안한 말씀은 사과디리고, 장소에 갔다가
돌아실적에, 사과본데, 이 - 해 있다

〈섬 50〉

평북 안주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감내기

김이선 (1920년 안주출생. 남.
15세에 백령도 입도) 창

* 참고용. 素 87-11-25 A

- 이랴 ! 가자 가자 해 지는 곳은 서산에, 지고,
나과 너카 갈 길은, 집으로 — 가

여 보 여 보 해 지는 — — 건 나 도 알 아 — 도

 부 인 이 이 — 이 기 절 할 걸 — — 누 구 알 았 나

〈섬 51〉

장연군 몽금포 옹진구 백령면 관청동

감내기

김칠보 (1928년생.남.몽금포출생)

백령도로 피난옴)창

素87-11-27A

먹구나 - 먹고, 에헤 허어에 - 헤,
헤으어 - 허으 에 - 헤,
우리나도야 - 친구 동생끼리나도양,
한잔 먹고, 머 - , 어허 어 아 어, 어헤,
오늘 걸이 ~ 조흔 날인양, 어 - 어, 어 - 허아,
먹구지고, 오, 오흐다

〈섬 52〉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물레

장면주 (1919년 생.남.토민) 창
素 87-11-25 B

$\text{♪} = 150$

물레야 둘아라 으 가락아 둘아라
슬슬 둘며느 은 잘넘어 가는데

〈섬 53〉

옹진군 백령면
장촌리,복포리

물레

최순복 (1919년 장촌리 출생.여.
시집도 장촌리.
복포리 거주) 창.
녹음&채보 : 이소라
(87-11-24-2A)

$\text{♪} = 150$

물레야 둘아라 --- --- 빙빙 --- 둘아라
앓으나서 --- 나야 아 물레만도 누나

〈섬 54〉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물레

김형두 (1913년생.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 (87-11-27 A)

* 素 87-11-24 -1 B 첫 방문 때 .

- 물레야 돌아라, 가락아 돌아라 으으,
물레 가락으 으으은 살 살 도우는데, 애, 애
기지개 만 팔팔 나누나

♩. = 50 ~ 60

물레야 돌아라 아아아아하 으으으으흐
가락아 돌아라 아라아아으 으으
물-레 가-락으-
살 살 도우- 는데 에에
기 지 개 만 으 야 안 팔 팔 난 다-

〈섬 55〉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물레

창 : 김이선(1920년 평북 안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도 오심. 백령면 남포2리 거주)
素87-11-25A

- * 백령도에선 삼베를 많이 짜서 육지로 내보냈다.
- * 예전엔 보리밭에다 조를 많이 심었다.

- 장산곶 분문선율과 동류 -

○ 물레야 돌아라 – 물레야 돌아라,

붕 붕 기면서 ~ 물레야 돌아라,

○ 속캐가 못 돼두 내가 나 못 돼두,

물레만 돌며는 속캐를 뽑는다

○ 뽑구나 보느니 졸기도 하는데 ~ ,

시어마니는 졸구만 있단다,

○ 물레야 돌아라 – 물레야 돌아라,

속캐줄 나가는 건, 줄줄이 나가지,

막 가난 당신아간 장시간 없구나

물레야 돌아라 돌아라

〈섬 56〉

옹진군 벡령면
진촌1리

베틀노래

김경신 (1925년생.여.토민) 창
素 87-11-24-1 B

*발일하며 듣고 배운 노래

- 오늘이나 날도 심심한데 — ,
베틀이나 노래를 불러 보세
- 하늘엔 랑 베틀 놓고 ,
구름이나 속이는 Ying애를 걸고 ,
- 어르릉 도르릉 도투마리 ,
시르렁 자르렁 베 가리세
- 이 Ying이나 구부장이 세 쿠리는 ,
영바귀나 신짝이 웠다만 가네

♩ = 75

- 흥경나무 북 — 바디 집은 ,
얼려만 주어도 소리만 나네
- 오늘이나 낮도 반낮신지 ,
신자하 개미가 떠들어 오네
- 쇠두 나고 것도 난데 ,
고름이나 동정이 간 곳이 없네
- 서울 뒷 산 삼각산에 ,
구름이나 할머니 전학 왔네

〈첨 57〉

옹진군 대청면
대청1리

베틀가(일반형)

창 : 오상덕 (1923년생.여.토민)
素87-11-23A

〈섬 58〉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망질소리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 창
素 87-11-27 A

$\therefore = 50 \sim 60$

A musical score for 'Dulle La' featuring four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들려-라, 들려-라, 어기야망손을-둘려-라, 들려-기--느흔내가둘렸기이, and 한손에-한걸지만너만두수려마. Measure 1 consists of quarter notes and eighth notes. Measure 2 contains a sixteenth-note cluster. Measure 3 features a triplet bracket over three eighth-note groups. Measure 4 includes a triplet bracket over three eighth-note groups. Measure 5 has a triplet bracket over three eighth-note groups. Measure 6 contains a sixteenth-note cluster.

* 87-11-24 -1 B (첫 방문 때)

○ 둘 러 라 - 러 둘 러 라 - 라
에 헤 라 망손을 둘 러 - 라

둘 러 기는 내가 둘 러 끼,
낳 기 만 해 주 시 오

〈섬 59〉

옹진군 백령면
진촌 3리

망질소리

* 창부타령 곡풍

이순덕 (1928년 이복 옹진군
순이도 출생 백령 입도) 창
素 87-11-25 B

- 둘러라 둘러라,
망에나 망손을 둘러라
- 우리가나 둘러 곧 둘르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 이렇게 둘러서, 망질을 해 가지구,
우리가 해 먹구요 범벅두나 잘 먹잔다아

♩ = 50 ~ 60

먹구서 — 놀아요 — 굶어서 놀까 —
지존자석이 라도 먹으면 놀아요 —

- 아니 먹거 아니나 씌고
무엇을 도냥 하갔느냐 아아
- 우리가 늙어서 병이 들며는,
이것두 저것두, 다 소용 없고,
산천초목으로 가구 말아요
- 살아 생전에 먹구 노는 걸,
우리가 안어 질깁니다
- 열씨구나 좋아요 지화자나 좋네,
아니 노자는 못 하리 라

〈섬 60〉

옹진군 백령면
연화1리, 진촌1리

1. 망질
2. 자진 난봉가

창 : 김만옥 (1911년 연화리출생.
여. 진촌1리로 시집옴)
秦87-11-24①B

1. 둘러라 벽벽만 둘러라
망손을 둘 벽벽만 둘러라

2. 김이나 다 매구 칠팔월이 되건랑,
우리 엄만네 집이 밀범벽 해 가지구 가갔네
예형 어형 영 어야로다
어럼마 둉둥 내 사랑아

〈섬 61〉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지정소리

(메) 정웅현 (1912년생. 남. 토민)
(밤) 장면주 (1919년생. 남. 토민)

녹음 & 채보 : 이소라 (87-11-25A)

$\text{♩} = 43 \sim 55$

- (메)
- 아들 딸 팔 형제 낳을 것이라
 - 오늘 날에 이렇게 모여
 - 아주나 꽁꽁 다 다 주소
 - 에 행 소옹 지정이요

〈섬 62〉

웅진군 서면 장포리
웅진군 백령도 관청동

지정소리

이근수 (1923장포리출생.남.
백령도로 피난옴)창
素 87-11-27A

$\text{♩} = 46$

해 헤이 헤 헤이 지 정 이 하 하
이 집 진 지 삼 년 만 예
대 통령 부 통령 다 一 날 자 리 라

〈섬 63〉

옹진군
백령도 연화1리

지점소리

창 : 김태형 (1920 연화리 출생. 남.
여나무 살부터 장연군 해안면
살다가 32세에 연화리 이주)
김태옥 (1922년 생. 남. 토민)

素 87-11-26 B

(받) 에 헤 야 하 지 점 일 세

33



(형) ○ 니 가정에 갑주지 밀어

(윽) 에 헤 여 허 지 잡이요

(형) ○ 사방 도서 남북에
기둥을 세우고 서

(욱) 에 헤 여 허 지 잡이요

(형) ○ 둘째에 봄이 왔아

○ 복을 주고 칭찬 해라

〈설 64〉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터다짐

창 :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
素87-11-24①B

(받) 어허 넝청 지정이야

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관청동

지게목발

김칠보 (1928년생. 남. 몽금포출생)
백령도로 피난옴)창
秦87-11-27B

- 장산꽃 곡풍 -

산에라 놀류야 향에, 따물을 치느냐 아, 아,
뚝, 딱, 뚝, 딱,
치야사 나온데헤 좋다, 따물을 내린다

〈섬 66〉

옹진군백령면
진준2리

잡네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창
素 87 - 11-27 A

♩ = 50

잡 네 잡 네 잡 네 — —

자 장 — — 자 장

우 리 — 애 기 는 잘 두 나 자 는 — 데

념 의 아 기 는 못 두 잔 다

잡 네 잡 네 잡 네 — 잡 네

* 첫 방문 때 (87-11-24-1 B)

- 잡 네 잡 네 잡 네, 잡 네 잡 네 잡 네,
금을 주니 너를 사냐, 은을 주니 너를 살까,
잡 네 잡 네 잡 네

〈섬 67〉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잡 네

정 응 현 (1912년 생 .남.토 민) 창
奏 87-11-25 B

$\text{♪} = 15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in G clef, 2/4 time,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first staff contains the lyrics '잡 네' followed by '잡 네 - - 잡 네'. The second staff contains '어 서 - - - 자 - 라' followed by '잡 네 - - - 잡 네'. The lyrics '잡 네 ~ 잡 네' and '어서 자라' are written below the second staff. Measure markings '4' and 'x' are placed above specific measures. A sharp symbol is placed above the note '네' in the first staff. The tempo is indicated as ♪ = 150.

〈섬 68〉

장연군 해안면
옹진군 백령도 연화1리

잠 네

김태형 (1920연화리 출생.남.
여나드살에 해안면 살다
32세에 연화1리 임도) 창
素 87-11-26 B

$\text{♩} = 50 - 67$

장연군 해안면
옹진군 백령도 연화1리

잠 네

김태형 (1920연화리 출생.남.
여나드살에 해안면 살다
32세에 연화1리 임도) 창
素 87-11-26 B

$\text{♩} = 50 - 67$

잠 네 잠 — 네

우 리 아 기 는 잘 도 자 고

넘 의 — 아 기 는 못 도 잔 다

우리 귀 딩 이 잘 자 <라> 고
넘의 구 딩 이 도 잘 자 라 <고>
<귀>

우리 아들 잘 키워 주게

〈섬 69〉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자장가

김진순 (1915년생.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 (88-7-12 A)

$\text{♩} = 90$

The musical score is in G major (two sharps) and 12/8 time. It features two staves of music.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in Korean. The first staff includes the lyrics: 금을 준들 너를 사나. The second staff includes the lyrics: 옥을 준들 너를 사리. The music consist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 patterns.

어화 등등 내 딸이야
잘두나 잔다 잘두 자
어어 잘두 자

〈섬 70〉

송화군 풍해면 초도
옹진군 백령면 진촌 3리

자장가

안명삼(1922초 도출생.여.
동네 혼인. 1930~40년 대에
진남포 거주. 9.28탈환시에
초도에서 3년 거주후
백령 일도)창
素 87-11-26A

$\text{♩} = 6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in G clef, 6/8 tim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corresponding to the notes. Measure 1: 자 장 자 장 우 리 아 긴 잘 도 잔 다 (with downward arrows under the first two '자' and '장' characters). Measure 2: 우리 아 기 는 떡 물 구 자 고 (with a bracket over '우리' and '아기' and a bracket over '떡물' and '구자'). Measure 3: 남 의 아 기 는 떡 두 웃 물 구 잔 다 자 장 자 장 (with brackets over '남의' and '아기' and over '떡두' and '웃물'). Measure 4: (continuation of the melody)

〈섬 71〉

옹진군 백령면
장촌리, 북포리

자장가

— <클레멘타인> 곡풍 —

최순복 (1919년 장촌리 출생. 여.
장촌리로 시집감.
북포리 이주) 창
녹음 & 채보 : 이소라
(87-11-24-2A)

♩ = 75

1. 자 장 자 장 워 리 - 자 - 장

일 마 품 에 안 - 겨 서

칭 얼 칭 얼 잠 노 - 래 - 를

구 - 성 젖 - 게 벌 리 네

2. 자 장 자 장 워 리 - 자 - 장
일 마 품 에 안 - 겨 서
칭 얼 칭 얼 잠 노 - 래 - 를
내 - 게 하 - 진 않 노 라

〈섬 72〉

옹진군 백령면
연화1리, 진촌1리

잡네

창 : 김만옥 (1911년 연화리출생.
여. 진촌1리로 시집옴)
素87-11-24①B

잡네 잡네 잘두 잠자
우리나 얘기 잘자라,
너의 엄마 젖 먹구서
잘두 자라

〈섬 73〉

황해도 대수암(해주 부근)
옹진군 연평면

애기어름

창 : 이화선 (1918대 수암출생. 여.
9세에 연평 입도)
曲 88-7-10 A

1. 달강 류

$\text{♩} = 75$



아 가 아 가 우 리 아 가 잘 두 잔 다

선반 꼭대기다 밤 한톨을 뒀더니
생쥐 한놈이 다 깨았구나,

알맹이는 내가 먹구 보미는 예미 먹고,
껍디기는 아버이 먹자,

아가 아가 잘 두 논다

2. 방애 류

이거는 누구네 방애야
김서방네 방애다,

한방애두 짱구
두방애두 짱 보자

$\text{♩} = 86 \sim 100$



등 등 등 등 등 아 내 딸 이 냐 등 등 이 냐

등 등 등 등 아
에 등 등 등 등 아

〈섬 74〉

옹진군 대연평도
서부리

이 거 리

창 : 1. 이화선 (1918년 황해도 대수암
출생. 여. 9세에 연평 입도)
2. 이화선, 서용옥
3. 서용옥 (1938년 생. 여. 토민)

索 88-7-10 A

1.

() 게사만사 주먼지끈
 딸딸 말아 장두칼
 지지 딱딱 먹은중
 아이 켄사 허리띠

2.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켄사 만사 주머니끈
 엘엘 말아 장두길
 지비 딱딱 먹은중,
 아니 켄사 허리띠끈

3.

* 겨울에 암마들 물 뜨러 가면 애기들을 보다가,
애기들을 때 다리펴서 이불 속에 넣고 장난하던 거다.

$\text{♩} = 70$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켄사 만사 주머니끈 딸딸 말아 장두칼

지비 딱딱 딱딱 먹은중 줄

아이 켄사 허리끈

〈섬 75〉

옹진군연평도
충부리

말잇기

김진순(1915년생.남.토민)창
이소라처보(88-7-12 A)

자장 자장 자장
대야 배야 무슨 배야 자라 배
<배야>

무슨 자라 어미 자라
무슨 어미 쌀 어미

무슨 쌀 진동 쌀
무슨 진동 골 진동

$\text{♩} = 46$

무슨 맹 긴 담 맹 긴

무슨 담 선화 담
무슨 선화 개 선화
무슨 개 복죽 개
무슨 복 통 복

무슨 통 오줌 통
무슨 오줌 소 오줌
무슨 쇠 하는 쇠
무슨 하늘 청 하늘

(무슨 청 대 청
무슨 대 큰 대)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말잇기

창 : 최성화 ? (1916년생. 여. 토민)
素87-11-26B

까막 까치 눈이 네 구녕이 뚫렸더라
네 구녕이 꿩리면 정실 눈이지

정실 눈이 까맣지	까마면	까마구지
까마구는 너풀거리지		너풀거리는 건 무당이지
무당은 치지 ,		치면 야당이지,
야당은 찹지		찹으면 거위지,
거위는 깨물지,		깨물면 범이지
범은 기지		기면 벼룩이지
벼룩은 등글지		등글면 대추지
대추는 달지,		달면 엿이지
엿은 붙지		붙으면 체류지

〈섬 77〉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타박네

최성화 (1916년생.여.토민) 창
이소라 채보 (87-11-26 B)

* 이풍진세상 곡풍.

$\text{♩} = 5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G clef, a 12/8 time signature, and an 8th note. The lyrics are: 타박 타박 타박 네 - 야.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the same clef and time signature, with lyrics: 네 가 읊 - 명 어 멜 가 냐. The third staff also has the same clef and time signature, with lyrics: 우리 오 마 니 계 신 고 데. The fourth staff begins with a new section of music, indicated by a different clef and a bracket, with lyrics: 젖 먹 으 - 로 읊 먼 간 다.

- 산 높아서, 못 간단다 / 산 높,으면 기여가지,
- 물 깊어서, 못 간단다 / 물 깊,으면 해여가지
- 이슬 많아 못 간단다 / 이슬 많은 거 걱정 없어
- 이슬 채를, 꺾어 줘고, / 이편 저편 치면 가지
- 그력 저력, 한 고개를 / 넘어 가니
- 염주꽃시 피었으니, 한 손에는 꺾어 줘고
- 배팔 염주를 목에 걸고, / 또드락 똑딱 목탁 치며
- 우리 오마니, 계신 고데 / 나는 찾아 가노라

〈섬 78〉

옹진군 백령면
장촌리, 북포리

건너집 일냄이

최순복 (1919년 장촌리 출생. 여.
장촌리로 시집감.
북포리 이주) 창
녹음 & 채보 : 이소라
(87-11-24-2A)

♩ . = 50 ~ 43

건년집일냄이 가가 <난> 하여서

하루에도 죽한끼 가어립습니다
<렵>

어머니 아버지는 <아> 십니까

오늘 아죽시험에 두첫째가들었소

〈섬 79〉

옹진군 서면 장포리
옹진군 백령도 관청동

칭 등 쟁 등

이근수 (1923장포리 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음) 창
素 87-11-27 B

♩ . = 67 ~ 75

칭 등 쟁 등 등 아
<장단> / Sim.

칭 쟁 등 소 리 가 웬 소 리 냐

요 내 간 장 녹 는 소 리 다

이 랴 마 랴 발 가 는 건

농 부 님 의 할 일 이 요

붓 대 잡 고 글 씩 는 건

선 배 님
 <비>
 칭 등 쟁 등 쟁 등 아
 칭 쟁 등 소 리 가 웬 소 리 냐
 요 (ㅎ) 내 간 장 녹 는 소 리 다

〈섬 80〉

옹진군 서면 장포리
옹진군 백령도 관청동

꿈대

이근수 (1923장포리출생.남.
백령도로 피난옴)창
素 87-11-27 A

♩ = 67 ~ 86

꿈 대 꿈 대 꿈 대 야 꿈 드 래 청 청 멋 들 있 다

송 아 지 대 가 리 설 삶 아 놓 고 너 하 구 나 하 구 먹 을 적 에

썩 좋 더 라 꿈 대 꿈 대 야 꿈 드 래 청 청

멋 들 있 다 떡 삶 은 물 에 다 속 곳 을 빠 니 이 죽 구 풀 씩 구

썩 맞 겼 다 꿈 대 꿈 대

꿈 대 야 꿈 드 래 청 청 멋 들 있 다

〈섬 81〉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서부리

살라라

정관석 (1926년 중부리 출생.
남. 서부리 거주) 창
이소라 채보 (88-7-10-2 A)

* 장가를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부르는 소리이다.
달아매인 신랑이 장모님한테 랑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부른다.,
'살라라'를 안부르면, 신부집 식구들이 신랑을
안으로 들여 주지 않는다.

$\text{♩.} = 75$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three staves are in 12/8 time, while the fourth staff is in 4/4 tim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corresponding to the notes. The music features eighth and sixteenth note patterns with various rests and grace notes.

12/8 time signature, 8 time signature bracket, 4/4 time signature.

Lyrics from top to bottom:

- 살 라 라 살 라 라 —
- 나 알 살 라 라
- 황 명 익 이 네 누 나 — 야
- 정 관 석 이 만 살 라 라

〈섬 82〉

옹진군 연평면
중부리, 남부리

살라라

(메) 서영애 (1928년생.여.중부리 토민)

(발) 이화선(1918생.여 9세에 연평거주)
이길자(1940년 동부리출생.남부리로
시집 옴) 등

素 88-7-10 B

(발) 에해 해해에 허어 어야아,
어야 어야 디아 라양 네가 내 사랑아

$\text{♪} = 150$

(메) 살라라라하 살라라 --- 나 활실 - 라 - 라 -

*틸 올라간 음정임

이재건네 -길자야 - 박종운만 살라라

(* 이재건은 이길자씨 오빠. 박종운은 이길자씨 남편)

$\text{♩} = 75$

(발) 에해에해에 -어어어어어 허야 -

어야어야디야라 - 네가내사랑 - 아

〈섬 83〉

옹진군 연평도
서부리

살라라

* 자진 난봉가 곡 풍

창 : 조희준 (1928년 생. 남. 토민)
황명익 (1931년 옹진군 봉구면
도화리 출생. 남. 연평도로
피난. 서부2리 거주)
권장성 (1931년 옹진군 동강면
금산리 출생. 연평도로
피난. 서부리 거주)
안창길 (1924년 생. 남. 토민)

♩. = 60 ~ 67

素 88-7-12 A

조 (메) a 12/8

에 혜 - ○ 어 혀 야 ---
어 혀 어 어 어 어 - 야 아 아
어 야 어 야 디 야 라 - (받)
내 사 랑 아
모 닥 불 옆 구 리
통 치 마 자 리 는 -
언 제 나 자 라 서 -

내 흐 품 안 에 드 나

(밤)

에 헤 에 에 에 흐 -

어 - 어 어 어 았

어 았 어 았 아 디 았 라

라 -

내 사 랑 - - 아

조(매)

잘 놀 다 - 갑 시 다 아

잘 놀 다 가 - 요 -



(발) 에 헤 에 에 에 호
 어 어 어 야
 어 야 어 야 아 디 야 라
 내 사 랑 아

※ 이하 생략

〈섬 84〉

옹진군 백령면
진촌 2리

자진 난봉가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 창
奏 87-11-27 A

$\text{♪} = 150$

노 세 - - - 놀 - 아 젊 어 서 노 - 자
늙 어 - 어 - 지 머 는 못 노 리 - 로 - 다
애 해 애 - 어 허 영 어 어 이 야 로 - 다
어 야 디 - 았 두 둉 둉 내 사 - 으 랑 아

〈섬 85〉

북한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자진 난봉가

창 : 안명삼 (1922. 여.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초도
출생. 1930~40년 대에
진남포 거주. 1955년 경
백령 입도)
素 87-11-26A

창 : 이순덕 (1928년 생. 여. 옹진군 순이도 출생. 3세에 백령 입도)
김병일 (1918년 생. 남. 진남포 출생. 21세까지 살다가 용강 운천 이주.
32세에 백령도로 피난 옴)

$\text{♪} = 150$

(안) ○ 사람이나, 살며는 도, 네도 백년을 사나요
단 백년두, 못 사는 세상, 만날 이렇게 고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소

후 렴 (tutti)

○ 사령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내 사령이더니
<랑>
품 판에 든 님이, 내 사령이란다 — ○

후렴 (tutti)

(안) ○ 죽자구나 하니까 청춘인지 두
나 살구살다, 보니까이 고생이
둘 라두
잦어 못 살겠네

후렴(이)

(안) ○ 간 데 나두 온 데다가, 정을 두 도려 놓구요
이 별 별자가 잣아서, 나는 두 못 살겠다

후렴 (tutti)

(김) π

잘 때 는 동 산 에 달 이 떠 야 좋 지 요
 너 혼 자 — 달 뜯 거 는 매 맞 을 정 조 로 고 나
 ↓ ~ ~ ~ ~ $\pi \pi$

에 혜 에 — — 에 혜 야 어 하 야 디 야 내 사령 아

(이) π

간 다 구 가 는 아 야 내 가 들 아 간 다 —
 너 를 더 더 들크 썩 놓 구 나 둘 송 아 하 나 가 안 다
 $\pi \pi$ Γ^3 Γ^3 ~ ~ ~

π

에 혜 에 혜 혜 — 어 — — 어 야
 어 야 어 야 디 야 라 네 가 내 사 람 아

Γ^3 Γ^3 Γ^3 ~ ~ Γ^3 Γ^3 ~ ~

〈섬 86〉

옹진군
백령도 연화1리

1. 난봉가
2. 산염불

창 : 김태형 (1920 연화리 출생. 남.
여나드살부터 장연군 해안면
살다가 32세에 연화리 이주)
김태옥 (1922년 생. 남. 토민)

素 87-11-26 B

1.

(형) ○ 아하 — 두양 어야 로다,
얼음에 냉수를 먹어도
속만 꽹꽝 탄다

(옥) 에헤 — 형 어야 로다,
얼싸함마 두리둥둥 사랑이 절반이라

$\text{♪} = 15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for voice and piano. The first staff (top) shows the vocal line for the singer (형). The lyrics are: 세상 만 산 봄 한식 가니. The tempo is indicated as $\text{♪} = 150$. The second staff (middle) shows the vocal line for the singer (옥). The lyrics are: 사람에 팔자 누구가 아나. The tempo is indicated as $\text{♩} = 75 \sim 65$. The third staff (bottom) shows the vocal line for the singer (형). The lyrics are: 김태형이 팔자라. The fourth staff (bottom) shows the vocal line for the singer (옥). The lyrics are: 에해영어허영어 야로다.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dicated by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with various dynamics and rests.

2.

- (형) ○ 예 — 올라 , 옥을 캐니 ,
이름이 좋아서 , 산옥인가
- (육) 해 — 예해 — 어허미 ,
타불야 불이로다
- (형) ○ 세상 만사는 , 봄 안식 하니 ,
이놈의 팔자를 어데 전할까
- (육) 예 — 형 — 어허미 ,
타불야 불이로다
- (형) ○ 전일 불식은 , 화중집이요 ,
못살다 죽으면 , 누게 하소연

장연군 봉금포
옹진군 백령도

자진난봉가

창 : 김칠보 (1928봉금포출생.남.
백령도로 피난 옴) 창
奏87-11-27A

(밤) 헤 - 허형, 어엉, 어헝 어어야
어러려, 디야로오, 니가 내사랑이라

- (메)
- o 먹구 먹구야 - 먹구야 먹구 씨구 말지,
 오늘같은 날은 아니 먹구 뭣할까
 - o 우리가, 살며는 몇 백년을 사나
 한 때야, 청춘에서, 맘대로 먹구 노자

〈섬 88〉

옹진군 연평도
중,동,서,남부리

니나나 타령

창 : 1. 이길자 (1940년 동부리출생.
여. 남부리로 시집옴)
2. 이화선 (1918년생.여. 9세부터
연평 거주)
3. 박봉렬 (1936.여. 중부리토민)
4. 서용옥 (1938.동부리출생.여.
서부리로 시집옴)
5. 서영애 (1928.여. 중부리 토민)
6. 김윤옥 (1911.여. 남부리토민)
신순자 (1943년생.여); 녹음협조.

素 88-7-10 AB

1.

니나나 나~, (에나) 나 나~,
아니나 놀고 — — 뒷할소나 —

$\text{♩} = 100$

나 나 나 나
 — — 이 —
 나 나 나
 아니나 놀고 — —
 뭇 할 소냐 —

2.

$\text{♩} = 50 \sim 60$

몸 은 크 고 — — — —
 발 은 작 고 호
 등 실 등 실 — — — —
 잘 두 나 논 다 하
 또 물 통 에 — 에 해

호 박 씨 놀 듯 — — —
 등 실 등 시 — — 이 일
 잘 도 나 논 다 하 아
 나 나 나 나 — 하 —
 에 나 나 — 나 — —
 아니 나 — 놀 고 서 — — —
 뭇 할 소 냐

3.

시 접의 살이 는
 <집>

할 지 말 지 한 — 데 — —
 호 박 애 박 넝 쿠 — — 어 — 어 일
 을 만 — 넘 어 간 — 다
 나 나 나 나 — —
 니 나 — 나 나 —
 아 — 니 나 놀 고 오 — —
 뒷 — 할 — 소 — 나

4.

세 월 네 월 — —

오 구 나 가 지 마 라
아 깐 청 춘
왜 다 데 리 고 가 냐
나 나 나 나
이 — 나 — 나 — 나
아 — 니 나 놀 고
뭣 — 할 소 — 냐

5.

A musical score for 'Baran' in 24/8 time.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The melody consists of eighth notes and sixteenth notes on the G, B, D, and E strings. The lyrics '바 깐 디 — 서 —' are written below the notes. A brace groups the first four measures, and a repeat sign with a '2' indicates a return to the beginning.

꼴 비 는 총 각 아 — —
 눈 치 가 있 걸 라 앙 —
 어 이 밟 아 머 <먹 어> 라
 나 나 나 나
 이 나 나 — 나 — 아 —
 아 니 나 놀 고 —
 뭣 — 활 소 냐

6.

새 벽 동 자 하 라 마

다 가 리 석 만 불 이 고 — — —
춘 항 모 를 — 갈 라 머 — —
궁 디 춤 만 추 노 라

에 레 레 리 —,
니 니 니 래,
아니 나 늘 고 서
뭣 할 소 나

7. 素 88-7-10 B $\text{♩} = 100 \sim 108$

백 년 을 살 자 고 — — 오 (으) —
백 년 초 를 심 었 더 — (니)
백 년 초 가 변 해 서 — — 허
일 모 초 가 됐 구 나



- 뒷동산에 할미나 꽃은
늙거나 젊거나 고부라 졌다
(후렴) 나나나나 나나나나
아니나 는고 뒷 할소나
 - 우리가 살았길래 형님 동생 하지
우리가 죽으면 다 소용 없다네
 - 소연평 꼭대기 실 안개 들고
우리나 맘속에 정든 님만 둔다
 - 시집살이 못하면 친정 살이 하지요
친정살이 못하면 일부 종사 하지
 - 오라구나 하기는 네가 먼저 하구요
사대문 열고 나비 잠만 자누나

- 허송 세월 오고 가지 말아요
장안에 호걸이 다 늙어 진다
- 무심한 연락선 날 실어다 놓고요
한 고향 시길줄 난 몰랐네
- 일본아 동경 <이> 어디 얼마나 좋걸래
꽃같은 날 두고 연락선을 끊나
- 뒷 문턱에 시래기 달래
바람만 불어두 요내 가슴놀래누나 / (김윤옥)
- 앞 산 밭에 보리를 심었지
너울 너울 내 동새야
- 쳐다 보니 소라 반장
내 리고 살피니 <각자>장판 / (이화선)
- 꽃갑사 댕기는 첫머리만 보았지
우리집의 새서방 보도록 곱네 / (박봉렬)
- 사랑하는 그대여 부디 성공하여라
깃발을 날리며 나를 찾아오너라
- 신작로 가에 양버들나무
자동차 기차 바람에 광 춤만 추누나 / (김윤옥)
(후렴) 에레레레 리리리야 아니나 놀고서 뭣 할소나
- 몽천 물에 병들어놓고
콩고당낙 다 돌아섰네 / (이화선)
- 한 살이라도 덜 먹을 때 돌아들 봐야지
늙어 병들면 후회가 많다네 / (박봉렬)
- 얼렁막 줄렁막 저 산을 보아라
우리도 죽으면 저 모양이 된다네 / (서용옥)
- 우수라 경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님 말쌈에 내 맘이 풀려요 / (서영애)
-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싶어 지더나,
날 놓고 가던 임 가고싶어 가더나 / (김윤옥)
- 신작로 넓어서 길 가기 좋구요
전깃불 밝아서 님 보기 좋다
- 천평산은 칙산이요
연평산은 충산이라
- 뒷동산에 할미꽃은
늙거나 젊거나 꼬부라 졌네
- 장산곳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이삼일 안에 님소식 오누나
- 강남갔던 제비 다시 한번 오는데
황천가신 님은 다시 한번 못온다
- 산천이 좋아서 바라다 보았나
내님 사는 곳이라 바라다 보았지
- 용당포 물결은 때도 시도없이 밀지
임보고 싶은건 시간도 없네 / (*용담포 ; 해주에 있음)
- 우리네 신랑은 재간이 좋아서
게딱지 타고 누시질 갔네

〈섬 89〉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너시랑

김진순 (1915년생. 남. 토민) 창
奏 88-7-12 A

* 사람 죽었을 때 장사 전날 밤에 모여 부르기도 하고
장사 지내려 가면서도 부르고, 시신을 묻고 돌아오면서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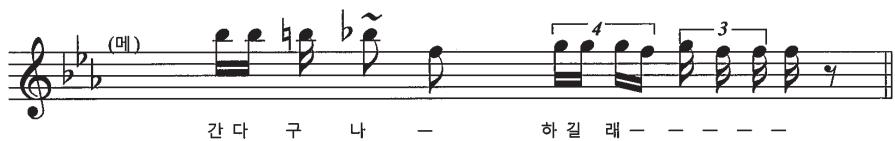
$\text{♪} = 150$

The musical score for '너시랑' features six staves of music. The first three staves are in common time (indicated by '(반)'). The lyrics for these staves are:

- 에 해 야 아 앙 에 헤으 — — 으 흐 야
- 너 시 랑 거 리 구 왜 — — 왔 댔 나
- 왜 왔 다 가 시 나 요 — — 웨 왔 다 으 가 — 으 흐 나
- 을 리 구 나 으 갈 길 으 — — 을 웨 — — 왔 댔 나

The last three staves are in 3/4 time (indicated by '(메)'). The lyrics for these staves are:

- 에 해 야 아 앙
- 에 해 에 에 해 야
- 너 시 라 앙 거 리 구 — 왜 — 왔 댔 나



가는 줄 만 ~ 알았 — — 지,
가구영천 — , 못을주흘 난 몰랐 네,

- (받) 에 해 애 야 아앙 에 해 애 야
너시랑 거리구 왜 웠댔나
- (메) ○ 평풍 속에 그린 숫닭
 홱나 치시면 오시랴나
- (받) 에 해 애 야 아앙 에 해 애 야
너시랑 거리구 왜 웠댔나
- (메) ○ 사릉 아래 삶은 <밤>이
 싹시나 나시면 오시랴나
- (받) 에 해 애 야 아앙, 에 해 애 야
너시랑 거리구 왜 웠댔나

〈섬 90〉

옹진군 대청면
대청5리

놀량

창 : 최봉오 (1905년생. 남. 토민)
素87-11-13②B

* 백령도 故노순길 할머니(장구도 잘 치셨음)께 배웠다.

에 - 라디여 - 허어 어얼 네로고나,
춘수는 날락, 기러기는 훨 훨 -,
낙락은 장송, 와자지끈 다 부러진다 -,
마른가지나마 지화자자 절씨구나,
얼씨구나 ~ 아 절씨구나, 말 들어 봐라,
인간을 하직하고 청산을 썩들어 간다 ~ ,
황훈을 그리던 저 잡것, 서낭당에 그리신 벽궁<새>야,
한 마리는 낭게 앓고, 또 한 마리는 뜰에 앓어 - ,
니 어디로 - 가잤느냐, 이 산 너머 가도 거리 송 벽꽁새야,
저 산 넘어 가도 거리 송 벽꽁새야,
에라디여 - 얼 - 네로구나,
어린 낭자 고운 태도, 눈에 암암 귀에 쟁쟁 -

〈섬 91〉

옹진군 대청도

수심가

창 : 1. 오상덕 (1923년 생.여.토민)

2. 손업전 (1916년 생.여.토민)

3. 장순덕 (1917년 생.여.토민)

素 87-11-23 A

1.

$\text{♪} = 200$



$\text{♪} = 150$



생 각 을 — 하 니 요

세 월 가 는 데 — 등 달 령 하 으 아

C.O.

나 는 못 살 것 네 —

2.

가 — 간다 — 가누나, 나 돌아 가누나,
 아 너를, 두고서 나 돌아를 강아으아,
 생각을 하니요, 차마 설워서 못 살갔구나

3.

$\text{♩} = 150$

The musical score is in G major (two sharps) and 2/4 time. The tempo is indicated as $\text{♩} = 150$.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of music:

- First staff: 아 간다 가 노 나 아
- Second staff: 나 돌아 를 — 가 노 나 — —
- Third staff: 너 를 두 — 두 우
- Fourth staff: 내 가 돌아 를 가 — 안 다

Each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Measure 1 starts with a half note (A), followed by a eighth-note triplet (G, A, B), a quarter note (C), and a eighth-note triplet (B, C, D). Measure 2 starts with a half note (D), followed by a eighth-note triplet (C, D, E), a quarter note (F), and a eighth-note triplet (E, F, G). Measure 3 starts with a half note (G), followed by a eighth-note triplet (F, G, A), a quarter note (B), and a eighth-note triplet (A, B, C). Measure 4 starts with a half note (C), followed by a eighth-note triplet (B, C, D), a quarter note (E), and a eighth-note triplet (D, E, F).

〈섬 92〉

옹진군
백령도 연화1리

수심가

창 : 김태옥 (1922년생.남.토민)
김태형 (1920 연화리출생.남.
여나무살부터 장연군 해안면
살다가 32세에 연화리 이주)

$\text{♪} = 150$

素 87-11-27 A

타관 맹지 여,
홀로 이나니 는 고생이,
아니며는 솔안거거 이리인드이,
생각이 어어 어나니,
산천초목이 기고 산이요,
원천히 구장못사리,

* 수심가를 할 줄 모른다며, 아래를 가창함.

- 에 — 전이 불신이건, 화증지면이 공하,
잘 살다, 놗 살라도, 이 우중이, 이로 구 낭아,

생각을 하니, 나는 여기에 시달려 ~,
잘 달다가 도 못사리로다

〈섬 93〉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초도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수십 가

안명삼 (1922 초도 출생. 여.
동네 혼인. 1930~40년 대에
진남포 거주. 9.28탈환시에
초도에서 3년 거주후
백령(白嶺) 입도)창
素 87-11-26A

$\text{♩} = 150$

아 늙시다 애 해
저리 젊어 서 허 늙시 - 당하 -
나이 많고 늙어지며 어 허 헌못 노리 - 로구
낳 하아 아 생각 하아 - 아 니 이
기 가 야 산 이로 - 가로 맥 (으) 켜 영 허 어 -
사 지 - 못 하리 로 구나 - -
남 아 수 중 애 혜

A musical score for a Korean song, likely for voice and piano. The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in G clef, 2/4 time,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in Korean characters. The first staff includes the lyrics: 돈 떨 어 어 허 지 며 허 어 느 허 언. The second staff includes: 구 시 워 얼 설 한 풍 예 애 해 서 리 맞 아 안. The third staff includes: 낙 엽 이 이로 구 후 낭 하 아. The fourth staff includes: 생 각 하 아 악 아 구. The fifth staff includes: 또 생각 을 하 니 양 하 아. The sixth staff includes: 눈 물 이 앞 으 을 가 려 하 어 요.

〈섬 94〉

평남 진남포,
옹강 온천
백령도 진촌 3리

수심가

김병일 (1918년 진남포출생. 남.
21세까지 살다가 온천 이주.
32세때 백령도로 피난옴) 창

♩ = 150

素 87-11-26 A

노자 하하이 이-
아노자이이이 젊어 서놀아-
늙어 지며허너허
못노리라으아아하아
아자나깨나하생각하니-
해달이가는것으로승화-
나는살아못사리로다-

○ 아에 유유상천은 후승지도 무한이 북망산천아 말물어보자,
질역대여 미멧지나서 죽었더냐, 진배인멘 칠십인 고래희도
살아있건마는, 칠십평생이 원이로구나,

친구야~, 동무야~ 낭다려가렴, 황해, 친구야 날다려가려마,
생각하니, 고향산천이 그리워서, 나는 못사리로다

〈섬 95〉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1. 수심가
2. 난봉가
3. 이팔청춘가

정 응현 (1912년 생. 남. 토민) 창
奏 87-11-25 A

— 논김 맬 때 —

1.

$\text{♩} = 150$

아하아아아아하아아아객석
막마늘음허---향여---
저기---매어언
문경행로가하방차-옹-
서로구---낳하아아-
차마---진지---정
고향생각이---막흘러---서---



2.

$\text{♩} = 150$

노자조자 - 노 - 자 젊 어서 노 - - 자
늙어 서지 - 면 - - 못 노리 - 라
애해 애 - - 에 어 야하로 - 다
어럼 마디 야 라 - - 내 - - 사랑 - 아

3.

창 : 정웅현, 장면주(1919년생.남.토민)

(정) ○ 이팔은 청춘에 ~, 소년 몸 되고요 ~,
사람의, 늙기는 ~, 설움에 사노라

$\text{♩} = 55 \sim 53$

어찌나 사자보니 - - - - -

A musical score for a single voice, likely a soprano, in G major (indicated by a treble clef and one sharp sign). The score consists of seven staves of music, each ending with a repeat sign and two endings.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in Korean. The vocal part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such as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rests. The lyrics describe a desire for death and a lack of desire to live.

나 못 살 것 구려 어아
 살림 살이의 어려서 어—
 나 못 살리로다
 무정 (정) 청춘 아—
 가지를 마려라—
 내 몸 늙으— 면—
 저 벨 이—로다 —

〈섬 96〉

옹진군 백령면

1. 수심가

창 : 최성화 (1916년생.여.토민) 진촌1리

2. 오봉산 타령

素87-11-26B

1. 이 불씨간 하중지요 니 ~ 요,

정들고 못 사는 것은,

남의 님이로구나 -

2. 오봉산 꼭대기 - o

혜리화, 돌배나무는,

가지 가지 꺾어, 도

에리화, 모양만 나누나,

에 헤 에 헤 애해, 요

영산 홍록에 봄바람

〈섬 97〉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오봉산 타령

창 : 백순옥 (1925년생.여.토민)

박춘매 (1928년생.여.토민)

素87-11-24②A

오봉산 꼭대기, 에루화 돌배나무는,

가지 가지 꺾어들고 에루화 모양만 나누나 ,

애해 해요 , 에루화 모양만 나누나

〈애해요 어허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섬 98〉

황해도 대수암(해주 부근)
옹진군 연평면

오봉산

창 : 이화선 (1918대수암출생.여.
9세에 연평 입도)
曲 88-7-10.A

$\text{♩} = 60$

오봉산 -- 꼭대기 --
예루화 -- 들배나남구 -- 는
가지 가지 -- 벌어 -- 서 -- 혀
예루화 -- 모양만내누 -- 나
예 헤 헤야 하드 -- 야 --
예루화 -- 봄바 랍이사 왔 -- 네

〈섬 99〉

옹진군 연평면
서부리

1. 오봉산 타령
2. 뱃노래

안창길 (1924년 생. 남. 토민) 창
주 88-7-12 A

1.

- 오봉산 꼭대기
실안개 평평 들구요
요내나 가심에
수심만 쌩여 있노라
에헤야 데헤야
영영 호걸이 봄바람

$\text{♩} = 60$

바 람 에 — — 불 려 왔 나 —
구 름 에 나 싸 여 왔 나
태 풍 소 리 — 올 리 면 서 —
나 이 렐 줄 으 올 물 랐 — 네
에 헤 에 — 헤 에 헤 에 야 —
영 영 호 걸 이 봄 바 — 람

2. — 일반조 —

- 에야노 야노사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바람아 불어라 구름아 쐐여라 요내 태풍 불라며는 (세계) 불어
에야노 야노사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남물이 들었구나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시 남물이 들었네
에야노 야노사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섬 100〉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장산꽃마리

김진순 (1915년 생.남.토민) 창
이소라 채보 (88-7-12 A)

\downarrow . = 53 ~ 63

The musical score is in G clef, 12/8 time. It features four staves of music.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 First staff: 장 산 꽃 말 리 — 서 — — —
- Second staff: 복 소 리 — 나 더 — 니 히 이 잉 이 허 —
- Third staff: 삼 일 — 만 애 야 아 — —
- Fourth staff: 임 소 식 오 누 — 나 — —

〈섬 101〉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장 산 곶 마루

정음현 (1912년생.남.토민) 창
素 87-11-25 B

$\text{♩} = 52 \sim 62$

1. 장 산 도 월 마 래 - - -

북 소 리 나 더 니 - -

금 일 로 상 봉 에 이 에 - - -

임 만 나 보 누 나 - -

2. 임도나 보고 ~ 임도나 (보고)
겸사나 겸사나 물넘어 가누어
에행 에해해 - 어야아

〈섬 102〉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장산꽃 (몽금포타령)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창
素 87-11-27 A

♩ = 40 ~ 50

장산두꽃 마혜애이

북소리나더니

금일로상봉에예이예

임만나보-겠네

〈섬 103〉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장산곶마루

창 : 변정혁 (1933년생. 남. 토민)
김이선 (1920년 평복 인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 입도)
素 87-11-25 A(리듬은 <SR>)

(변) ○ 장산두 굽 말래에 북소리, 나더니 ~
이 배도 산천이 ~, 다 밟아 오노라

(김) ○ 디야 에해요 잘두나 밝았다,
쓸쓸한 세상은 —, 왜 생겨 났는지 —
곧 말래 넌길래, 연불대가 안 맞나

♩ = 50 ~ 38

(변) 에 해 용 에 해 용 에 해 이 용 — —
나 혼 자 사 알 거 냐

(김) 오 구 나 싶 은 님 — — —
정 들 여 낭 군 님 — —

눌 렀 다 가 래 니 깨 (에 에) 에 — — — 에
바 루 만 가 — 느 냐 으 아

(변) 에해용 에해용, 에 — 해이용 나혼자, 살거냐

(김) ○ 대포나 한잔에, 잡솟고 가며는 ~,
정든 님 술잔과 똑 같아

(변) 에해용 에해용, 에 — 해이용 나혼자, 살거냐

〈섬 104〉

옹진군 백령면
진촌 1리, 연화 1리

장산꽃마리

창 : 1. 최성화 (1916년생. 여. 진촌 1리 토민)

素 87-11-26 B

2. 김태형 (1920년 연화 1리 출생. 남.
여나무살 때 장연군 해안면
살다가 6.25때 연화 1리 피난)
김태옥 (1922년생. 남. 연화 1리 토민)

素 87-11-26 B

1.

$\text{♩} = 40 - 50$

The musical score for '장산꽃마리' is presented in G major and 12/8 time. It features six staves of music, each with a different vocal line.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below each staff. The tempo is marked as $\text{♩} = 40 - 50$.

1. 최성화 (1916년생. 여. 진촌 1리 토민)
창 : 1. 최성화 (1916년생. 여. 진촌 1리 토민)
素 87-11-26 B

2. 김태형 (1920년 연화 1리 출생. 남.
여나무살 때 장연군 해안면
살다가 6.25때 연화 1리 피난)
김태옥 (1922년생. 남. 연화 1리 토민)
素 87-11-26 B

1.

$\text{♩} = 40 - 50$

장 산 꽃 마 르 에 헤 헤 에 —
북 소 리 나 더 니 히 —
금 일 로 상 봉 에 헤 헤 — —
임 만 나 보 겠 네 헤 —
에 해 에 에 — 에 해 어 —
나 혼 자 살 라 나

- 바람새 좋다고 곧 들지 말고요호오,
용금이 개암포 개암포 들렸다, 가렵아
- 장산꽃 마루에 — 헤 드니나 단들이,
늦바람 불라고 선왕님 조른다

2.

- (형) ○ 장산꽃 꽃 마리 ~북소리 나더니히이,
금일로 상봉에, 에이에 임만나 보리라

(육) 아이고 데고효 — 나 혼자 살라나

$\text{♩} = 48 \sim 55$

(형)
(내재4박)
1마디

늦 바 람 분 다 고 - - - 호 오 호
곧 들 지 말 고 요 호 오
몽 금 이 개 암 포 오 으 오
들 렸 다 가 려 마 하 아

(육)

어 제 는 못 감 에 - - 에
덤 이 나 단 들 이 - - 이

A musical score for '나실러' in G clef, 2/4 time, and B-flat key signature. The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Korean lyrics below each staff.

1st staff: 늦바람 불라고 이~
 2nd staff: 선왕님 조를다
 3rd staff: 아이고 데구호 으오
 4th staff: 성화가 났구나

(육) ○ 나 실 러 을 적 엔 반 쪽 슬 달았지,
 나 실 어 놓 구 선 참 쪽 글 다 누 나
 아이 구 데 구 요 ~, 성 화 가 났 구 나

(형) ○ 몽 금 이 고 암 포 ~ 하 좋 다 하여 서,
 이 포 구 저 포 구 ~ 흐 다 돌아 오 다 가
 몽 금 이 고 암 포 ~, 어 떠 냐 고 보 니 장 산 꽃 도 누 낭

아이 구 나 데 고 아이 구 나 데 고,
 웬 성 화 났 나 웬 성 화 났 나 - ○

〈섬 105〉

황해도 대수암(해주 부근) 옹진군 연평면

장산곶

창 : 이화선 (1918대수암출생.여.
9세에 연평입도)
素 88-7-10 A

- 밖에서, 끝치는 총각아,
눈치나 있건만, 오야나 받아주마

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관청동

1.장산곶
2.청춘가

김칠보 (1928년생. 남. 몽금포출생)
백령도로 피난옴) 창
素87-11-27B

1.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히 – ,
금일도나 상봉에, 에 헤,
임만나 보자네 헤에,

아이구나 데구나 아, 하, 몽금포 포구냐하

2. o 이팔은 청춘에 헤 에에,
훌과수가 되지마안 ,
누구를 나들도호, 좋시다 ,
이렇게 알아주나 하아
- o 아서라구야 말어라 하아,
네 그리를 말려으나,
사람에나 괄세를, 좋다,
네가 그리를 말어라

〈섬 107〉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서부리

청춘가

정관석 (1926년 중부리 출생.
남. 서부리 거주)창
이소라 채보 (88-7-10-2 A)

* 모심는 소리가 따로 없고, 청춘가 등을 섬겨주기도 한다.

1. 청춘의 하날에 ~, 잔별두 많구나
요리집에나 문턱에는 좋다 건달패만 도누나
2. 서연평 꼭대기는 ~, 실안개 돌구요
아가씨 문턱에는 — 좋다, 건달패만 도누나
3. 못새길 친구는 발동기 친구요,
닻만 감는 소리에 — 정떨어 지갔구나

♩ = 55 ~ 6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measure of 12/8 time, 8th note duration. The second staff begins with a measure of 4/4 time, 8th note duration. The third staff begins with a measure of 4/4 time, 8th note duration. The fourth staff begins with a measure of 4/4 time, 8th note duration.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corresponding to the notes. The tempo is indicated as ♩ = 55 ~ 63.

4. 상 투 는 절 — 라 서 — —
이 발 수 주 구 요 — — 오
<소>
강 태 는 팔 아 서 좋 다
술 안 주 하 구 요 호 오

5. 종로에 네거리에 ~, 술 때는 땀자야 아아, 아
정떨어 정붙어서, 좋다 무수를 떼느냐

〈섬 108〉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청춘가

김진순 (1915년생.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 (88-7-12 A)

- 청천 하늘에
별두나 많구요
요내나 가슴에는 으은
수심두나 많구나 하아

$\text{♩} = 60 \sim 67$

아서라 말어 라
네그리 말어 라하 어허야
사람의 팔세 르 으을
네그리 마려 마하 아

〈섬 109〉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청춘가 곡풀

백순옥 (1925년생.여 토민) 창
素 87-11-24-2 A

- 가메 곳에 헤 — 육칠팔월 되며는
엄만네 집이 어 또 갔네요
- 예수나 믿었더며 — 언 천당에나 갈 것을,
실없인 잡놈 믿었다, 하아 요모냥 요꼴이 되았네

♩ . = 43 ~ 48

<당신> 하구나 만날적 — 에 헤어 — —
내가 말았 더 — 라며 — — — 언
이런 꼴 저런 — 꼴 어 — — 어
<아> 니나 — 보 — — 을 것 을

- 갑니다 — 갑니다 하으
나는 갑니다으아
널 여게다 놓고서, 허
나는 만 갑니다
- 나는 널 놓으면
꼭 주겠는데요
너는 날 보면,
본승 만승 하누나
- 갈려는 암을
잡지, 를 말고요
있느니 요 내, 를,
잊지를 말려마

- 우리 마당가 요계 해
비 맞은 이 모대 불,
내 속과 같이 , 허
속에서만 타누나
- <나 시집 간다고>
울지를 말고서
나 사는 고데 르 , 을
몸 살려만 오려마
- 오는 새 가는 샌 ~
숲탄 불 속에서만 놀고요
너하고 나하고나 , 어영
유리 집에서만 놀자꾸나
- 갑니다 갑니다 , 아아
으 나는 갑니더으아 ,
너를 도 두고서 , 으 허
나는 갑니다
- 달뜨던 동산에는
달이 떠야만 좋지요 ,
요내 속 달 펴 가지고 , 으허
하나 씰곳이 낭 없이다
- 빨래판 타고서 허어어 ,
우리 어마이 마중 가갔네해 ,
오둠 발 틈 불러 , 어어
임이 마중 갑시다
-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더니 이이 ,
나 사는 고데 선
참 말도나 많도다
- 우리 신랑 보고파서 죽갔세다
나는 혼자 삽니다 아
저게 나라에서 나 좀 보내 줘요 호오
나는 돈 씨고파서 죽갔네
- 아시라고나 맙시다 하아 ,
네가 고령 말려마
사람에나 팔세를 , 허어
고령게나 말려마

〈섬 110〉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청춘가

김형두 (1913년 생.남.토민) 창
이소라 채보 (87-11-27 A)

♩ = 55

명산 대처 허연에 이에에~
불공을 말고~서~
금전으나 귀명도에 좋다
팔세도나 맙시~다

〈섬 111〉

황해도 대수암(해주 부근)
옹진군 연평면

청춘가

창 : 이화선 (1918대 수암 출생. 여.
9세에 연평 입도)
주 88-7-10 B

○ 노잔다 따르라,
젊어서 노잔다 아아,
늙고서 병들만, 난
못노리로 다하

♩ = 52

The musical score is in G clef, 12/8 time, and B-flat key signature. It features four staves of music with lyrics written below each staff. The lyrics are:

- 아서라 말어 — 라 — — —
- 네 그 마 요 마 —
- 요 사 랍 — 괄 시 — 를 좋 다
- 니 그 리 마 — 러 라 — 하

옹진군 백령면

청춘가

창 : 김병일(1918년 진남포출생.남.
진촌3리 21세까지 살다 용강 온천
이주. 32세때 백령도로 피난옴)
素87-11-26A

- 치으네 소년 몸이 되고요
무엇을 못해서 과부가 됐나요
- 어저께 웠대서허, 그저께 웠나요호
당신 올줄 알고서 잠 못잔 죄 있어요
- 아서라 말어라 하, 네 그리 말어라 ,
너 올줄 알고서 잠 못잤구나야

〈섬 113〉

옹진군 대청면
대청 1리

국문 뒷풀이

창 : 장순덕 ?
素 87-11-24-1A처음

○ ~ 들 오네, 나에나 낭군이 돌아 오네

J. = 60

나 랴 너 려 날 아 가 는 원 양 새 야 -

너 와 나 는 짹 을 짓 자

노 류 누 류 노 류 나 장 화 는

노 류 <료> 후 호 누 류 노 류 나 장 화 는

임 계 유 - 지 처 처 마 - 다 다 있 건 만

얼 씨 구 나 좋 다 정 말 좋 아 -

아 니 좋 지 는 못 하 리 - 라

- 마마 무유 마자 마자 , 마잤더니
나의 낭군님 모지도다
- 바바 부뷰 , 밥을 먹다 생각을 해도
임이나 생각이 절로 나네
- 보보 부뷰 , 보구나지구 보구지구
우리나 낭군님 복 싶어
- 사사 서서 사신 행차 바쁘신 길에
중간 잠이 늦어 가요
- 소소 수슈 , 소실 단풍 찬 바람에
<술>
울고나 가는 저 기러기
영모 나는 맘 심 랜하니
북방 소식을 전 코 가소
- 아야 어여 , 아시다 텁썩 , 안았던 정은
인정 없이도 떨어 진다
- 오요 우유 오동 복판 , 거무신 골에
백학이 제 집을 찾아가네
- 자자 저져 자주나 종종 , 보시던 님은
소식 조차 돈절 하네
- 조조 주쥬 조별 낭군님이 내 낭군인데
폐지나 일절 왜 없는가
- 차차 처쳐 차라리 죽었더면
이런 꼴 저런 꼴 아니 볼걸
- 초초 추쥬 , 초당 안에 깊이 든 잠
학 소리에 놀라 깨여
그 학 소리가 간 곳이 없고
들리난 것은 물결 소래
- 칼캬 컬캬 , 칼친 검으로다
요내 몸을 던져 주소
- 쿨쿄 쿨쿄 , 쿨쿨이나 생각을 하니
임의 생각이 절로 나오
- 타챠 터쳐 , 타도나 월 타도하니
<탸> <텨>
나 누굴 바라고 여겔 왔나
- 토쵸 투쥬 , 토지 지신이 감동하여
<툐> <튜>
나의 낭군 보기를 원하노라
- 하하 허혀 하는 것이 우리 낭군님은
언제 또 다시 오시려나 / 얼씨구 좋다 정말 /

〈섬 114〉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국문 뒷풀이

장면주 (1919년생. 님. 토민) 창
素 87-11-25 B

$\text{♪} = 150$

Musical score for the first part of '국문 뒷풀이'. The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in G major, 2/4 time. The lyrics are:

기 역 니 은 디 글 하 니
고 이 도 살 갔 더 나

- 가 가 거 겨, 가이 없는 이 내 몸이,
고디 없이도 되었구려

$\text{♩} = 63 \sim 67$

Musical score for the second part of '국문 뒷풀이'. The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in G major, 12/8 time. The lyrics are:

고 호 - 교 구 후 규 고 생 하 던 우 리 하 낭 군
구 관 하 기 짹 이 없 네

- 나 냐 너 녀, 나귀 등에 슬질하야,
쫙을 지여 노았더니, 임은 이 꽂이 되었으니
- 노 뇨 누 뉴,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 지면 못 노나니

〈섬 115〉

옹진군 백령면
진촌 2리

국문 뒷풀이

김형두 (1913년생. 남. 토민) 창
素 87-11-27 A

얼씨고 넘어갑니다, 언문 뒷풀이로 넘어갑니다,

가갸 거겨하니 가이없는 이내 몸이 거지없이나 되았습니다,

$\text{♩} = 86$

나 - 너녀하니
나귀등에 솔질을 하야
조선팔도를 유람할까

노노누뉴하니, 노류장화 임계유지, 처처마다 있건마는,
다다더며하니 다닥다닥 불은정은 더디없이도 떨어진다,
라랴러려하니, 나귀등에 솔질을 하여 조선팔도에 유람할까,

바뱌버벼하니 밥을먹다 들아보니 임이 없어서 못먹겠네,
사샤서서하니 사신행차 바쁜길이 중간참이 늦어간다,
아야어여하니 아이덥썩 잡았던손목 더지없이도 떨어진다,

자쟈조조하니 자주종종 만나던닐 더지없이두 없어졌네
차차처져하니 차라리 이런생각을 말았더면 이런걱정은 없을것을

칼캬컬컥하니 칼칼한 이내성결 어느누구를 맬겨주나,
타탸터텨하니 타도타도 월타도하니 내가누구를 믿고사잔말이냐

〈섬 116〉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구포리, 진촌 1리

국문 뒷풀이

김정덕 (1919년 중화동출생. 여.
구포리서 성장. 진촌 1리로
시집 옴) 창
作 87-11-24-1 B끌

- 가갸 거겨 가이 없는 이 내 몸이
거지나 없이 되어 가네

$\text{♩} = 55 \sim 60$

고 교 호 구 규 고 생 하 시 는 — 우 리 낭 군 님 으 은
어 찌 낭 하 며 는 구 원 할 까

- 나냐 너녀 나귀나 등에 솔질을 하여
조선 팔도 유람 하세
- 노뇨 누뉴 노세 놀아 젊어 놀아
늙어 지며는 못 노나니
- 다다더뎌 다닥다닥 (불었던 정)
(인정 없이도 멀어지네)

〈섬 117〉

옹진군 봉구면 도화리
옹진군 리대연평도 서부2리

담바구

황명익 (1931도화리 출생.남.
연평도로 피난 옴)창
奏 88-7-12 A

$\text{♩} = 50 \sim 55$

구야 - 구야 담바 구 - 야
농연의월산에담바구야
은을 - 주려나왔느 - 냐
금을주려나왔느 - 냐
은도 - 싫고금도 싫 - 고
담바구한쌍만달랐 - 단다

〈섬 118〉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담방구

장면주 (1919년생.남.토민) 창
素 87-11-25 B

$\text{♩} = 40 \sim 46$

구야 - 구야 담방구 - 야

동래나을산에 담방 - 구야

은으울주려 나왔 - 느 - 냐

금을주 - 러나왔더 - 냐

은도 싫고, 금도나 싫고

〈섬 119〉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담방구

창 : 김경신 (1925년생.여.토민)
素87-11-24②A

-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노래 -

구야 구야 담방구야,
동래나 울산에 담방구야

〈섬 120〉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담방구

창 : 변정혁 (1933년생.남.토민)
素87-11-25A

구야 구야 담방구야,
동래나 울산에 담방구야,
너를 주려 나왔느냐

〈섬 121〉

옹진군 대청면
연화1리

담방구

창 : 김태욱 (1922년생.남.토민)
素87-11-26B

* 참고용

구야 구야 담방구야
어데서나 나왔느냐
돈을 주면 너를 사랴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섬 122〉

옹진군 백령면
장촌리, 북포리

1. 봄 배추
2. 담방구

최순복 (1919년 장촌리 출생. 여.
장촌리로 시집감.
북포리 이주) 창
녹음 & 채보 : 素 87-11-24-2A

1.

* 창부타령 곡풍

$\downarrow = 60$

파릇 파르흐 봄 배 추 는
찬이 슬오기 만고대 하고

송이 송이, 꽃송이는
볍나비 오기만 고대하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고대한다

2.

* 일반 곡풍

구야 구야, 담방구야 동래나 <을> 산에 담방구야
은을 사라고 나왔느냐 돈을 주라고 나왔느냐,
은도나 싫고, 돈두 싫구 담바구 씨만 가지고 왔네

〈섬 123〉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봄배추
- 창부타령 곡풍 -

창 : 1. 이순덕(1928년생.여.3세부터
백령도 거주)
2. 안명삼(1922년생.여.
1955년경부터 백령도 거주)
素87-11-26B

1. 아니 -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푸릇 푸릇 봄배자는, 찬이실 오기만 고대하고,
옥에나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고대하고,
너풀 너풀 봄배추는, 찬이실 오기만 고대한다,
얼씨구나 좋아요 정말도 좋네 아니 놀지도 못하리라,
띠리리 띠리리 - 리 띠리리 띠, 어하 두둥동 내 사랑아

1. 아니 - 아아니,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노콩이나 하두야 파궤두야, 논이나 달렸기만
울어마니 우리 아버지는 신두나 깨미나 어땠는지,
딸이나 낳다가 곱게나 길려, 딸 줄데나, 엊거들랑,
한강수에, 깊은 물에나 텅버덩 넣어주고 말지요,
곱게나 곱게 날 길러서, 요모냥, 요 꿀을, 맨딜랴고,
나 요모냥 월두나 되았구나,
얼씨구나 좋구나하 지화자 좋와, 아니 놀진 못하리라

〈섬 124〉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서부리

방구 타령

정관석 (1926년 중부리 출생.
남. 서부리 거주) 창
이소라 재보 (88-7-10-2 A)

* 정관석의 할아버지는 해주읍에서 사셨음.

$\text{♩} = 50 - 60$

방구 타령 이나 오신다
방구 타령 이나 오신다
시어 머니 방구는 구수-방구요
며누리 방구는 살림방구
일본의 방구는 양살방구요
중공군의 방구는 곱살방구
미군의 방구는 원자탄방구요

한 국 군 의 방 구 는 총 이 방 구
 이 방 기 저 방 기 다 좋 다 라 도
 민 주 주 의 가 — 제 일 종 지

* 이하. 실음은 반음정 더 높아졌음

얼 씨 구 나 절 씨 구 나 지 화 자 좋 네
 아니 아 니 쓰 지 는 못 하 리 라

〈섬 125〉

옹진군 봉구면 도화리
연평면 서부2리

창부타령

황명익 (1931년 도화리출생. 남.
피난나음. 서부2리거주) 창
주 88-7-12 A

$\text{♩} = 50 \sim 60$

띠 리 리 리 리 리 —
아 니 노 지 는 못 헐 것 (네)
해 두 지 구 서 저 무 신 날 에
옷 갓 을 하 공 어 틸 가 오
<첩> 의 집 이 가 실 라 거 든 —
나 죽 는 꽃 을 보 고 가 오
<첩> 의 집 은 꽃 발 시 요

A musical score consisting of five staves of music in G clef, 2/4 time,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분 쳐 허 집 으 은 연 못 이 라

꽃 과 나 비 는 봄 한 철 이 요

연 못 가 — 음 은 사 시 사 칠

얼 씨 구 나 좋 다 절 씨 구 좋 와

아 니 노 지 는 못 허 겼 네

〈섬 126〉

옹진군

창부타령

창 : 1. 최봉오 (1905년생.남.대청면

대청5리 토민)

素 87-11-13-2 B / 87-11-23A

2. 김형두 (1913년생.남.백령면

진촌2리 토민)

素 87-11-24-1 B

1.

- 素 87-11-13-2 B ○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람마다, 벼실을 하면 농부혈 사람 어디 있고,
<슬>
의사마당 병고치면 북망산천이 왜 생겼나,
(후렴): 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 아니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꽃시라도 낙화가 지면 오던 나비도 아니 오고,
나무령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
물이라도 금수가 되면 오던 배도 아니오고
천하 일색 — 양귀비라도,
불파구살 주를 잡히면 오던 임도 — ○ 아니운다
(후렴): 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좋지는 못해요

- 素 87-1-23A ○ 열씨구나이 좋다, 지화자 좋네 어짜나 좋은지 모르겠소,
얕은 산에 산을 이뤄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억>수장마 비퍼붓듯 대천 바다에 물밀듯이,
이좌석에 모여신 손님, 재수랑 소망 이루소서

2.

- 좋다 정말 좋아요 아니 좋다구는 못하리라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요순 우팅 문무주공인데,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꾸여야 임 만나지

임사는 곳과, 나사는 고든 불과 멀지는 않건마는
<곳은>

$\text{♩} = 10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in 12/8 time with a treble clef. It has notes corresponding to the lyrics '보며는 반가一웁고一'. The bottom staff is also in 12/8 time with a treble clef. It has notes corresponding to the lyrics '못본다하니 나(못살겠네)'. The tempo is marked as $\text{♩} = 100$.

〈섬 127〉

웅진군 벽령면
진촌 2리

노랫가락

김형두 (1913년생. 남. 토민) 창
주 87-11-27 A

$\text{♩} = 50 \sim 60$

사랑아 내 사랑이지 —
 잠든 — 사랑이 네로구나
 사랑이 불과 — 같으면 —
 가삼이이인들 — 오작하리
 가삼만탈뿐 — 아 — 니라
 온몸 — 전신이 다 — 타노라하 —

〈섬 128〉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노랫가락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 창
素 87-11-24-1 B

* 논김 맬 때도 부른다.

\downarrow . = 55 ~ 60

노 세 젊 어 서 놀 아 -
늙 어 지 - 며 는 - 못 노 - 나 니
하 무 난 - 십 일 흥 이 요
달 도 차 며 는 기 우 나 니

인생 일장, 춘몽인데,
다시 젊자길 넘구마기라
<젊지 는 못하 리>

〈섬 129〉

옹진군 연평면
서부리

1. 노랫가락
2. 일반아리랑

조희준 (1928년생. 남. 토민) 창
素 88-7-12 A

1.

$\text{♩} = 50 \sim 60$

노세 젊어 서 놀아
놀아 지며는 모꽃노나아하니
화무는십일홍이요
달두차며는기우후나니
인一生도일장춘몽에
아니노一지는못하리라--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날 놓고 가는 님이 가고 싶어 가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섬 130〉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밀양아리랑 곡풍

정 응현 (1912년 생. 남. 토민) 창
奏 87-11-25B

$\text{♩} = 98$

아리르옹 아리르옹
아리르옹 라리요
아리르옹 고개로 넘어 넘어 간다,
아리르옹 고개는 무스네 고갠지~
한번, 가며는 영 누꺼노나,
아리아리른, 스리스리를 아라리요
아리르옹 고개루 넘어 간다

〈섬 131〉

평북 안주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도 라 지

김 이 선 (1920년 안주출생.남.
15세에 백령 입도)창
素 87-11-24-2

* 모심을 때도 심심하면 불리주었다.

♩ = 40

도 라 지 도 라 지 도 라 하 지 — —
울 력 — 산 보 애 났 느 — 나

양 바위에 날 때가 없어서
두봉의 장애가 났느냐,

에 해야 에 해야 에 해야 ,
어 야라 난다 지 화자자 좋지
아니 나기두 좋다군

〈섬 132〉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도라지타령

창 : 1, 3.이순덕(1928년생.여.
3세부터 백령도 거주)
2. 김병일(1918년 진남포
출생.남.32세때 피난옴)
素87-11-26A

1.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울려 금산포 백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가 솔이솔솔 다 녹는다,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어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네가 내 간장을 솔이 살살 다 녹는다

2.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요봄소 실논미 도라지야,
하도 날 데가 없어서 양바위 쌈에가 났나요,
에헤옹 에헤옹 에헤요, 어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네가 내 간장을 스리 살짝 다 녹인다

3. 도라지를 캘테면 세구요, 개지게 캘테면 개지요,
남의 나도 시식은 분 내가 나 왜 고리 캐느냐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어야라 란다, 지화자자 좋다
네가 내 간장을 솔이 살살 다 녹인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1. 각설이
2. 신고산타령
3. 노들강변

창 : 김형두 (1913년생. 남. 토민)
素 87-11-27A/87-11-24①B

1. 얼씨구나 잘한다 품배하구두 잘한다,
어 허라 이 놈도, 정승 판사 자제로
팔도 감사 마다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만 다였시다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일자 한자를 들고 봐, 일월이 송송 야 송송
이자 한자 들구 봐, 이수중분 백로주에 백구가 펄펄 날아든다
삼자 한자 들구 봐, 삼신산에 불로초는 신선 처녀가 세지요
사자 한자 들구봐, 사신 행차 바쁜 길에 중간 참이 늦어 간다
오자 한 자를 들구 봐, 오관 천장 비를 둘 때 구민 농민이 좋을씨고
육자 한자를 들구봐, 육조창생 만민들은 국 대풍이 제일이고
칠자 한 자를 들구 봐, 칠년 대한에 왕가물
팔자 한 자를 들구 봐, 팔폭 치마 연 단풍에,
구짜 한 자를 들구 봐, (군인 간지 구년 만에 일등병이 웬말이며)
십자 한 자를 들구 봐, 시월이라 십일날 (일기 중)에 제일이요
엣다 그 불림 다 틀렸다 호랑이 여기 나가안다

2. 신고산이 ~ 우魯 , 함흥차 떠나는 소리,
고무 공장 큰아기, 밤 봇짐만 싸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란다 디야라
장차 두덜 봅시다

3. 노들 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다가,
무정 세월 하늘이를, 칭칭 도여 매여나 볼까
에해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
푸르른 저기 저물만 흘려 흘러서 가노라

〈섬 134〉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쌍금쌍금

창 : 박춘매?
素87-11-24①B

* “넓고넓은 바닷가에” 곡에 얹어 가창함.

양금 양금	양가락지,
쌍금 쌍금	쌍가락지
()	실가락지
청천강에다	배를 띄고

〈섬 135〉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군밤타령
- 경기민요 곡풀 -

창 : 1. 이순덕(1928년생. 여. 3세부터
백령도 거주)
2. 안명삼(1922년생. 여.
1955년경부터 백령도 거주)
秦87-11-26A

1. o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도 앞바다에서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얼싸 좋아 군밤이여,
에헤라 삶은 밤이로군나

o 너는 처녀 나는 총각,
처녀 총각이 눈멀어 난다
얼싸 좋네, 얼싸 좋아 군밤이여,
에헤라 삶은 밤이로군나

2. * 백령도 오기전, 9.28수복때 초도에서 친정엄마랑 물질가며 배웠다.

o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예, 얼싸
칼바람 불었네 얼싸좋네,
오냐, 삶은 밤이로구나

옹진군 대청면
대청5리

군밤타령

창 : 최봉오 (1905년생. 남. 토민)
素 87-11-13②B

* 경기민요 곡풍이나, 선율이 안정적이지 못함.

* 16세경에, 연평이나 옹진 사람들이 여기와서 그물질하면서 부르는 것을 듣고 배웠음.

1.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 바다에 형 헐싸 돈바람 불었네

(후렴) : 얼싸 좋네 - 좋아, 군밤이여 삶은 밤이로구나

2. 아주 아직 개구리, 설 삶아 놓고,

너 하고 나 하고 형 헐싸 맞물고 <놀잔>다 / (후렴)

3. 너는 누구, 나는 나다,

상산 땅에 어 헐싸 조자룡이다 / (후렴)

4. 주아 좋아, 도사중아, 개경산으로 / (후렴)

5. 너도 <포수>, 나도 <포수>,

두 <포수> 한데다 뵈야서 형 헐싸

구월 산으로 학 사냥 가잔다 / (후렴)

6. 너도 아기, 나도 아기,

두 아기 한데다 뵈야서 형 헐싸

젖꼭질 물고서 감덩그라 쪘구나 / (후렴)

〈섬 137〉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뱃노리

창 : 이순덕(1928년생.여.3세부터
백령도 거주)
안명삼(1922년생.여.
1955년경부터 백령도 거주)
素87-11-26A

- 언니는 좋을래라 언니는 졸래라,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졸래라

- 야야 - 동생아 그 말을 말어라
너의나 형부, 코만 컸지 실속은 없단다,
에야노 야노야 ~ , 에야노 야노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 어시령 달밤에 개고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노 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노 야노야 ~ , 에야노 야노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 어시령 달밤에 읊 넘는 저 총(각) -,
서답주, 결방에 양칫담 내구나,
어야노 야노야 ~ , 어야노 야노야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섬 138〉

옹진군 백령면
진촌 3리

창가 곡풍

이순덕 (1928년 이복 옹진군
순이도 출생, 여. 3세 애
백령도 입도) 창
素 87-11-26 A

-- 밥을 주랴,
밥두 싫구, 국두 싫구, 내 어마니 젖만 주소,

$\text{♩.} = 40 \sim 45$

The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wo staves of Western-style music.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G clef, a 12/8 time signature, and an 8th note. The lyrics are: 물 깊 어 서 뜻 간 단 다.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a G clef and an 8th note. The lyrics are: 물 깊 으 면 一 헤 여 가 지.

- 산 높아서, 뜻 간 단다,
산 높으면 기어 가지
- 이실 많아 뜻 간 단다
이실 많으면 국채 꺾어 들고
- 넘어가니 염주꽃이
피었더라 염주꽃을
- 너하고 꺾어들고
한 고개를, 또 넘어가니
- 염주 대주 달렸더라
울 염마도 살았으면

요런 꽃술

〈섬 139〉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왕서방

서영애 (1928년생.여.토민) 창
素 88-7-10 B

$\downarrow = 70 \sim 65$



명호一와 명호와 왕서방 죽어—도 명호와



내머리—팔아잔 떠러서 왕서방 죽어도 명호와

○ 띵호와 띵호와 왕서방 죽어도 띵호와,
내다리 팔아, 목도한들, 정통이 들어 띵호와

○ 띵호와 띵호와, 왕서방 죽어도 띵호와,
내머리 학하, 잘 팔아서 왕서방 죽어도 띵호화

〈섬 140〉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연자방아도는구나

* 유행가

박춘매 (1928년생.여.토민) 창
素 87-11-24 -1 B끌

- 연 끝에 구름 달고
구름 끝에 해가 들어서,
진달래 — 열싸 앤고,
고향 길을 돌아 오네

♩ = 40 ~ 4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dotted half note followed by eighth notes. The second staff begins with a sixteenth-note cluster. The third staff starts with a quarter note. The fourth staff begins with a sixteenth-note cluster. Below each staf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orresponding to the notes above them.

연자방아도는구나
연자방아하 도느온구나
엄마— 님 치마폭—에
인사— 없이 안겼—네

- 손 잡고 너를 볼
깊은 눈물 적시면서,
내 아들 — 찾아왔느냐,
눈으로만 말씀할제
가슴만이 비는구나,
가슴만이 피는구나

- 어머희님 머리 위에,
보다 나를 꽂았네
행복에 목이 미여,
행복에 목이 미여,
널 먼저만 썩네

〈섬 141〉

옹진군 대청면
대청 5리

곱새치기

최봉오 (1905년생.남.토민)창

1. 素 87-11-13-2 B
2. 素 87-11-23 A(최봉오 등)

*사설은 참고용.

1.

- 일(젓) 골라 메땅군이라,
메구 감구 못불들구 훌라당 거리고 몸만 가누나
- 이가향 진촌에 행 체간 집는다
냇등 장궁 못불들구서구 만강, 달월이였네

$J = 86$

영천 — 순직은 맑은 물이라
내쳐감구서 못불들구서 갈대루다가 양울을 삼는다
영너쿵 찾은 봉 자미혈연잔덕봉
강건너문수봉 피양은모란봉 구월산 만학봉 일다
<평>

- 국이 끓구 밥내가 나누나 낫구 안구서,
물구 떨구 떨어라 구월이면 만가을일다
- 구석 바람인 젯누 바르단,
내구 씨구서 올구 떨어라 내구 일성애, 날만조른다
- 구월이면 만가을일다,
내구 씨구서 올구 떨구 만학지 — 봉을 넘는다
- 만학두 천봉 운신체로,
다내구서 물구 떨구 떨어라, 달의 계절은 사월 달일다 — 이하 생략 —

2.

$J = 75$

삼월이 들이면 읊삼월이 일다

〈섬 142〉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곱새치기

창 : 정웅현 (1912년생.님.토민)
장면주 (1919년생.님.토민)

素 87-11-25 B

— 제 3판 —

(정) ○ 팔대 청산 넝구 지구 넝구 지구 서는 구월 한로 여산 막 이라

:

(장) 돈먹구
물러갔지 영천 소, 구월 한로도 고만 두지 장승 범서, 술령 술로다

:

(정) 장구
맹서 술령순데 월지전, 어구 쟁구나

○ 일봉 서간 백현진데,

○ 이술 경지 시내 산이라 남의 자식은, 불안식인데
네구 남은 건, 쌍서방 일구나

♩ = 75 ~ 6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The first four staves are in common time (indicated by 'C') and the fifth staff is in 2/4 time (indicated by '2/4').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 Staff 1: 오 관 천 장 관 운 장 이 라
- Staff 2: 육 병 마 사 원 순 대 는 도 영 천 이 는
- Staff 3: 호 걸 도 이 수 서 는 도 팔 찌
- Staff 4: 살 판 연 유 객 인 데 는 구 월 한 로 여 산 강 이
- Staff 5: 구 서 는 장 안 한 량 의 처 춘 별 구 나

- 일백 불라 내 낭군이라 꺾어 먹던 음식인데 남의 자식은, 귀동자로구나
- 네 덕이 만만한데는, 오충주에 적벽강일구서 육병마, 도원수로다
- 영천 가구 못오시구서는도, 백마은평에는 운신녹인데는
국살 피는 생로산데, 장소명소는 순령수로다

〈섬 143〉

장연군 몽금포, 응진군 서면
응진군 백령면

곱새치기

* 실제로 놀이하면서 가창함.

창 : 이근수 (1923년 서면 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 나옴)
김칠보 (1928년 몽금포 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 나옴)
素 87-11-27 A

* 응진목, 장연목, 신천목의 글씨가 다르다고 함.

$\text{♩} = 75$

(1자) 일자도 무식은 판무식이라
꼭 짤렸다 새컨처

(2자) 이집 주인은 김서방
이과수는 날과 사잔다

(3자) 삼월한식은 불한식이고
삼지강은 재령땅이다

(4자) 넉살좋은건 강화년이고
네병도리는 쌍소반이다

(5자) 오갔으면 밤에 오지 낮엔 왜와
오명댁이는 닭장수란다

(6자) 유기한집은 돈이 두집이라
육골앞뜰은 개동논이다 (*개동논 : 간척지의 뜻)

(7자) 칠월첫뿔은 곱장뿔이요 (*곱장뿔 : 고루라졌다는 뜻)
칠칠꼬는건 몽칫군이요 (*몽칫군 : 회초리의 뜻)

(8자) 팔팔뛰는건 용달치요 (*용달치 : 작은 고기 이름)

(9자) 국은끓고 밥내가 난다
구름탄 용이 비를 준다

(장자) 장수박대는 군종법이요
장안한량은 오춘보요

〈설 144〉

옹진군 서면 장포리
옹진군 백령면 관청동

안 택

이근수 (1923년 서면 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 나옴) 창
주 87-11-27 A

* 보통의 속도와 빠른 속도를 교차하면서 읊음.

(보통 속도 例) $\text{♩} = 150$

불손 명당 신조 경은 쳐현강 대지一수후 명당

일월성신내의이다 동방에는 적제지신남 방에는 흑제지신
<청> <적>

북방에는 청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중양에는 황제지신이하 <강>-하사

(빠른 속도 예) $\text{♩} = 200$

오동나무 상상대에, 봉황같이 점질하사, 이택가중 금년애기
태산걸이 높으거라, 나라에는 충신동이요 일가에는 화목동이요
친척에는 유신동이요 이길소지에 황금출이라 신씨가문에 만복래라

— 퇴장시 —
험한 나메 이성신이요 귀성신이요 삼재팔난 비서릴랑 천리만리로 퇴성하고,
안전하고 쑥쑥하고 지워둘하고 각설인양 이 댁 가중으로 모두 실어들여라
— 영월령 —

〈섬 145〉

옹진군 개암구지
대연평도

비순

창 : 고상옥 (개암구지출생. 여.
26세에 연평도로 시집옴.
1936년생이며 대연평도 중부리
토민인 박봉혈의 친정어머니)
素88-7-10②A

- 선주들이 고기잡으려 가기전, 고상옥을 데리고
장군님한테 갔을 때 -

“ 천여동을 잡냐, 만녀동을 잡냐 하면, . . .
수없이 낚아 줍쇼 죽은 고긴 . . .
산 고긴 얼려 잡고,
천여동 만여동 억만동을 잡아서
만장원 시켜 도장원 시켜 줍소사 ”

그러면, 선주네들이 키를 넓다 내린다. 선주네들이 “얼싸 좋다 절싸 좋다”
제금치며 그렇게 했다.

“ 칠산 바다에 장원시켜 주오,
다 죽은 고기 빗대 내고, 산 고긴 얼려 잡고
천여동을 잡아시라 만여동을 잡아시라
억만동을 잡아시라” 하면서 장군님께 빌려 댕겼다.

연평바다 고기잡을 때, 장군님께 기도하면 효험을 얻는다.

“ 장군님 굽어보시오, 아무개 배(船)가 장군님 모시려 왔시다.
칠산바다에 만장원시겨 주시라고일도 정성드려 장군님 모시려 왔시다.
연평바다에 죽은 고기 빗대 내고, 산 고기 얼려잡고
만여동을 잡아싣고 일등하고 장원하고 끝없이 수없이 나고
수없이 끝없이 나고 천여동을 잡아실어, 만여동을 잡아실어,
억만동을 잡아실어, 도장원하고 남한 일대 장원시킵시다 – ”

하고 기를 흔들면 선주들이 “에 - 장군님 사당에 모셨다, 장군님 장군님 모셨다”고 한다. 그러면 또 고상옥이 “에 - 연평바다에 들른 조kin 양주만 냄기고 다 잡아 싣자”고 외쳤다.

(*고상옥은 다른 무당처럼 징치고 굿하지않고 빌기만 하였다.
장군님은 단물나게하며, 영험하시다고 그녀는 믿는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섬기고 살았는데 몸이 죽도록 아파 임경업장군님께 기도하러갔다가

장군님 몸을 고상옥이 받았다고 함.

처녀시절에 베짜고 물레질했으나 노래는 없었다. 바느질을 많이 했으나 양반촌이라 소리하는 것은 없었다.

* 장군님 당이 선 유래에 대해 : 동쪽 서쪽 북쪽에다 계란 하나씩을 묻었는데, 서쪽에 묻은 건 끓아지고 동쪽에 묻은 건 병아리가 되어가지고 털이 나다 말았다. 북쪽에 묻은 건 거기서 수탉이 나와 해를 쳐가지고 날개를 치며 날아갔다. 그래서 북쪽에 묻었던 곳이 임장군 모실 자리다고 해서 장군님 사당을 지근처럼 모셔놨다.
장군님 고향은 충청도 계룡산이다)

〈섬 146〉

옹진군 개암구지
연평도

굿 할 때 첫 노래

고상옥 (1908년 개암구지 출생.
26세에 연평도로 시집옴) 창
주 88-7-10-2 B

* 참고용.

1. 감웅굿

$\text{♩} = 60$

(반)

모여지라 모여지라

모여지라

감옹마누라 모여지라

- (매)
 - 일도 정성 대주님에는
일성 정성이요
지주님에는 일도 정성되어
자손의 명사자고
월천강에다 날을 골라
시우대 편에 길을 골라
— — —
만 감옹신 모이자고
이 정성을 디여시라

- 앞 병주는 나남 받고
새 병으는 솟아 받아
감옹 마누라 모여 려고
자손의 명사자고
이 정성 있으면 다

2. 장군굿

- (매)
 - 마질가요 마질가요
장군님 모시리 마질가요
팔도 명산에 장군님들
다 모시리 마질가요

〈섬 147〉

웅진군 개암구지
웅진군 연평도

송구 타령

고상옥 (1908 개암구지 출생. 여.
26세에 영평도로 시집옴) 창

素 88-7-10-2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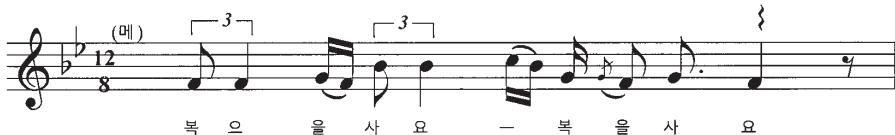
* 칠성굿에서 떡 나누어 주면서 복 받으라고 부른다.

* 고상옥은 시집와서 일 나가면 아팠기 때문에 임경업 장군님 한테 가서
신을 받았다. 배가 고픈 걸으러 나가면 장군님께 비는 일을 주로 했다.
무당처럼 춤추고 그러지는 않았다.
임경업 장군의 고향이 충청도 계룡산이라 연평도에 입장군 사당을 모셨다.
* 열대살 때 김매고 베짜고 바느질하고했으나 노래는 안했다.

(발) 에 허리 송구야

- (매) ○ 복을 사요 복을 사요
○ 약을 사요 약을 사요
○ 자손의 명백이 실이시라
<복>
○ 이 정성을 디릴 적에
○ 자손의 명복이 디린 데요

♩ = 60



- (예) ○ 명사시오 복사시오
○ 돈실려 가자 돈실려 가자
 칠성 바다에 널린 조기는
 다 잡아 실려 가자

- (발) ○ 연평 바다에 돈실려 가자
 어 허리 송구야

- (매) ○ 연평 바다에 올르는 조기
 우리 배 상고 배 다 잡아 싶다
(발) ○ 어 허리 송구야

- (매) ○ 죽은 괴기는, 비터 심고호
 산 괴기는 얼려 잡아하,
 앞산 명월에 허다, 다 죽어
 살리려 물리려 허다
 우리나, 상고 배 다 잡아 싶는다네,

- (발) ○ 에 허리 송구야

(메) ○ 명이 갑니다 복이나 갑니다

♩ = 75 ~ 67

(발) 박봉령, 이길자 등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is in G clef, B-flat key signature, and common time. It contains lyrics: '에' (E), '에' (E), '— 헤' (He), '리' (Ri). The second staff is also in G clef, B-flat key signature, and common time. It contains lyrics: '승' (Seung), '구' (Goo), '후' (Hoo), '야' (Ya). The third staff begins with a tempo of ♩ = 150, in G clef, F# key signature, and common time. It contains lyrics: '돈 실 려' (Don-sil-rye), '가' (Ga), '자' (Ja), '돈' (Don), '실 려' (Sil-rye), '— 가' (— Ga), '하' (Ha), '자' (Ja). The fourth staff continues in G clef, F# key signature, and common time. It contains lyrics: '칠 성' (Chil-seong), '— 바' (— Ba), '다' (Da), '에' (E), '널 려' (Nul-rye), '언' (Un), '조' (Jo), '개' (Gae), '는' (Ne). The fifth staff concludes in G clef, F# key signature, and common time. It contains lyrics: '우 리' (U-ri), '배' (Bae), '상 고' (Sang-go), '배' (Bae), '가' (Ga), '다' (Da), '잡 아' (Jap-a), '실 닷' (Sil-dot), '네' (Ne). The final staff is labeled '(발)' and ends with lyrics: '어' (Eo), '— 허' (— He), '— 리' (— Ri), '승' (Seung), '구' (Goo), '야' (Ya).

〈섬 148〉

옹진군백령면
진촌2리

산염불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창
素 87-11-24 -1B

$\text{♪} = 150$

산에 — — 올라 — 옥을 — 캐니

산이름이 — — 좋와서 산옥일까

나무 해해 — 어 — — 미

타 — 브호야 불이 로우다

〈섬 149〉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산 염 불

정용현 (1912년생. 남. 토민) 창
奏 87-11-25 B

$\text{♪} = 150$

해 - 해 애 - - 해 애 애 - ○ 어 어 애 애
타 하 - ○ 어 헤 애 불 이 로 구 나 -
오 늘 날 으 호 으 - 은 무스호으 은 날 이 인 지

* 이하, 실음은 반음정씩 낮음.

오 늘 저 넉 애 여 게 서 - - 늘 - 고
내 일 나 - - 은 - 또 어 디 놀 까 -

에 - 헤, 에 행 아 이 타 애 불 이로다

○ 산지 조종은 곤륜 산이요, 수지 조종은 황해 수라
에 헤, 헤 헤 어 형 미 타 애 불 이로다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영천 - 가구 못오시는 길,
인지 가면 언지나 올래는지, 영영 소식이 무소식이라,
엥 헤 - 헤, 어 형 아 - 미 타 - 애, 불 이로다

〈섬 150〉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산 염 불

창 : 변정혁 (1933년생. 남. 토민)
김이선 (1920년 평북 안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 입도)

素 87-11-25 A

$\text{♪} = 150$

공 도 — 홍 묘 지 — — 산 천 초 목 (으) 아
말 해 진 저 어 염 불 잡 아 다
우 리 님 — 가 신 것 이 — 몇 몇 이 나 되느 냐 — ○
아 하 애 에 에 엉 애 애 에 앵 허 영 어 영
아 — 미 타 하 리 로 다 —

(김) 서산 — 낙조에 해 떨어가는 건,
나두 동학고 자란 나도 원통하는데,
서산 낙조이 왜 생겨서 난 놓느냐

에 허 허 — 허 아 — 미 타

(김) ○ 여보하구 여보하궁 친구라도 가는 친구 누구냐~,
에해 허어, 어허 아미타, 에헤야 염불이라

〈섬 151〉

옹진군 동강면 금산리
연평면 서부리

산염불

권장성 (1931년 금산리 출생. 남.
연평도로 피난 나옴) 창
素 88-7-12 A

1. 오늘 밤도 다 갔는데
북두나 칠성이 너 행돌아졌다이
애해 어허어 아미 '타부야 염불

$\text{♩} = 60$

2. 노 자 하 노 자 하

젊어서 허노자에 - - - - - 에 --

늙어 - - - - - 지며 느 -- 은

못노 호 - - - 리 라 - - - - -

(후렴) 해 - - - 에 -

에 해 어어 - - - 미 -

A musical score for two voices in G major, 2/4 time. The top voice starts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eighth notes. The lyrics are "타 - 하 - 아 - - 부 - - - 야 - -". The bottom voice enters with eighth notes. The lyrics are "염 부 흡 - - - - 이 - 라 - - - -". The music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섬 152〉

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도 관청동

산염불

김칠보 (1928년 몽금포출생. 남.
백령도로 피난나옴) 창
주 87-11-27 B

$\text{♪} = 150$

해는 흔-지 고 호-저 무 신 날 에
옥창 흥 행 두 후 는 다 붉었 구 나
예 혜 어 허 어 - 형 어 형
아-하 으 아 미 타 하 어 허 어 - 야
염 불 이 라 하 -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산염불

창 : 1. 이순덕(1928년생.여.3세부터
백령도 거주)
2. 안명삼(1922년생.여.
1955년경부터 백령도 거주)
素87-11-26A

* 안명삼 창은 요성이 매우 굵고 뚜렷함.

이순덕 창은 안명삼에 비해 약한 요성임.

1. 이산 저산 양산 중에,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라,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라

2. 떠나간다 떠나간다,
우리가, 놀다가, 떠나가면,
에헤 – , 에허, 허미 타불, 불이로다

산에 올라, 들구경 하니,
길 가던, 임이 길 못가네
에헤 – , 에허, 허미 타불, 불이로다

〈섬 154〉

옹진군
대청도

상부소리

(예) 최봉오(1905.남. 대청5리 토민)
(반) 김영옥(1926.남. 대청4리 토민)
김윤근(1922.남. 대청1리) 등
녹음 협조; 백정의
이소라체보(87-11-23)

1. 긴 아에이 소리 - 실황녹음 - $\text{♪} = 150$

(선소리꾼) α

아 예 이
<복> *

으 어 어 엉

(상두꾼들) α 복창

오 으 아 에
*

2. 남에 세왕 $\text{♪} = 150$

(미) α

나 하 아 암 에 에
<복> *

세 왕

(발) 나암에 에이 세-왕

(매)

가자 고 — — 하 * 니

가기 나 — 아 안 실 * 총

(매) ○ 아니 갈길은 또 못 되네
○ 저승길이 멀다공 하더니
○ 오늘날이라선 대문 밖일세

(매)

황 천 길 이 —

먼 줄 으 으 을 알 았 더 니

(발)

나 암 에 * 에 이

<겹복>

세 — — 왕 *

(매) ○ 대문 밖이 황천일세
○ 사람마당 벼실<벼슬>을 하면
○ 농부될 사람이 어디장 있고
○ 의사마당 병곤치면
○ 북방산이 왜 생겼냥
○ 이지 가여는 아주 영천 못오는데
○ 여러 손님네들 술이라두 앉아서 개경가구서 나가소

3. 네거리 넝청

$\text{♩} = 60\sim75$

(매) α

12
8

네 호 네 호 네 호 -
<복> *

네 거리 넝 청 네 - - 호 -

(발) 네호 네호 네거리 넝청 네호

(매) ○ 가자구 하니 가기는 싫고
* * * *

- 죽었다네 죽었다네 해동계 총각이 죽었다네
- 인제가면 언제 또다성 올까
- 가꾼 다시 영천 뜻오는 길일세
- 한번 가면 언제 또다성 올까-○
- 명년 춘삼월 봄이나 되면
- 잎이 나고 또다시 들으면
- 꽃시라도 또 다시 필까-○

- 실황 녹음 -

(매) α

12
8

네 호 네 - 호 -

네 거리 넝 청 네 - 호 -

(발)

네 호 네 - 호 -

네 거우리 넝 청 네 - 호 -

4. 달구

 $J. = 40-60$

(매) α

에 해 에 해 이 달 구 요 호
<복> *

(받) 에 해 에 해 이 달구요호

- (매)
- 반판 네귀로 여덟군데
 - 우리나라 계원들 다 들어 셨소
 - 안 <먹>면 술도 취한듯끼
 - 이리 천천 돌아를 가면

(매)

등 맞 추 고 배 해 맞 추 면
* * *

(받)

에 해 에 해 이 달 구 요 호
** * * *

<겹복>

- (매)
- 몸이나 발등은 밟지를 말고
 - 천-년 집으로 닫아를 <다져를> 주고
 - 만-년 집으로 닫아를 주소
 - 열싸 좋다 광활누야
 - 광활누 좋지마는
 - 개지추가 더 좋더라
 - 천-년 집으로 닫아를 주고
 - 만-년 집으로 닫아를 주소
 - 좌우 초목으루다 울을 삼구
 - 금잔례루다 이불을 삼구
 - 잠든듯이 누워 있네
 - 살은 썩어서 물이 되고
 - 뼈는 썩어서 황토가 된다.
 - 불쌍하고 두 또 가련하네

— 후이 —

5. 흥 가래질

 $\text{♪} = 150$

(매) α

에 애해에 일 서 응
가 래 요
가래질 한 번 에 이
소리도 한 번
TP
이 가 래 가
뉘 가 래 냐
에 일 성
가 래 요

(매) (발)

(매) (발)

(매) (발)

(메) ○ 천년 가래로 이여를 주
 ○ 만년 가래로 이여를 주소

〈섬 155〉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서부리

1. 에 헤 소 리

정관석 (1926년 중부리 출생.
남. 서부리 거주) 창
素 88-7-10-2 A

1.

리듬 : <SR> ↓ . = 38 ~ 46

2

$\text{♩} = 50 \sim 60$

A musical score for 'He Ye' in 12/8 time.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The lyrics 'He Ye' are written below the first two measures. The third measure starts with a fermata over three eighth notes, followed by 'He' and 'Ye'. The fourth measure starts with a fermata over three eighth notes, followed by '이' and '들'. The fifth measure starts with a fermata over three eighth notes, followed by '구' and '요'. The sixth measure starts with a fermata over three eighth notes, followed by '호'. The tempo is indicated as '반' (half note) at the beginning.



시 마 디 째 - 는 받 아 나 주 쇼

(반) 에 해 해 해이 달구요

(매) 에 해 해 해이 달구로다

세마디 째는 받아나 주쇼

에 해 해 해이 달구요

〈섬 156〉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1. 운상
2. 달구

김진순 (1915년생.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 (88-7-12 A)

1.

$\text{♩} = 34$

너 너 호 호 너 - 후 노 호
(발) 니 니 호 니 후 노 호
북 만 산 천 이 - - 멸 다 해 두
<망>
대 문 박 이 - 북 망 산 - 일 세
(발) 너 너 호 너 후 노 호

2.

$\text{♩} = 50 \sim 60$

에 행 어 허 달 구 요 호
안 판 - 띠 기 여 멀 - 귀 를
돌 이 나 되 두 륙 - 달 아 주 게

〈섬 157〉

옹진군 연평도

1. 훌 가래질 소리

2. 달구소리

(매) 백만옥 (1924년 경 출생. 남.
1986년 경 녹음된 것을
1988년에 copy함)

(발) 연평도 주민들

* 참고용.

素 88-7-12 B

1.

$\text{♪} = 150$

*소리마종



(매)α 에 — 해 해 에 에 ,
옹 헤 — — 가래요

(매) (* 에-에) 잘 살 아 . . . 잘 살 아 양 혜
아 들 딸 데리고 오 — 잘 살 아 라

(매)

- 가실적엔 오신듯이, 가고 영천 아니오시네
- 죽자니 청춘이고, 사자니 고상이라

- 에 에 인제 가시면 인제 오시나요
다시 영천 못오셔요

- 산천 모도 젊어 가는데,
우리가 우리는 어디를 가시다
- 어흐 ~ 허 — ○
어허 어허 가래요호 .
- 가 실 적에는 오신다더니
다시 영천 못 오시네요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 마라

2.

$\text{♩} = 50$

세 마 디 - 째 는 받 어 만 주 소

(받1)

에 혜 어 허 달 구 요

- (매)
- 인자나 가시면 언자나 오시나
 - 쑤시나 나면 오시더라
 - 병풍에 그린 솟닭
 - 화를 치면 만나나 볼까요

* (받2)를 이 따금 섞어 가창함.

(받2)

어 - 어 허 어 허 좋 다

- (매)
- 땅을 낳으면 열녀가 나오고
 - 개를 맥이면 사자가 된다
- (받)
- 에 혜 에 혜 달 구 요

(매, 받) 우루루루루루루 —

〈섬 158〉

옹진군 백령면
연화1리

상부소리

창 : 김태옥 (1922년생.남.토민)
김태형(1920년생.남),
김원걸(연화1리 이장)

素 87-11-26 B

1. 아미세왕 (어름소리)

$\text{♪} = 150$

혜 에 혜 에 혜 에 혜 에 이 이
아 하 미 - 하 - 세 왕
아 하 하 미 - 에 이 - 세 - 이 히 세 왕
(발) 아하미 - 세 왕

2. 너거리 넝청 네호 (윤상소리)

$\text{♩} = 53 \sim 60$

혜 혜 호 네 - 호 호
네 거 리 넝 청 네 - 호 호
형, 걸 (발) 혜 혜 호 네 호
네 거 리 넝 청 네 호

(메) 간다 하가 한다 하

아주 영 청 가 — 한다 하

(메) ○ 만나 보자,
만나하나 두 보자

3. 달구

\downarrow . = 40 ~ 45

(발) 익 에 해 영 청 달 구 요 호

(메)형 ○ 천하 일순 백령도라
○ 산기운은 삼각산에

\downarrow . = 60

(메)형 벌 어 오 는 산 맥 으 는

(발) 에 해 영 청 달 구 요 호

4. 가래

$\text{♩} = 30 - 43$

(발)육
12
8
에 일 성 가 래 요
가 래 소 리 를 말 을 삼 고

(발)형 에 일 성 가 래 라

(매)육 ○ 이 가 래 가 내 가 렐 라

(발)형 에 일 성 가 래 요

〈섬 159〉

옹진군 백령면
가을 1리

1. 나 메 타 메
2. 남의 세 왕 (길 떠남)
3. 가래
4. 덜구

정 응현 (1912년 생.남.토민) 창
素 87-11-25 B

1.

* 나메타메를 3회 가창하면 상여를 올려 맨다.

○ 나 메 타 메

$\text{♪} = 150$

Musical notation for '나 메 타 메' in G major, 2/4 time. The tempo is indicated as ♩ = 150.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first line consists of two measures: '나 메' followed by a three-note grace note pattern '--- 타 ---'. The second line consists of two measures: '나 메' followed by '--- 타 --- 메 이'.

2.

$\text{♩} = 150$

Musical notation for '남의 세 왕 (길 떠남)' in G major, 2/4 time. The tempo is indicated as ♩ = 150.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first line consists of three measures: '나 메' followed by '--- 세 --- 왕'. The second line consists of three measures: '인 제' followed by '--- 가 --- 면'. The third line consists of four measures: '언 제' followed by '또 다 시' then '--- 오 --- 을 까'. The final line is '정 (발) 나 메 - 세 - 에 왕'.

3.

 $\text{♩} = 40 - 50$

(발) $\text{♩} = 40 - 50$

에 영 서 영 가 래 요 호
(메) ○ 스물 넘는 기원님들

에 영 서 영 가 래 요
열 심 뿐 만 하 여 주 소 (발)

(메) ○ 면데 사람 보기 좋게
○ 절에 사람 듣기 좋게

4.

 $\text{♩} = 54 \sim 60$

(메)α $\text{♩} = 54 \sim 60$

에행서영덜구요호 (발)
이달구 는 무 슨 달 구 (발)

(메) ○ 처음 뒷느은 달구라 ○ 에행서영덜구요호
○ 안판네구는 여덜군데 ○ 등 맞추고 배 맞춰서

아주나枉 다다주소 (발)

〈섬 160〉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1. 남의 세왕
2. 네거리 넘청
3. 달고

(매) 김이선 (1920년 평복
안주 출생. 남.
15세에 백령 입도)
(받) 변정혁 (1933년 생. 남. 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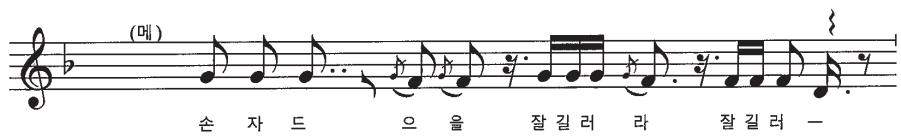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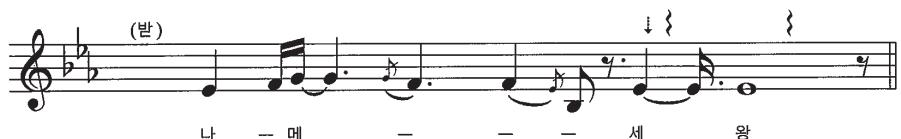
素 87-11-25A

1. $\text{♪} = 150$



○ 나는 ~, 천년 만년 살라고 생각도 하니,
나는 가는 길을, 오늘 막판길이라

○ 아들 아들아 나 너 기를 젠 진 자리 마른 자리 골라서
길렀지만, 내가 갈 줄 언제 알았느냐





2.

(매) ○ 여봐라 여봐라 — 나는 천년 만년 집 지으러 가는데,
동네들 부락 아이나 어른 너희들, 잘 입고 잘 살고,
복불 행보를 아무도 안하게 시리,
난 천년 만년 집 지으레 가누나

(발) 에용 에용 네거리 넘청 에용

(매) ○ 산이 높아 집 지으레 가냐
산이 얕아 집지려 가냐,
내 집은 천년 만년 집 지은다

$\text{♩} = 60 \sim 67$

(발)

에 이 용 —

네 거 리 넘 — 청

(매)

내 가 죽 있 다 구

원 통 하 지 말 구

너 희 들 자 신 만 잘 일 귀
 잘 살 아 라
 (발) 에 이 용 에 이 용 / 네 거 리 님 정 에 이 용

3.

<외침> "여보소 기원들, 다 모여드시오"

(매) ○ 여보 시오 기원 님

이 묘 씩 고 삼 — 년 만 애
 에 혜 에 혜 달 고 요 호
 (매) ○ 아들을 낳면 효잘 낳고
 ○ 딸을 낳면 열녀를 낳는다

〈섬 161〉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1. 남에 세 왕
 2. 가래
 3. 달 구

창 : 김형두 (1913년생.남.토민) 등
素 87-11-24 -1 B

1.

* 네호소리나 넘차소린 안했다.



2.

$d = 50 \sim 60$



(발) 애 헤 영 청 가래요

- (메) ○ 이 가래는 무슨 가래냐
○ 아무간의 달구 가래다
○ 애해 넝청 가래요

3.

$\text{♩} = 66$

(발)
어 헤 넝 청 달 구 요 호

(메)
이 달 구 를 밟 아 주 면

(발) 아 하 넝 청 달구요 호

(메) ○ 네 귀다 쾅쾅 밟아 주시오

〈섬 162〉

웅진군 백령면
남포2리

봉분가래

(매) 김이선 (1920년 평북 안주출생.
남.15세에 백령입도)
(발) 변정혁 (1933년생.남.토민)

素 87-11-24-2A

*기원들 : 유대군들을 가리킴.

(매) 에 일성 가래요
(발) 에 일성 가래요

(매) ○ 다뿍 다뿍 뛰는 가래는, 맘아들의 가래야,
가래 가래요

$\text{♪} = 150$

예 일 서 — 으 응 가 — — 래 요 —

○ 기원들 잘 잡翕고 담뿍 담뿍 뛰주는 건,
무덤이 크게에 가래 줄이요

예 일 서 — ○ 가 — — 래 요 —

〈섬 163〉

장연군 무파동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1. 어둠소리
2. 덜구

창 : 최진성 (1912년생. 남. 무파동에서
1살부터 살다가 남포2리로
피난 나옴) 등
素 87-11-24-2 A

1.

$\text{♪} = 150$

* 받는 소리가 없다고 함.

에 이 번 가면
을 질 이 없 구 나

*선율은 (α)류

- 한번 — 가면 —, 못 오는 길에,
상주들도 한 푼 예전을 써 다오

○ 에 — 이 번 가면, 을 길이 없구나

에 어 어 어 어 — 야

○ 우리 —, 막판 가는 길인데,
상주는 한 푼도 못 보태나

○ 상주를, 보채는 일이 아니라
예전을 써 달란다

2.

$\text{♪} = 150$

에 헤 헤 해 이 멀 구 요
이 <묘> 씩 — 구 삼 년 되 면

(매) ○ 부귀 공명 갈등 없고
○ 우리 자손들은

○ 산천 초목 올구 가구
○ 천년 집을 짓구 가네

〈섬 164〉

장연군 무파동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가래질 소리

창 : 최진성 (1912년생.남.무파동에서
1살부터 살다가 남포2리로
피난나옴)
작 87-11-24-2 A

* 가래질 소리는 백령도에 와서 배웠다고 함.

♩ = 150

에 일 서 허 영 가 래 야

천 년 집 을 짓 구 들 어 가 니

후 손 자 소 혼 이 만 나 한 물 패 라

〈섬 165〉

옹진군 서면 장포리
옹진군 백령면 관청동

1. 남의 세왕
2. 네호
3. 가래

이근수 (1923장포리출생.남.
관청동 거주)창
素 87-11-27 (11.28녹음)

1. — 운구를 들어올리거나 집마당에서 하직할 때 —

"남의 세왕"

2. — 산에 오를 때 —

$\text{♩} = 50 \sim 60$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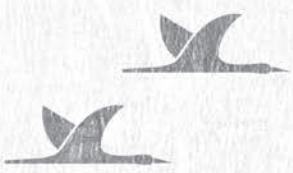
네 호 호 네 호 호 네 — 호

너 허 리 넝 정 네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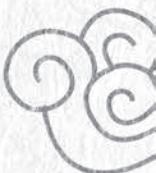
- 3.

$\text{♪} = 150$

엘 서 엉 가 — 래 해요



악보 색인



* 악보 차례

〈섬 1〉 노젓는 소리	최봉오, 김영옥(대청면 대청리)
〈섬 2〉 노젓는 소리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3〉 노젓는 소리	조희준(연평면 서부리) 등
〈섬 4〉 까나리배 노젓는 소리	정응현, 장면주 (백령면 가을1리)
〈섬 5〉 노젓는 소리	김태욱(백령면 연화1리)
〈섬 6〉 대후리 진망 끄는 소리	정응현(백령면 가을1리)
〈섬 7〉 그물 당기는소리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8〉 그물 뽑는 소리	변정혁(백령면 남포2리)
〈섬 9〉 그물 끌어올리는 소리	조희준(연평면 서부리) 등
〈섬 10〉 닻 올리는 소리	정응현(백령면 가을1리)
〈섬 11〉 닻 감는 소리	김칠보, 이근수(백령면 진촌4리 관창동)
〈섬 12〉 술비소리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3〉 까나리 펴싣는소리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14〉 가래질소리(어로요)	조희준, 황명익(연평면 서부리) 등
〈섬 15〉 에밀량(배치기)	조희준, 안창길(연평면 서부리) 등
〈섬 16〉 에밀량(배치기)	조희준, 권장성(연평면 서부리) 등
〈섬 17〉 에밀량(배치기)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18〉 에밀량(배치기)	최봉오, 김영옥(대청면 대청4리)
〈섬 19〉 봉죽타령(배치기)	정응현(백령면 가을1리)
〈섬 20〉 봉죽타령	김칠보(백령면 관청동)
〈섬 21〉 봉죽타령	김태욱(백령면 연화1리)

〈섬 22〉 예용(논맴)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23〉 논매기(호미)	정관석(연평면 중부리,서부리)
〈섬 24〉 자진난봉가(호미)	오상덕, 손엄전(대청면 대청1리) 등
〈섬 25〉 자진난봉가(논김)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26〉 난봉가(논김)	김경신, 백순옥, 박춘매(백령면 진촌1리)
〈섬 27〉 어하나 등등	이순덕(백령면 진촌3리)
〈섬 28〉 김매기	오상덕(대청면 대청1리)
〈섬 29〉 김매기(청춘가곡풍)	최성화(백령면 진촌1리)
〈섬 30〉 김매기(청춘가곡풍)	이순덕(백령면 진촌3리)
〈섬 31〉 김매기(청춘가곡풍)	김태욱(백령면 연화1리)
〈섬 32〉 모심기소리	최진성(장연군, 백령면 남포1리)

〈섬 33〉 모심기소리	이근수(옹진군 서면, 백령면 진촌4리 관창동)
〈섬 34〉 옛 논김매는소리	최진성(장연군, 옹진군 백령면 남포1리)
〈섬 35〉 논김매기	최진성(장연군, 옹진군 백령면 남포1리)
〈섬 36〉 장연군 김매기	김태형(장연군 해안면, 옹진군 백령면 연화1리)
〈섬 37〉 어하나 등등	김칠보(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섬 38〉 논김매기	김이선(평북 안주, 백령면 남포2리)
〈섬 39〉 긴아리(조발매기)	김병일(평남 진남포, 옹진군 백령면)
〈섬 40〉 김매기	안명삼(황해도 풍해면, 옹진군 백령면)
〈섬 41〉 저리소 밭갈이	장면주(백령면 가을1리)
〈섬 42〉 저리소 밭갈이	변정혁(백령면 남포2리), 김이선
〈섬 43〉 저리소 밭갈이	김윤근,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44〉 저리소 밭갈이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45〉 밭갈이 소부림말	이근수(옹진군 서면, 백령면 관창동)
〈섬 46〉 1.밭갈이 2.용두레	김태옥(대청면 연화1리)
〈섬 47〉 감내기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48〉 감내기	박춘매(백령면 진촌1리)
〈섬 49〉 감내기	김태형(장연군 해안면, 옹진군 백령면)
〈섬 50〉 감내기	김이선(평북 안주,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섬 51〉 감내기	김칠보(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섬 52〉 물례	장면주(백령면 가을1리)
〈섬 53〉 물례	최순복(백령면 장촌리, 북포리)
〈섬 54〉 물례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55〉 물례	김이선(평북 안주,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섬 56〉 베틀노래	김경신(백령면 진촌1리)
〈섬 57〉 베틀가	오상덕(대청면 대청1리)
〈섬 58〉 망질소리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59〉 망질소리	이순덕(백령면 진촌3리)
〈섬 60〉 1.망질 2.자진난봉가	김만옥(백령면 연화1리, 진촌1리)
〈섬 61〉 지점소리	정웅현, 장면주(백령면 가을1리)
〈섬 62〉 지정소리	이근수(옹진군 서면, 백령면)
〈섬 63〉 지점소리	김태형, 김태옥(백령면 연화1리)
〈섬 64〉 터다짐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65〉 지게목발	김칠보(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섬 66〉 잠네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67〉 잠네	정응현(백령면 가을1리)
〈섬 68〉 잠네	김태형(백령면 연화1리)
〈섬 69〉 자장가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70〉 자장가	안명삼(백령면 진촌3리)
〈섬 71〉 자장가	최순복(백령면 북포리)
〈섬 72〉 잠네	김만옥(백령면 연화리, 진촌1리)
〈섬 73〉 애기어룸	이화선(황해도 대수암, 옹진군 연평면)
〈섬 74〉 이거리	이화선, 서용옥(연평면 서부리)
〈섬 75〉 말잇기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76〉 말잇기	최성화?(백령면 진촌리)
〈섬 77〉 타박네	최성화(백령면 진촌1리)
〈섬 78〉 건너집 일냄이	최순복(백령면 북포리)
〈섬 79〉 청동 챙둥	이근수(옹진군 서면, 백령면)
〈섬 80〉 끔대	이근수(옹진군 서면, 백령면)
<hr/>	
〈섬 81〉 살라라	정관석(연평면 중부리, 서부리) -----
〈섬 82〉 살라라	서영애, 이길자(연평면 중부리, 남부리) 등 -----
〈섬 83〉 살라라	조희준, 안창길(연평면 서부리) 등
〈섬 84〉 자진난봉가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85〉 자진난봉가	안명삼(백령면 진촌3리)
〈섬 86〉 1.난봉가 2.산염불	김태형, 김태옥(백령면 연화1리)
〈섬 87〉 자진난봉가	김칠보(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섬 88〉 니나나타령	이길자, 이화선, 박봉렬, 서영애, 김윤옥(연평면) 등 ...
〈섬 89〉 너시랑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90〉 놀량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91〉 수심가	오상덕, 손엄전, 장순덕(대청면)
〈섬 92〉 수심가	김태형, 김태옥(백령면 연화1리)
〈섬 93〉 수심가	안명삼(백령면 진촌3리)
〈섬 94〉 수심가	김병일(백령면 진촌3리)
〈섬 95〉 1.수심가 2.난봉가	정응현(백령면 가을1리)
3.이팔청춘가	
〈섬 96〉 1.수심가 2.오봉산타령	최성화(백령면 진촌1리)
〈섬 97〉 오봉산타령	백순옥, 박춘매(백령면 진촌1리)
〈섬 98〉 오봉산타령	이화선(황해도 대수암, 옹진군 연평면)
〈섬 99〉 1.오봉산 2.뱃노래	안창길(연평면 서부리)

〈섬 100〉 장산곶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101〉 장산곶	정웅현(백령면 가을1리)
〈섬 102〉 동금포타령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03〉 장산곶(몽금포타령)	변정혁(백령면 남포촌2리), 김이선
〈섬 104〉 장산곶	최성화(백령면 진촌1리), 김태우(연화1리)등
〈섬 105〉 장산곶	이화선(연평면)
〈섬 106〉 1.장산곶 2.청춘가	김칠보(장연군 몽금포, 옹진군 백령면)
〈섬 107〉 청춘가	정관석(연평면 중부리, 서부리)
〈섬 108〉 청춘가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109〉 청춘가	백순옥(백령면 진촌1리)
〈섬 110〉 청춘가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11〉 청춘가	이화선(연평면)
〈섬 112〉 청춘가	김병일(백령면 진촌3리)
〈섬 113〉 국문뒷풀이	장순덕?손엄전?(대청1리)
〈섬 114〉 국문뒷풀이	장면주(백령면 가을1리)
〈섬 115〉 국문뒷풀이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16〉 국문뒷풀이	김정덕(백령면 진촌1리)
〈섬 117〉 담바구	황명익(연평면 서부2리)
〈섬 118〉 담방구	장면주(백령면 가을1리)
〈섬 119〉 담방구	김경신(백령면 진촌1리)
〈섬 120〉 담방구	변정혁(백령면 남포2리)
〈섬 121〉 담방구	김태우(대청면 연화1리)
〈섬 122〉 1.봄배추 2.담방구	최순복(백령면 북포리)
〈섬 123〉 봄배추	이순덕, 안명삼(백령면 진촌리)
〈섬 124〉 방구타령	정관석(연평면 중부리, 서부리)
〈섬 125〉 창부타령	황명익(연평면 서부2리)
〈섬 126〉 창부타령	최봉오(대청면), 김형두(백령면)
〈섬 127〉 노랫가락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28〉 노랫가락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29〉 1.노랫가락 2.아리랑	조희준(연평면 서부리)
〈섬 130〉 밀양아리랑 곡풍	정웅현(백령면 가을1리)
〈섬 131〉 도라지	김이선(백령면 남포2리)
〈섬 132〉 도라지	이순덕, 김병일(백령면)
〈섬 133〉 1.각설이 2.신고산타령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3. 노들강변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34〉 쌍금쌍금	박춘매? (백령면 진촌1리)
〈섬 135〉 군밤타령	이순덕, 안명삼(백령면 진촌3리)
〈섬 136〉 군밤타령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137〉 벗놀이	이순덕, 안명삼(백령면 진촌3리)
〈섬 138〉 창가 곡풍(물깊어서)	이순덕(백령면 진촌3리)
〈섬 139〉 왕서방	서영애(연평면 중부리)
〈섬 140〉 연자방아(유행가곡풍)	박춘매(백령면 진촌1리)
〈섬 141〉 곱새치기	최봉오(대청면 대청5리)
〈섬 142〉 곱새치기	정웅현, 장면주(백령면 가을1리)
〈섬 143〉 곱새치기	이근수, 김칠보(백령면)
<hr/>	
〈섬 144〉 안택	이근수(백령면)
〈섬 145〉 비손	고상옥(연평면)
〈섬 146〉 굿할 때 첫노래	고상옥(연평면)
〈섬 147〉 송구타령	고상옥(연평면)
〈섬 148〉 산염불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섬 149〉 산염불	정웅현(백령면 가을1리)
〈섬 150〉 산염불	변정혁, 김이선(백령면 남포2리)
〈섬 151〉 산염불	권장성(연평면 서부리)
〈섬 152〉 산염불	김칠보(백령면)
〈섬 153〉 산염불	이순덕, 안명삼(백령면 진촌32리)
〈섬 154〉 상부소리	최봉오, 김영옥, 김윤근 등(대청면)
	(1. 긴 아에이 2. 남에세왕 3. 네거리넝청 4. 달구 5. 흙가래)
〈섬 155〉 1. 애해소리 2. 달구	정관석(연평면 중부리, 서부리)
〈섬 156〉 1. 운상 2. 달구	김진순(연평면 중부리)
〈섬 157〉 1. 흙가래질 2. 달구	백만옥 등(연평면)
〈섬 158〉 상부소리	김태욱, 김태형, 김원결(백령면 연화1리)....
	(1. 어룸소리 2. 운상소리 3. 달구 4. 가래)
〈섬 159〉 1. 나메타메	정웅현(백령면 가을1리)
	2. 남의세왕 3. 가래 4. 딜구
〈섬 160〉 1. 남의세왕	김이선, 변정혁(백령면 남포2리)
	2. 네거리넝청 3. 달고
〈섬 161〉 1. 남에세왕	김형두(백령면 진촌2리)
	2. 가래 3. 달구
〈섬 162〉 봉분 가래	김이선, 변정혁(백령면 남포2리)

- | | |
|-----------------------------|-----------------------------|
| 〈섬 163〉 1.어룸소리 2.덜구 | 최진성(백령면 남포1리) |
| 〈섬 164〉 가래질소리 | 최진성(백령면 남포1리) |
| 〈섬 165〉 1.남의세왕
2.네호 3.가래 | 이근수(옹진군 서면, 백령면 진촌4리) |

옹진섬 민요집

- 백령 · 대청 · 연평면 편 -

인쇄 2019년 10월 7일

발행일 2019년 10월 11일

발행인 옹진문화원

집필 이소라

발행처 옹진문화원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Tel : 032) 891-2131 / Fax : 032) 891-8131

E-mail : ongjin@kccf.or.kr

인쇄처 애드파워 042) 862-9607

※ 용도에 따라 악보의 기보가 달리 될 수 있는 관계로 무단 사용을 금(禁)합니다.

ISBN : 978-89-88852-77-4 (93670)

비매품